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東歐社會 形成의 沿革과 政治現實

— 東歐學의 概念, 東歐의 이데올로기 및 民族問題를 中心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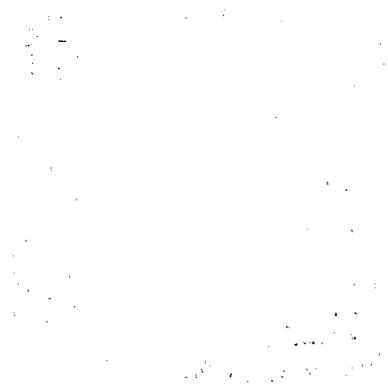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李 泰 永 (圓光大 教授)

刊行責任 金 德 重 (調查研究室補佐官)

朴 英 鎬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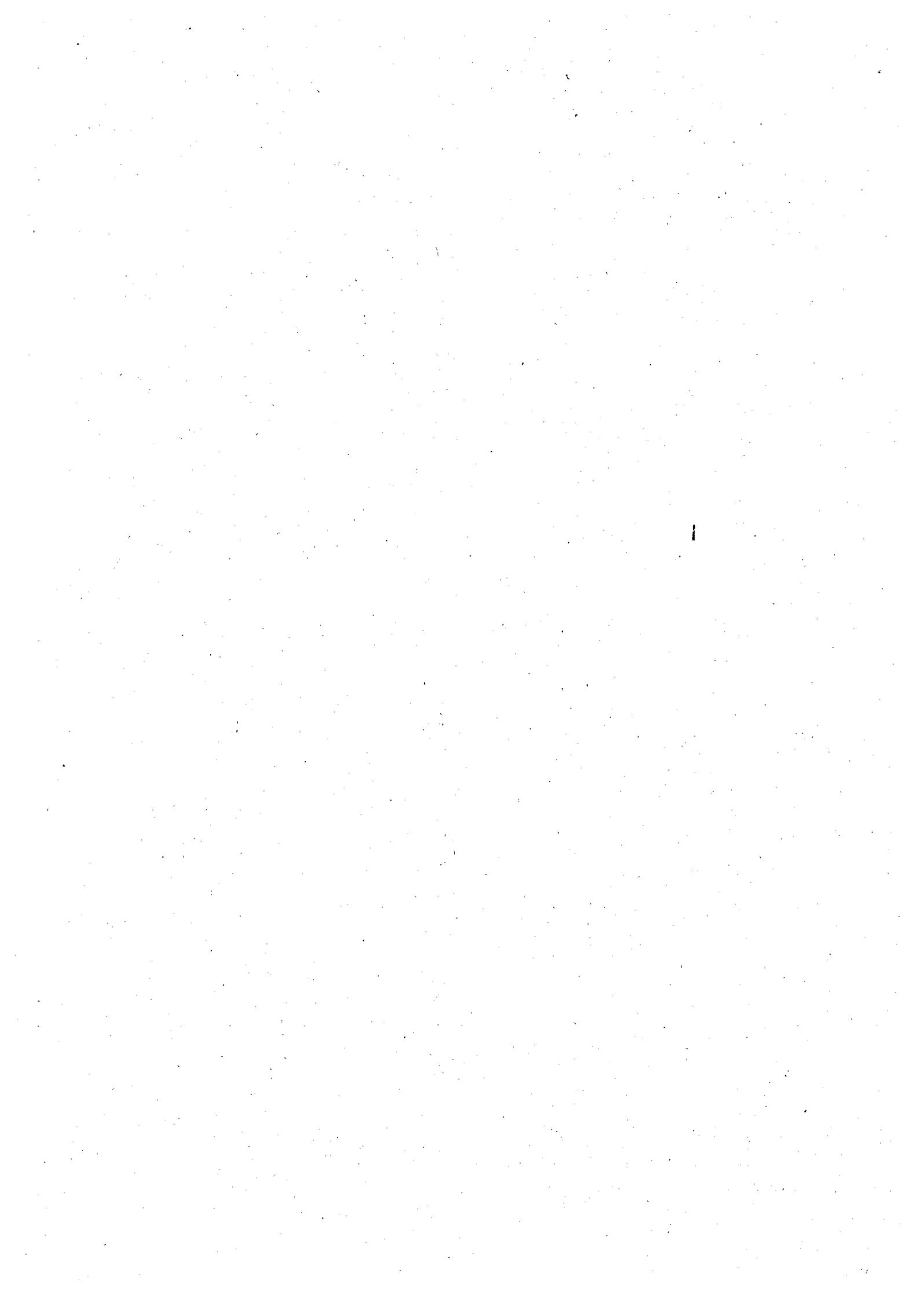


目 次

I. 東欧史 및 東方学 (Ostkunde) 概念上的 諸問題	5
1. 東欧史의 概念	5
가. <東欧> 概念의 問題点	5
나. 東欧社会의 多樣性	8
다. 外勢에 시달린 東欧諸族	10
라. 民族的 覺醒과 Nationalism	13
마. 1次大戰 以後의 東欧	15
바. 東欧社会속의 Federalism	19
사. 東欧社会의 後進性	20
아. 最近의 東欧	22
2. 東方学 (Ostkunde) 이란 무엇인가?	25
가. 東方学이란?	25
나. 東欧学 - 共產主義 研究?	32
다. 比較研究 - 東欧研究 方法論?	34
라. 韓國人의 東欧研究	38
II. 東欧共產主義의 主流	42
1. 共產主義의 派絡	42
2. 불쇄비즘	49
3. 티토이즘	58
4. 트로츠키즘	66

Ⅲ. 東歐 共產主義의 實相	78
1. 유고의 독자노선	78
2. 루마니아의 民族共產主義	90
3. 체코의 中斷된 인도적 社會主義	100
4. Eurocommunism에 대한 東歐圈의 反響	111
가. 유고와 Eurocommunism	111
나. 루마니아와 Eurocommunism	118
다. 헝가리와 Eurocommunism	122
Ⅳ. 東歐의 民族問題	129
1. 19世紀 다뉴브帝國(Donau-Monarchie)의 民族問題	129
가. 民族紛糾의 歷史的 背景	129
나. Zisleitauen과 Transleitauen의 民族勢力 狀況...	133
다. 마자르族과 Wien 政府의 民族政策	139
라. 오스트리아 社民黨의 民族政策	144
마. Epilog	155
2. 蘇聯의 民族政策	159
가. Prolog	158
나. 1939-59年間的 聯邦內 民族分布狀況	161
다. 스탈린의 民族理論	173
라. 言語政策 및 經濟政策의 實際	178
마. Epilog	180

3. 東欧의 民族紛糾	184
가. 民族紛糾의 背景	184
나. 民族對立 樣相	187
다. 맺는말	192



I. 東歐史 및 東方学(Ostkunde) 概念上的 諸問題

1. 東歐史의 概念

가. <東歐>概念의 問題點

東歐라고 하면 유럽의 東部地域을 말한다. 즉 東歐의 概念에는 먼저 地理的인 紐앙스가 짙다고 볼 수 있다. 西쪽은 獨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境界되어있고 東쪽은 蘇聯이 가로막은 地域으로서 結局 발틱海에서부터 시작하여 黑海, 에게海에 이르는 地域을 막연하게나마 <東歐>라고 부를 수 있다. 地理學者들도 유럽의 東部와 西部를 가름하는 자연적 境界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의 東部가 어디에서부터라고 主張하는 定說은 아직도 없는 형편이다. 大百科辭典을 보면 " <東歐>는 東海와 카르파텐의 東部地域인 奧地로서 地質的으로는 러시아版圖의 領域이지만, 文化·地理的으로는 中·東歐에 연결되는 東部地域이고 政治的으로는 蘇聯의 유럽部分에 該當되는 地域이다 " ¹⁾ 라고 되어있다.

보통 유럽을 3분할 때 우리는 西歐, 中歐, 東歐라고 크게 나눈다. 地理學者들에게 이 3分說의 자연적 境界設定 역시 막연하지만 歷史學者들에게 저 地域이 어느 時代에는 中歐에 해당되었고, 또 어느 時代엔 東歐에 該當되었다는 등 그 論據提示가 可能하다.

註1) Sihe, Der neue Brockhaus, Bd.4., S.88., Wiesbaden/
1962.

그러나 歷史家들에게도 東歐의 西部境界를 確定하는 問題는 역시 어렵다. 왜냐하면 同 地域은 歷史속에서도 아주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젠市> (Stadt posen)와 바르샤바가 지금은 폴란드이지만 1次大戰 이전의 포젠은 프리시아州의 首都였기 때문에 당연히 獨逸帝國에 속한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바르샤바는 帝政러시아의 統治圈에 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폴란드人を 除外하고는 그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 포젠市는 中歐에 집어넣고, 바르샤바는 東歐로 보았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에는 두 都市가 모두 재생된 폴란드에 편입되었으니 이제 이들을 어느 범주에 넣어야 옳으냐는 것이다. 폴란드의 主張은 中歐에 속하는 동시에 歷史的으로는 오히려 西歐에 속하기도 한다.

폴란드가 줄곧 西洋의 로마-카톨릭 基督圈의 一部分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폴란드人들은 오랫동안 西歐 라틴文明의 바탕위에서 國家發展을 꾀해 온것이 사실이다. 특히 獨逸과 폴란드는 王昔의 많은 政治的 去來에서 領土割讓도 자주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獨逸人의 立場에서 보면 폴란드는 분명히 그들 東方研究의 對象에 들어간다.

政治的 狀況變化는 言語使用 面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미쳤다는 예가 歷史엔 許多하다. 그러기에 地理學者나 歷史家보다도 政治家들이 먼저 <독일>이라든지, <東歐>라든지의 概念 內容을 確定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獨逸의 東部領域인 東獨을 共產統治下에 있는 유럽의 東部地域에 包含시킨것도 獨逸의 政治人들이 이를 政

治的 카테고리에 입각해서 단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獨逸>이나 <東獨>의 概念은 流動的이며 단적으로 定義하기가 아주 어렵다. 最近의 東西政治 趨勢를 보면 70年代의 解氷무드 속에서 東歐 여러나라는 獨自路線의 幅을 넓혀가고 있다. 저들 나라들은 지금 資本主義的인 西方諸國의 觀光客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西方諸國의 觀光客들이 저들 슬라브族에 대한 歷史知識 없이 走馬看山식의 東歐 旅行을 하는 것은 其實 큰 의의가 없는 것이다. 黑海沿岸의 浴場에 누워 日光浴을 즐긴다든지, 또는 체코의 古都인 프라하의 市庁 앞 広場에서 每時間마다 12使徒가 나와 종소리를 울리는 저 「使徒時計」를 쳐다본들 무슨 感壞가 깊으냐 말이다. 鐵의 帳幕 주변의 인간들이 지금 소위 스탈린主義라고 하는 全体主義 體制下에서 침묵을 生活信條로 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의 過去 즉 1945年, 1938年, 1918年 以前의 저들 世界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나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東歐諸族이 어떠한 民族史的 底力을 지녔기에 지금 저들은 自己主張의 幅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 西方社會의 體制的 長短을 저들이 어떻게 評하고 있는가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東洋의 여러나라는 東歐와의 地理的 隔離때문에 現代를 除外하곤 歷史的으로 東歐文化圈과 接觸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韓國人에게 政治的인 이유에서 東歐研究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할 版局이다. 왜냐하면 北韓이 共產圈 交流의 一環에서 東歐共產諸國과 긴밀하게 유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東歐社會의 多樣性

共產統治下에 있는 東歐諸國중엔 東獨人, 루마니아人, 알바니아人 등이 들어있어 저 東歐圈을 지금도 슬라브 世界라고 부를수 없듯이 저들의 과거는 民族的으로, 言語的으로, 文化的으로, 宗教的으로 너무나도 多樣했다. 우선 저 地域은 地形的으로도 複雜해서 저들의 오랜 歷史世界는 異質의 幅이 넓을 수 밖에 없었다.

地理的으로 볼 때 北部의 「발틱海沿岸地域」, 中部의 「도나우江流域」, 南部의 「발칸地域」으로 크게 3分하면 北部는 발틱海와 「카르파텐」 및 「수데텐」의 兩山脈의 사이에 낀 地域으로서 폴랜드를 中心으로 하는 大平野地帶이다. 이 大平野는 東으로는 발틱 3國 (Estonia, Latvia, Lithuania 등 3共和國) 및 러시아의 曠野와 연결되고 西로는 獨逸平野에 이어지며 全地域에 많은 河川이 있다. 그리고 中部의 도나우江流域은 上流쪽에 헝가리가 있고 下流쪽에 루마니아가 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의 北部를 겨안은 大盆地地帶이다. 도나우江은 獨逸과 발칸지방을 연결하는 자연적 通路이기도 하다. 그리고 南部의 발칸地域은 도나우江 以南의 東南유럽으로서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희랍 등이 이 地域에 있다. 그러나 희랍은 共產國家가 아니기 때문에 東歐共產圈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보통 빼는것이 常例이다. 발칸半島는 거의가 山岳地帶여서 平野는 河川流域이나 海邊을 따라 조금 밖에 없다. 발칸의 山岳은 오랫동안 南으로부터의 文化傳播을 沮止한 자연적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동 地域은 東歐圈에서

後進國일수 밖에 없는 原因이 되었다.

東歐圈의 民族狀況을 보면 北部에는 폴란드人이나 체코슬로바키아人 등 西슬라브族이 살고, 南部에는 유고슬라비아人과 불가리아人 등 南슬라브族이 산다. 물론 이 南部에는 非슬라브系인 알바니아人도 있지만 이는 南슬라브族의 數에 비해 相對가 안될 정도로 적다. 그러나 中部에는 헝가리人과 루마니아人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우랄·알타이系와 라틴系로서 모두가 非슬라브族이다.

그다음 文化·宗教 面을 보면 꽤 이질적인 두 部分이 결합되어 東歐의 文化·宗教勢를 그려내고 있다. 10世紀 이후 北部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中部의 헝가리, 南部의 유고 一部(크로아치아와 슬로베니아 지방) 住民들은 카톨릭敎化되어 그후 오랜동안 西歐文化의 影響下에 있었다. 그러나 南部의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발칸諸國은 회람正敎化하여 비잔틴文化圈에 속했으나 14세기 이후에는 터키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아 저들 住民의 一部가 回敎徒化되기도 했다. 터키統治下에 놓인 발칸은 그후 文化的 發展을 抑壓당함으로써 後進性을 띄게 된다. 그러나 터키侵略을 支持한 北部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一部 등지는 比較的 높은 文化水準을 갖고서 東歐圈 內에선 先進的인 地位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같이 <東歐>는 諸形成要因부터가 복잡다단해서 이 全体를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多樣性 自体가 東歐의 본질적인 特色이어서 이 地域의 諸民族이 특히 19세기 이후 직면했던 課業의 共通性을 이룩하기도 했다. 즉 미국

의 1個 州보다도 더 적은 地域에 서로 다른 言語, 文化, 宗教, 歷史 등을 갖는 여러 民族이 混住・交互하며 1千餘年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民族紛糾와 領土紛爭이 있기 마련이었다. 戰爭과 平和, 征服과 屈辱, 支配와 從屬 등이 반복된 긴 歷史속에서 民族問題(Problems of Nationalities)와 領土紛爭은 東歐에 공통되는 으뜸가는 特徵이다.

다. 外勢에 시달린 東歐諸族

東歐諸族은 그들의 긴 歷史속에서 西유럽과 東方의 遊牧諸民族, 특히 近代 이후로는 러시아大國 등 소위 東・西의 兩大勢力에 依해 늘 시달림을 받아왔다.

中世의 東歐에는 西슬라브族과 南슬라브族의 民族國家가 있었고 또 非슬라브系의 民族國家도 있었다. 폴란드, 보헤미아(지금의 체코),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이 슬라브族의 國家이며,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소위 非슬라브系의 民族國家들이다. 그러나 이들 國家는 그 당시 隣接國의 影響을 많이 받는 소위 主体性없는 小國들이었기 때문에 強한 外勢에 물리면 그 侵略을 물리치질 못함으로써 늘 半植民地的 性格을 띄고 있었다.

東歐에 대한 西歐側의 侵入중에서는 게르만人의 東方進出이 으뜸이다. 즉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는 中世 後半에 神聖로마帝國(962-1804)의 勢力이 떨치기 시작한 이래 第2次大戰의 「나치 獨逸時代」(1933-45)에 이르기 까지 獨逸人의 東方進出이 끊임없이 없었다. 그래서 슬라브社會는 게르만人과의 交互를 통해서 어

명게 發展했고 또 變化했는가가 東歐史의 特色이 되어 있다.

특히 東歐의 中世를 보면 獨逸騎士團이 폴란드의 발틱海 沿岸에 植民하여 後日 프리시아王國을 세웠다. 그리고 또 한자(Hansa) 同盟에 依해서 많은 獨逸商人이 단찌히(Danzig) 地方으로 번식하기도 했다. 神聖로마帝國의 이같은 東方拔勢는 東北歐에서 회람正敎를 逐出했을 뿐만 아니라 當時 그 地域에 存立했던 많은 民族王國에도 獨逸人의 적지않은 政治的 影響을 미쳤었다.

그러나 近世에 들어와서 합부르크家가 神聖로마帝國의 帝位를 承繼하면서 부터 同帝國의 東方植民이 더욱 活潑해졌다. 戰爭을 통해서 領土를 擴大하는가 하면 교묘한 外交政策으로 王家間의 政略結婚을 利用해서 國勢를 擴張하기도 했다. 예컨대 1620年 보헤미아의 新敎徒 反亂을 鎮壓한것을 契機로 보헤미아王國을 屬領化했는가 하면, 이미 그 以前에 터키의 西歐侵入을 격퇴하여 헝가리全土와 트란실바니아(지금 루마니아領임) 地方과, 크로아치아(지금 유고의 北部地方임) 地方을 領有하기도 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폴란드 分割>²⁾에도 참여해서 갈리치아(Galizien)를 獲得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합쓰부르크家は 神聖로마帝國의 소멸후에도 그

註2) 1772, 1793, 1795 등 3차례에 걸쳐 폴란드는 프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등 3國에 의해 분할당한 바 있다.

들의 帝国(합스부르크帝国, Habsburg Empire³⁾)을 방대한 中歐에 君臨시켜 1次大戦時까지 크게 그 命脈을 維持했다.

다른 한편 東歐의 東南部는 최초엔 비잔틴帝国(Byzantine Empire)의 版圖안에 들어 있었으나 그 후 점차 터키의 侵略을 當했다. 즉 13세기말 小아시아에 建設된 오스만帝国이 海峡을 건너 발칸에 侵入하여 14세기 後半에 먼저 불가리아를 滅하고 이어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를 그 支配圈하에 넣었으며, 1453年엔 마침내 비잔틴帝国을 滅亡시켰다. 그후 발칸은 400餘年동안 터키의 压制와 착취를 當하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러시아의 絶對政이 公高되자 東歐의 동쪽에서도 로마노프家の 拮勢試圖가 발칸까지 미치게 되었다. 즉 로마노프家は 18세기 後半이후 拮勢의 손을 발칸쪽에 뻗고 터키의 地位를 威脅했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普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分割>에도 참여하여 東方의 強大國으로 君臨하기 시작했다.

註3) 801年の Ostmaher가 오스트리아의 기원인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家は 独逸神聖로마帝国(962-1804)의 皇帝統을 가장 오랫동안 이은 王家로써 1867년에는 Austro-Hungarian Monarchy를 建立하여 1次大戦이 끝나는 1918년까지 中歐의 列強으로 君臨했던 王朝이다.

라. 民族的 覺醒과 Nationalism

18 세기에 이르기까지 東歐諸族이 얼마만큼 外勢에 시달려 왔는가는 대략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1789 年의 프랑스革命後 西歐社會에 내셔널리즘이 대두되어 이것이 各國政治의 前面에 등장하자 이 餘波는 東歐社會에 까지 波及되어 19 세기의 東歐政治를 民族解放運動으로 加熱하게 된다. 즉 러시아, 터키, 오스트리아, 프로시아등 4 大國의 影響下에 있던 東歐諸族이 民族解放과 國民國家(Nation State)의 形成을 들고 나오므로써 19 세기의 東歐政治는 一律적으로 民族主義的 傾向(Nationalistic Tendency)에 들어서게 된다.

本는 발칸諸族은 터키侵入 以前까진 그 나름으로 文化的 個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400 餘年에 亘한 터키의 壓制로 말미암아 文化發展을 沮止當했던 저들이 터키勢力이 衰微해감을 보자 中·西歐의 民族解放運動에 刺戟되어 터키治下를 벗어나려 들었다. 然而나 발칸은 유럽列強의 利害가 錯雜한 地域이었기 때문에 발칸諸族의 解放運動도 필경 列強의 對立關係와 無關할 수가 없었다. 列強의 발칸進出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낸 것이 러시아였는데 이는 발칸住民의 大多數가 希臘正教徒이기 때문에 발칸諸族의 보호라는 名分하에 이들을 汎슬라브主義(Pan Slavism)⁴⁾로 묶으려 했던 것

註 4) Pan Slavism 은 1830 年代에 체코의 文人 Jan Kollar 에 의해 最初로 提唱되었다.

이다. 결국 발칸諸族의 獨立運動과 러시아의 南下政策이 결합되어 발칸에서 터키勢力을 逐出한 것이다. 19세기 末葉이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가 모두 獨立함으로서 터키가 물러선 발칸은 마치 眞空地帶였는데, 이곳에 유럽의 帝國主義勢力이 물러든 것이다. 今世紀 即 발칸에 있어 列強勢力이 角逐을 벌인것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獨逸等 3國이었다. 결국 Panslavism과 Pangermanism의 對立이 尖銳化된 발칸은 1914년 4월 1次大戰 勃發의 火藥庫였던 것이다.

그러나 1次大戰 以前 列強의 利害相衝에 便乘하여 獨立 爭取를 爲해 發現된 발칸諸小國의 내셔널리즘은 西歐의 프랑스革命時에 出現한 內셔널리즘과는 質的으로 다른 것이었다. 西歐의 것이 國民의 意志를 直線的으로 表現한 進歩的이고 革命的인 運動이었던데 反해서 발칸의 것은 그 보다 훨씬 柔弱하고 단순히 原色的·排他的인 것이 그 特色이었다. 왜냐하면 東歐에는 西歐처럼 種族의 오랜 集住에서 오는 國民國家의 母體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 同系民族이 一定 地域에 集住하지 않고 여러곳에 散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同一民族의 統合試圖는 隣近諸族의 衝突을 많이 불러 일으켰다. 결국 同系民族의 集住를 爲해서는 政治的 境界線을 새로이 設定해야 했고 나아가서 民族國家를 형성하기 爲해서는 隣接 國家相互間에 領土劃定을 새로이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의 民族問題나 領土紛爭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近代列強間의 對立·抗爭에 휘말림으로써 問題는 더욱 深刻하고 複雜했었다.

나폴레옹戰爭 後 近代科學 技術의 發達은 國際社會의 構造를 큰 經濟圈이나 強한 軍事力을 갖는 나라에 有利하게 變化시켜 놓은 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大國과 小國의 力關係는 더욱 偏狹해졌고 強大國은 弱小國을 自由裁量으로 操縱할 수 있었다. 國際政治의 實際가 위와 같이 強大國 主導下에 行해졌기 때문에 事實상 오늘의 國際政治도 마찬가지로 발칸諸族의 民族感情은 그당시에 諸列強의 衝動에 依해 쉬이 發露되었었다.

이같은 列強政治의 關與와 操縱때문에 발칸諸小國의 내셔널리즘은 마침내 쇼비니스틱한 方向으로 發展하여 王昔의 大國 再現을 꿈꾸게 했었다. 「大세르비아主義」나, 「大불가리아主義」나, 「大루마니아主義」나, 「大희랍主義」나 등이 모두 排他的 民族主義運動의 標語였다. 결국 偏狹한 民族意識에 입각한 발칸諸族間의 對立이 좁은 半島내에서 深化되었을 때 마침내 「발칸戰爭」을 勃發시켰고 또 필경 第1次 世界大戰을 導火하기도 했다.

마. 一次大戰 以後의 東歐

一次大戰으로 因해 수백년 동안 東歐를 支配해 온 합스부르크帝國은 崩壞되고 帝政러시아도 革命에 依해 변모함으로써 東歐를 支配해 오던 二大勢力은 사라졌다. 그리하여 東歐諸族의 오랜 宿願이 成就되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獨立했고 또 南슬라브族의 國家인 유고슬라비아가 탄생되기도 했다.

東歐小國들이 이와같이 獨立은 爭取했지만 東歐社會의 特徵的 諸問題인 民族問題, 領土紛爭, 外勢의 干涉 등은 大戰後에도 解消되지

많은 채 계속 物議를 빚었다. 狹小한 발칸半島에 작은 獨立國家가 保存하게 됨으로써 東歐諸族의 政治問題는 더욱 複雜해진다. 즉 합스부르크帝國과 러시아帝國이 解体된 후 그 繼承諸國(Folgestaaten)이 成立되어 紛爭을 벌임으로써 東歐는 발틱海沿岸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칸半島에 이르기까지 政治混亂에 빠지게 된다. 이를 가르켜 소위 <유럽의 발칸化>라고 하는데 이 유럽政治의 발칸化는 바로 兩次大戰間 東歐問題의 中核이 되었다.

東歐諸國間 紛糾의 內訌을 보면 역시 領土問題가 으뜸이다. 폴랜드는 체코와 「텃센」(Teschen)⁵⁾의 領有를 에워싸고 對立했으며, 領土의 七割系를 隣接國들에게 빼앗긴 헝가리는 實地回復을 위해 國民的 感情이 크게 激昂되었었다.⁶⁾ 그리고 「마케도니아」⁷⁾의 大部分을 유고에 빼앗긴 불가리아인의 激憤은 大端했으며 저 領土紛糾는 事實上 유고-불가리아間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⁸⁾

註 5) Teschen은 Olsa江의 右岸이 폴란드領 Teschen (1956年 現在 人口 22,000名)이고 Olsa江의 左岸이 체코領 Teschen (1958年現在 人口 14,6000名)이다.

6) 矢田後隆, 東歐史, 1977, p.7

7) 알렉산더大帝때의 立業이 살아진후 마케도니아는 終곧 外人統治를 받아왔다. 1913年 동지역이 3分된후 (유고領 마케도니아 40%, 불가리아領 10%, 희랍領 50%) 불가리아는 지금도 유고에 대해 歷史的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다.

8) E.Lemberg(Hr.), Die Deutschen und Ihr Östlichen Nachbarn, 1967, S.422ff.

争点의 둘째번은 民族問題인데 民族自決의 原則에도 不拘하고 東
歐內 新生國家들은 大部分 異民族과의 混住狀態에서 獨立이 成就되
었기 때문에 民族的 衝突은 大戰前 보다도 더 많았고 더 複雜했
었다.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人, 슬로바키아人, 獨逸人, 우크
라이나人, 폴란드人 등으로 構成된 多民族國家이기에 共和國 建設後
의 內政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수데텐·獨逸人」問題는
마침내 체코를 「나치·獨逸」에게 한동안 壓속시키는 結果까지 자
아냈다. 그리고 또 유고슬라비아는 南슬라브族의 나라라고는 하지
만 五個의 大民族으로 나눌 수 있는 部族的 根源이 있었기에 그
들간의 歷史的인 對立은 國論統一을 期할 날이 없었다. 유고의
小民族中 세르비아人과 크로아치아人的 對立은 지금도 가끔 表面化
되고 있다.

이와같이 矛盾과 弱點들을 안고 있는 東歐諸國인지라 強한 外勢
의 壓制에 부딪치면 쉽사리 그 獨立의 基盤이 뒤흔들리곤 했다.
나치독일이 東方에 進出하기 시작했을 때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失
地回復의 꿈을 實現키 爲해 나치와 紐帶했고 또 루마니아와 유고
는 國內의 政情不安을 克服하려고 나치에 가담했었다. 그러나 나
치에 가담하지 않은 폴란드와 체코는 결국 나치의 武力侵攻에 依
해 獨立을 喪失하고 말았다.

셋째 外勢의 對東歐 干涉이라는 面을 보면 兩次大戰間의 列強의
對東歐政策에는 이미 體制 또는 이데올로기의 對立이라는 原因도
作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西歐側은 東歐諸國을 볼셰비즘의 浸

透에서防禦하기 爲해 특히 仏·英·美등 3 國이 東歐의 新生諸國에 많은 資本과 商品을 輸出했다. 그러나 다른한편 蘇聯은 自國의 安保強化를 爲해 핀란드, 발틱 3 國, 폴란드 등 周邊國家를 再編成 시도했었다. 즉 1930 年에는 저들 各國과의 個別交涉을 통해 不可侵條約 締結의 바탕을 마련해 나갔다. 그리고 또 「콤민테른」(Komintern)⁹⁾도 世界革命의 達成과 蘇聯自體의 安保強化라는 두 鬭爭目標을 爲해 크게 活動했다.

그러나 1933 年 東方에의 生活圈(Lebensraum) 擴大를 내 見 「나치 獨逸」이 成立되자 蘇聯은 이에 큰 威脅을 느끼고 西歐列強과 軍事的으로 提携하여 나치의 東歐膨脹을 阻止하려 했다. 그러나 蘇聯을 不信했던 英·仏은 오히려 對나치關係에서 宥和政策을 取함으로써 東歐는 나치의 拔勢慾앞에 송두리채 내던져지고 말았다. 그러자 蘇聯은 1939 年 8 月 나치獨逸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東歐의 隣接地域에 對한 自由行爲權을 얻어냈다. 그 후 나치獨逸이 폴란드를 侵入함으로써 第 2 次大戰이 勃發하자 蘇聯은 폴란드東部に 進駐하여 발틱 3 國을 自領에 編入시켰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벡사라비아(Bessarabia)와 北部부고비나(Bukowina)를 割取했고 또 핀란드와는 國境을 修正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히틀러도 對蘇攻擊을 計劃하고 핀란드에 獨逸軍을 投入했으며 항가

註 9) Kommunistische Internationale의 略字이다. 1919 年 W.I.Lenin의 提議에 依해 結成된 모든 나라 共産黨의 聯合體인데 1943 年 Stalin이 對西歐聯合協商을 円滑히 하기 爲해 解体시켰다.

리와 불가리아를 나치影響圈에 넣음으로써 1941年엔 東歐를 발판으로 對蘇侵略戰을 開始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30年代의 後半은 蘇聯과 나치獨逸이 方法과 形態만을 달리했을 뿐 事實上 東歐諸小國을 併合 또는 征服하려고 갖가지 試圖를 驅使했던 태풍前夜의 歷史時期였다.

바. 東歐社會속의 Federalism

2次大戰의 前夜에 東歐諸國이 獨·蘇의 征服試圖앞에 설라나 시달렸는가는 쉬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東歐諸國은 그당시 強한 外勢의 壓力을 그 나름으로 排除하고 社會生活의 安定을 期하기 爲해 그들 서로가 團合하는 등 新生國의 國基의 鞏固化 試圖가 아주 活潑했다. 체코가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衝動하여 이룩한 <小協商>등이 바로 그 代表的인 例인데 諸小國이 自進해서 大勢力에 接近하여 그 그늘 속에서 小國의 自主性을 維持하려 했던 實例가 東歐史에는 많다. 예컨대 합쓰부르크帝國이 數百年동안 多民族世界를 統合, 主導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같은 小國側의 協力이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經濟的으로, 軍事的으로 諸小國의 自主性이 維持되기 爲해서는 大帝國 主導의 一體化속에서 存統하는 것이 有利했기 때문에 諸小國은 自進해서 大帝國의 存立을 願했던 것이다. 1848年의 革命時 합쓰부르크家 領內의 슬라브族들은 합쓰부르크帝國이 오스트로-슬라브人(Austro-Slaves)의 保護者로서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民族的 覺醒이 꽤 일깨워져 있었던 1次大戰

直前에도 합스부르크帝国内의 民族運動의 指導者들은 自民族의 權利는 主張하면서도 帝國的 解体나 崩壞는 願하지 않았고 이 帝國을 民主·自治的인 諸民族의 聯邦으로 改造하려 들었었다. 10)

1次大戰後 東歐에 民族自決의 原則이 適用되어 新生諸國이 誕生했을 때 예전에는 저들 諸族이 서로를 補完해서 帝國的 一体化를 피해 왔으나, 이제 저들 하나 하나가 소위 <繼承諸國>이 됨으로써 저들이 어떻게 獨立을 維持하면서 發展해 가느냐가 저들의 큰 課業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체코首相 베네슈 같은 이는 루마니아 및 유고와 提携하여 <小協商>(Entente)을 形成하고 新生國의 安保를 期했으며 나아가서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까지도 包含하는 政治·經濟 協力關係를 構想했다. 協力案은 結局 失敗로 끝났지만 如何間 東歐에 있어서의 Federalism의 問題는 지금도 東歐史 分野의 한 研究테마이다.

사. 東歐社會의 後進性

東歐社會가 갖는 特徵의 하나는 同地域이 近代의 發展過程에서 後進的이었다는 點이다.

中世末에 東歐諸國은 大土地 所有制가 發達하여 貴族 및 領主의 勢力이 大端했다. 이들 民族勢力은 王朝交替까지도 利用하여 계속 그들의 特權을 擴大 維持했고 身分制議會를 中心으로 國政을 左右 했었다.

註 10) 矢田後隆, 近代中歐의 自由와 民族, 1965, 211 pp.

王權下에서 貴族勢力이 國政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經濟地盤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저들의 經濟的 基盤은 農産物이 그 主軸을 이루었는데 對農關係의 円滑을 爲해 저들이 農民의 統治를 強化했을것은 當然했다.

西歐에서는 近代에 들어와서 農奴制¹¹⁾가 解体되나 東歐는 西歐와는 反對로 近代의 農民이 오히려 더 逼迫을 當했다. 즉 貴族勢力이 身分制議會를 左右하는 近代에 들어와 農民은 移住의 自由마저도 박탈當하고 人格的으로도 거의 노예 取扱을 받았다. 換言하면 東歐의 農奴制는 販賣用 農産物의 生産을 爲해 領主 直營制가 發達함에 따라 盛行된것이였다. 그리하여 엘베江(Elbe)以東의 러시아地域을 包含한 中·東歐 全域에는 부르조아가 지배하던 西歐社會와는 달리 地主가 지배하는 東歐型 社會가 成立되었었다.

東歐社會의 이같은 階層構造는 그 後 東歐各國의 發展에 큰 影響을 미쳤다. 즉 19世紀의 東歐에서는 農奴制의 廢止가 民族解放運動과도 結付되었는데 莫強한 土地貴族과 大多數 貧農과의 對立은 1次大戰後까지도 오래 계속되었다. 少數의 土地貴族 對多數의 貧農 對立이라는 要因이 東歐共產化의 遠因이었다고 보아도

註 11) 封建制度의 마지막 殘滓가 씻어진 것은 1789年の 프랑스大革命 以後이다. 獨逸(프러시아)에서는 1809년에 農奴制가 廢止되고 오스트리아는 1782년에 農奴解放令을 냈다. 그러나 金納制와 生産物地代를 가졌던 英國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中世末에 農奴制가 거의 廢止되었다.

틀린 見解는 아니다.

따라서 東歐에는 西歐的인 市民民主社會가 建設될 수 없었으며 封建的 遺制가 오래 存続되었고, 國權 維持를 爲해 지난 날 英雄들의 伝說이 強調되었는가 하면 過激하고 排他的인 내셔널리즘이 出現되었다. 달리 말하면 지금 東歐共産圈이 안고 있는 政治·社會의 自由化 또는 民主化, 그리고 農工業 分野의 近代化 不振 등 諸難題의 原因도 東歐型 社會의 後進性에서 찾아져야 한다.

아. 最近의 東歐

2次大戰 後 東歐에는 커다란 變化가 있었다. 첫째 오랫동안 同 地域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貴族 및 地主勢力이 완전히 消滅되었고 둘째 東歐諸國이 거의 例外없이 안고 있던 國內 少數民族問題도 戰後의 國境調整과 住民交換을 통해 大部分 해결되었다. 이러한 問題들의 해결은 東歐社會를 특징지워온 問題性의 革命的인 轉換을 意味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難題들이 根本的으로 解決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面에서는 從來의 問題性이 저 社會의 밑바닥에 依然히 깔려있다. 實例를 들자면 첫째, 社會主義 體制 下에서 推進되고 있는 經濟開發이 순조롭게 進陟되지 않는 理由도 따지고 보면 後進적이었던 東歐社會의 果實에 聯関되어 있다. 결국 <經濟의 效率化>는 지금 東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업이다. 둘째로, 領土나 國境問題도 걸코기엔 一応 해결된것 같지만 東歐諸國이 지금도 거의 그 나름의 크고 작은 領土問題를 안고 있다. 마케도니아를

에워싼 유고-불가리아의 對立, 루마니아에 편입된 一部 헝가리인의 問題,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은근한 軋轢, 크로아치아인과 세르비아인의 反目으로 因한 유고 國論統一의 어려움 등등이 國境紛糾 및 民族問題의 代表的인 殘存部分이다. 셋째는, 東歐가 東西 兩大 勢力사이에 끼어있는 小國의 集合體라는 狀況이다. 2次大戰 以前에도 저들 東歐小國은 兩大 勢力을 물리치고 길을 찾기에 급급했지만 지금 저들 小國의 立場은 理論과 體制라는 要因까지 加味되어 있기 때문에 戰前 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東歐는 2次大戰 때부터 시작하여 戰後에 걸쳐 蘇聯의 勢力圈에 들어갔다.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저들의 大部分이 社會主義 政權을 수립했는가 하면, 蘇聯은 바르샤바條約機構와 <코메콘> (Comecon)을 통해 저들과 軍事, 經濟關係를 強化했고 또 「콤민포름」(Cominform)¹²⁾을 結成하여 이데올로기의 統制도 強化했었다. 그리하여 蘇聯-東歐共産圈은 스탈린이 이끄는 鐵의 帳幕속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念과 實際로 組織化되었다. 1948年 스탈린은 独自の 革命으로 共産政權을 樹立한 유고共産黨을 콤민포름에서 除名하고 이어서 東歐各國의 民族主義者들을 追放했는데 이는 모두 스탈린主義로 共産圈의 理念的 進路를 一元化하려는 計略·試圖였다.

그러나 1953年 스탈린이 死去한 후 후루시초프에 依해 蘇聯에

註 12) Kommunistisches Informationsbüro의 略字, 1943年에 解体한 「콤민데른」의 後統機構로써 1947年에 成立되어 1956年에 解体되었음.

서 「非스탈린化」가 進展되자 東歐에서도 自由化의 氣運이 일었고, 마침내 馮민포름도 解体되었다. 1956年 폴랜드의 포즈난에서 勞動者의 暴動이 있었고 이어서 헝가리에서도 10月動亂이 勃發한 것은 東歐各國이 스탈린主義를 排斥하는 証拠였다. 즉 스탈린時代에 蘇聯共産黨이 東歐各國의 實情을 無視하고 스탈린的 政策을 強要한데에 대한 不滿이 解放을 渴求하는 에네르기에로 轉化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50年代 中葉부터 시작된 <中·蘇紛糾>은 東歐圈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쳤다. 알마니아가 中共側에 加担하여 蘇非難의 앞장을 섰는가 하면 60年代의 中葉 무렵부터는 루마니아도 獨自路線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8年엔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름아래 체코共産主義의 改革旋風이 온 世界를 휩쓸기도 했으나 蘇聯은 武力으로 체코를 強占하고 저 自由化운동을 阻止했었다. 체코를 武力侵攻하면서 蘇聯은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내걸고 衛星諸國의 制限主權을 요구했는데, 이는 蘇聯에 「네오·스탈린니즘」(Neo-Stalinism)이 抬頭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스탈린時代의 制度的 特色이 蘇聯 自体内에서도 拒否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東歐에서 일어난 自由化 또는 多極化의 흐름을 逆轉시키거나 또는 阻止할 수 없다는 것도 既定事實이다. 그러나 東歐諸國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對蘇關係를 惡化시키지 않는 채 自國의 自由化를 進陟시키고 또 國際的 地位의 向上을 期할 수 있는냐가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만 蘇聯의 脾胃를 傷하지 않는 채 社會主義 體制下에서 政治의 民主化를 꾀할 수 있으며 文化活動의 自由化를 試圖해 나갈 수 있느냐가 東歐諸國의 當面 課題이다.

東西를 莫論하고 오늘의 政治現實은 大國의 政策決定에 小國은 거의 同調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主權國家의 自由行為權이 理論的으로는 認定되지만 實際政治에서는 無制限한 내셔널리즘은 大·小國關係에서 容認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東歐諸國의 向背은 自國의 發展을 爲해 內政上의 變革이나 對西方 接觸을 꾀하되, 이를 對蘇協力을 꾀지 않는 채 어떻게 推進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東歐가 안고 있는 複雜한 內外關係, 즉 東歐諸國의 對蘇關係, 對中關係, 그리고 東歐圈內 그들 相互間의 關係 및 對西方關係 등을 깊이 理解하기 爲해선 우리는 먼저 저들의 歷史的인 問題點, 즉 저들의 歷史構造 및 社會構造를 學的으로 分析해 나가는 方法論的 어프로치를 가져야 한다.

2. 東方學 (Ostkunde) 이란 무엇인가?

가. 東方學이란?

西歐諸國중에서도 특히 獨逸은 地理的 條件 때문에 일찍부터 東歐와의 去來가 많았다. 9~10世紀에 東方布教를 통해 지금의 체코, 폴란드 등을 基督教化했고 그 후 中世末期에도 줄곧 東方植民 (Ostsiedlung 또는 Ostkolonisation) 을 통해 東方에 獨逸

語族을 繁殖시키고 独逸文化를 普及시켰다.

이러한 東方과의 諸去來때문에 独逸은 近代에 와서 다른 어느나라 보다는 앞서 東方研究 (Ostforschung)를 体系化했다.

独逸 東方研究의 沿革을 살펴보면 이미 100年 前인 비스마르크 時代부터 「東方学」(Ostkunde)이라는 이름아래 東歐 研究가 始作되었다. 즉 東方学이라는 研究科目名 下에 東方의 많은 言語 (東歐圈의 言語만이 아니고 희랍語, 터키語, 아랍語까지 包含했었음), 歷史, 文化, 地域的 特色의 研究 등이 概括적으로 行해졌다. 그러나 100年前의 이 東方学은 1世紀의 發展을 거듭해 오면서 많이 專門 細分化되어 예전의 東方学 概念도 그 뉴앙스를 달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東歐研究는 「東歐学」(Osteuropakunde)이라는 이름아래 行하게 되었고, 近東 및 터키研究는 「東洋学」(Orientalistik)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며, 비잔틴 및 희랍研究는 「비잔틴学」(Byzantinistik)의 이름을 갖게 되고 이집트研究는 「埃及学」(Ägyptologie)으로 獨立함으로써 東方学 (Ostkunde)이 유럽의 東部全域을 研究하던 專門學科目으로의 뉴앙스는 달라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도 Ostkunde라고 하면 유럽의 東部를 研究하는 學問으로 통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Ostkunde의 概念이 最少限 独逸에서만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2次大戦後 西独에서는 엘베江 以東에 살았던 独逸人들이 避難 또는 追放으로 因해 所謂 失鄉民이 되어 西独에 移住해 와서 그들 本故場의 言語와 郷土文化의 衰殘을 막자는 뜻에서 Ostkunde라는 이름으로 東部領域의

言語, 文化等を 研究했기 때문이다. 즉 戰後의 Ostkunde 는 저
들 失郷民들이 郷土文化 保存을 爲해 發足된 研究科目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獨逸系 失郷民이 갖는 Ostkunde 는 尙大한
東方研究가 아니고, 東北歐 및 中東歐의 一部에 限定된 것이다.

저들의 Ostkunde 가 戰後 30年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發展・變
質했는가는 뒤에 詳述하기로 하고 우선 此項에서는 비스마르크時代
부터의 東方學(Ostkunde)이 어떻게 發展해 왔는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獨逸人이 <東歐>를 研究하게 된것은 近代 以後의 러시아를 意
識한데서부터 이다. 왜냐하면 獨逸人에게 東歐가 "러시아를 包含
한 獨 - 中東歐關係" 와 一致되기 때문이다. 13)

獨逸의 大學에서 東方學이 研究되기 시작한것은 19世紀 末葉부터
이다. 1886年 발틱地域 胎生인 獨逸人 史家 Th. 시만(Theodor
Schiemann)이 「東歐史論」을 펴냈는데 그 다음 해인 1887年에
베를린大學에 「東方語文研究所」(Seminar für Orientalische
Sprachen)가 設置되었다. 이 研究所가 세워진 目的은 1880年
代의 獨逸外政에서 러시아가 큰 政治的 比重을 차지했기 때문에
東歐와 非유럽地域의 語文研究 및 文化史的인 地域社會 研究를 통

註 13) 中世以來 獨逸人의 東方植民은 東北歐 및 中東歐의 슬라브
族과의 交互를 中心으로 볼 때 帝政러시아의 拮勢를 意識
하지 않을 수 없다. Vgl. dafür K. Zernack, Osteuropa
-Eine Einf. in Seine Geschichte, Mchn/1977, S. 14

해 公館要員들의 勤務地에 대한 知識을 習得케 하고 通訳이나 原文번역 등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同 研究所의 語文 研究가 바탕이 되어 1902年에는 同 大學에 「東歐史 研究所」 (Seminar für Osteuropäische Geschichte)가 세워졌다. 그 후 빈 (Wien), 함부르크 (Hamburg), 쾨니크스베르크 (Königsberg) 브레슬라우 (Breslau) 등의 順으로 獨語圈의 各大學에 東歐學科가 생겼는 바 1910年엔 이미 빈大學의 H. 위버스베르거 (Hans Übersberger) 教授가 「東歐史學誌」 (Zeitschrift für Osteuropäische Geschichte)를 펴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東歐研究가 1920年代와 30年代에 이르러서는 「東方和解에로의 政治目的과 結付」되어 더욱 活潑해져서 東歐史의 概念이 定立되는 한편, 現實政治의 政策立案을 爲한 Case Study의 業績도 훌륭히 쌓아 올렸다. 바이마르共和政 때의 G. 슈트레제만 (Gustav Stresemann)의 東方政策이나 第3帝國時 A. 히틀러 (Adolf Hitler)의 生活圈 擴張政策 (Lebensbaumpolitik) 등은 순수한 學的 東歐研究의 結實을 바탕으로 樹立·驅使된 것이다.¹⁴⁾

그러나 戰後 50年代의 東歐研究는 學的으로 계속 그 깊이를 다져서 지금은 語文 中心의 研究傾向을 완전히 脫皮하여 社會·法

註14) Vgl. H. F. Schmid: Grundzüge und Wendepunkte europäischer Ostpolitik, in: Jbbgo, NFI, 1953, H. I, S. 97-116

(유럽의 東方政策의 基本性格과 轉換點)

制史 및 地域史 研究分野에서 水準높은 課業들이 量産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独逸의 東歐研究는 當初부터 「이웃인 東方에로」라는 政治目的과 關聯되었기 때문에 70年代의 東歐研究는 지금 國民의 政治思想教育에도 크게 寄与하고 있다. 왜냐하면 60年代부터 西独의 外交 및 統独政策이 「東方과의 和解」라는 要因을 內包한 것이기 때문에 西独의 「東方学 教育」(Ostkundliche Bildung)은 지금 國民의 政治素養教育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西独의 東方学은 지금 學問的 普遍化에로의 構造的 轉換期에 이르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東歐学을 純粹學問으로 보고 東歐生成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깊은 研究를 하면서도 理論과 實際의 合理化를 試圖하여 바이마르共和國의 東方政策에 크게 寄与한 O. 호에취 (Hoetzsch)¹⁵⁾ 教授를 独逸의 東歐学 論議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다.

"유럽의 東部를 研究하는 것이 東方学이다"라고 지금도 一般적으로 理解된다면 이는 廣義의 뜻에서 쓰는 말이다.

그렇다면 狹義의 뜻에서의 東方学은 무엇이나? 이는 上述한 바와 같이 戰後 東部地域에서 西独으로 移住해 온 独逸의 失鄉民이

註 15) Otto Hoetzsch (1876-1946)는 独逸東歐研究会 (Deutsche Gesellschaft zum Studium Osteuropes)가 1925년부터 發刊하는 「東歐誌」(Zeitschrift für Osteuropa)의 初代編輯發行人. 1906年 以來 東歐史教授였으며 바이마르 共和政 때인 国会議員으로서 독일의 對蘇, 對東歐政策樹立에 크게 寄与했음.

所謂 郷土学의 一環에서 그들 本故場의 言語(특히 方言, 俗語), 風習등을 研究하는 것이 東方学(Ostkunde)이다. 즉, 저들 失郷民들이 엘베江 以東의 옛 獨逸領域(예컨대 지금의 東獨 全境과 체코, 폴란드, 蘇聯등의 一部地域)의 言語와 郷土文化의 消滅을 막는 同時에 오히려 이를 더 勸奨해서 後進들로 하여금 獨逸文化에 一體感을 갖도록 하기 爲한 것이다. 그래서 이 東方学이 初期엔 一名 「郷愁 東方学」(Heimweh-Ostkunde)이라고도 불리웠으나 나중에는 漸次 政治教育性도 띄게 되었다. 예컨대 1951年 現在만 해도 이 東方学은 純全히 避難民과 追放民 相互間의 郷土文化 保護라고 理解되었으나 1952年부터는 原住民과 失郷民 間의 理解 增進을 目的으로써 社会教育的인 機能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1956年부터는 共產主義와의 精神的 對立을 피하는 素養教育을 強化함으로써 反블쉐비키化한 저들의 精神態度는 失郷의 아픔을 漸次 이기게 되었다. 그리고 1962年부터는 블쉐비즘이 民主體制와는 相反되는 「體制모델」임이 널리 알려진 것을 바탕으로 從來의 東方学的 教育이 「東歐学的 教育」(Osteuropakundliche Bildung)에로 轉換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64年 南獨의 바 이에른州 政府가 낸 東方学의 指針을 보면 "東方学은 學校教科에서 東部에서의 體驗을 授業하고, 失郷民의 諸問題를 取扱하며, 東歐의 地政学的 問題와 統治體制論을 講論하고, 그리고 19~20世紀에

東歐圈에 作用한 政治勢力등을 學習하는 科目이다¹⁶⁾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東方學 教育傾向은 東西獨의 基本條約 및 獨波·獨蘇條約 등이 締結되고 난 후엔 더욱 <리버럴>해졌다. 왜냐하면 1972年부터 西獨政府가 東方學 教育에 있어 東方學의 概念을 一切 拳論하지 않은 채, 다만 東歐教育을 깊이 있게 遂行해 갈것을 決議했기 때문이다. 결국 西獨의 各州政府는 中央政府로부터 従来の 東方學的 教育을 州政府의 文教指針에로 一任받음으로써 이들은 이 때부터 東歐各地에 關한 專門知識을 그들 各州의 特殊事情과 關聯지워 教育하기 시작했다. 例컨대 바이에른州(Bayern)는 東南歐 즉 발칸地域을 主로 研究도 하고 教育하며, 헤센州(Hessen)는 中東歐 즉 東獨, 폴란드, 체코地域에 中心을 두며, 北獨諸州는 主로 東北歐 및 발틱沿岸地域을 集中研究하며 素養教育하고 있다. 17) 결국 西獨의 各州가 東부와 接境하고 있는 隣接地域을 集中研究하며 素養教育도 施行하고 있는 셈이다.

註 16) W. Protzner: "Ostkunde"-Geschichte eines Politisch umstrittenen Unterrichtsgegenstands (東方學 - 必須的 政治教養論), In: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1974, S. 6.

17) München의 東南歐研究所(Südosteuropa-Institut), Marburg의 Herderinstitut(中東歐研究所), 그리고 Lüneburg의 政治訓練院(Deutsche Studien이라는 季刊誌를 냄) 등이 東歐의 隣接地域 즉 一定地域을 研究하는 代表的인 Institution이다.

나. 東歐學 - 共產主義研究?

東方學 (Ostkunde) 이라고 하면 " 유럽의 東部를 研究하는 學問 " 이라는 것이 지금도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漠然한 概念이다. 그러나 大戰直後 西獨의 東方學은 한동안 所謂 「 鄉愁 東方學 」 (Heimweh-Ostkunde) 이었고, 이것이 60年代에 들어와선 漸次 「 東歐學 」 (Osteuropakunde) 으로 發展·변모하여, 이 東歐學的 教育 (Osteuropakundliche Bildung) 이 70年代에는 東歐研究의 普遍化에로 變하였다. 결국 < 東歐와의 和解 > 라는 政治目的 때문에 複雜한 < 東方學 概念定立 > 도 試圖하지 않을 뿐더러 失鄉民의 鄉土文化 保存과 反共을 爲해 行하던 東方學의 範疇를 脫皮한 것이다. 즉 < 平和的 獨逸의 建設 > 을 爲해 隣接 東部諸國을 좀더 깊이 있게 理解해야 하기 때문에 東歐全般을 地域別로 깊이 研究하고 教育하는 東方學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隣接東部の 共產國家 研究는 결국 共產主義 研究가 아니냐는 結論이 된다. 事實上 東方研究는 유럽東部 共產社會의 過去와 現在 그리고 未來를 研究하는 學問이다. 그러나 共產主義를 完壁하게 理解하기 爲해선 「 東方研究 」 (Ostforschung) 라는 이름아래 東歐共產主義만을 研究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東方研究의 綜合的 概念은 東歐共產體制는 물론이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諸國의 社會主義 狀況을 包含한 世界共產主義 運動의 諸問題를 研究對象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 東方研究 」라고 하는 말이 흔히 「 東歐研究 」

(Osteuropaforschung), 「 소비에트학 」(Sowjetologie), 「東方学」(Ostwissenschaft) 또는 「東欧学」(Osteuropakunde) 등과 같은 意味로 쓰이고 있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서 同義語로 混用되어서는 안되는 낱말들이다. 왜냐하면 「東方研究」는 「東欧研究」, 「共產主義研究」, 「東方学」등을 모두 包括하는 「綜合概念」(Dachbegriff)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方研究가 東欧학과 쉽사리 混用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일 것이다.

예컨대 東欧学 즉 東欧研究의 이름아래 東欧諸국의 政治行爲나 政治的 影響力을 糾明·試圖하다 보면 같은 社會主義 國家인 쿠바나 中共을 研究 안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나아가선 諸西歐共產黨的 黨勢와 戰略, 트로츠키派나 毛沢東派의 世界的 反響, 西歐諸工業國家의 「新左派」(Neue Linke)이나 東欧 思想家들의 觀點 등을 配慮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周邊의 諸与件을 檢討하지 않고서는 東欧共產主義의 正位置가 確定되지 않기 때문에 東欧研究 自体가 地理的으로, 概念的으로 아니 歷史的으로 <東欧>에 限定될 수 없게 되어 있다. 東欧의 法律이나 그에 따른 諸機構 및 制度를 研究하려 할 때 2次大戰後와 兩次大戰間(1918 ~ 1938)의 樣相은 確然히 다르다. 大戰後 蘇聯은 東欧諸국이, 各各 社會主義化하기를 바랐지만 中東欧 諸국은 蘇聯의 要求에 바로 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들 체코와 폴랜드는 저 때에 共產主義的인 法秩序를 한번도 가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東欧研究를 東欧 自体에 限定시키지 못하고 中国이나 라틴·

아메리카等地와 連結지어 研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에서 所謂 比較研究(Comparative Studies)가 盛行해 진 것이다.

다. 比較研究 - 東歐研究 方法論?

東歐研究가 地理的으로, 歷史的으로, 概念的으로 그 研究範圍를 東歐自体에 限定시킬 수 없다는 데서 그 研究方法의 어려움이 隨伴된다. 그러나 東歐共產主義의 正位置를 研究하기 爲해 東歐와 他地域의 社會主義勢力, 또는 東歐內 社會主義諸國, 또는 東歐와 西方世界 諸新生國의 發展類型등을 서로 比較하는 所謂 Comparative Studies가 生겼다. 결국 東歐研究에 있어 方法論的인 定說이 없으므로 지금 比較研究 그 自体가 하나의 方法論이 되어 있다.

例컨대 分斷國家인 韓國이나 獨逸이 南北韓과 東西獨을 比較해 보는 것은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實現하려는 것이 窮極의 目的이지만 다른 한편 이같은 比較는 異質的인 統治機構, 社會構造 및 經濟構造를 糾明해 내는 어프로치로서 東方研究 카테고리에 屬하는 共產主義 比較研究도 된다.

그렇다면 共產主義 研究에 있어 왜 比較方法을 쓰느냐는 물음이 自明해 지는데 그 理由는 複雜하지 않다. 同一體制(共產體制)下의 社會現象에서 類似性과 異質性을 確定해 내기 爲한데서 比較研究가 行해진다. 그러나 이 糾明·試圖에서 類似性이 索出되었다면 이 類似性은 어디까지나 外觀에 나타난 偶然의 一致여서는 안되고 類似나 相違를 露呈시킨 內的構造를 分析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比較研究를 하는 理由는 共產主義를 理解하는데 있어 個個 民

族의 立場을 超越하자는 것이다. 결국 共產主義를 大胆하게 理解하는 全体解釈과 歴史的, 個別的 研究間의 橋梁役을 하는 認識目標에 奉仕하자는 것이 比較研究 (Komparatistik)의 目的이다.

그럼 共產圈 比較研究의 實際가 어떠한 것인가를 美国과 西獨의 研究實態에서 찾아보자.

美国이 이 比較研究를 통해서 다루는 共產主義의 問題點은 世界 共產主義運動, 社會主義圈 個個 共產黨의 움직임, 共產主義的 政治形態, 共產勢力이 擴大·普及되는 過程등 主로 네가지다. 그 중에서 政治形態 問題는 「比較政府論」(Comparative Government)分野에서 專担研究하고, 共產勢力的 擴大過程 研究는 地域的 限界없이 古巴나 中國을 總綱羅하여 世界政策的 次元에서 行한다. 그리고 또 美国은 이러한 共產圈 研究를 外政的 側面에서 國際政治 (International Relations)의 範疇에 넣어 다루는 것이 特色이다. 例컨대 스탠포드大學 (Stanford)에서 每年 펴내는 國際共產主義年鑑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같은 著作物은 豊富한 財力과 人力이 없이는 遂行할 수 없는 尠大한 研究作業이다. 18)

그러나 獨逸 (西獨)에서는 共產體制 研究를 美国처럼 世界政策的 次元에서 行하지 않고 「體制的 比較」(System vergleich)를 「東方의 法律과 機構 (Ostrecht)라는 專門的 研究分野에 限定시

註 18) Seit wann erschien diese Publicatione? Jahrgang!

켜 다루되 그나마도 地域的 限界를 그어놓고 研究한다. 例컨대 蘇聯과 獨逸의 對東歐政策을 다룬다든지, 혹은 東歐圈內 不列國家들의 發展類型을 確定·試圖한다든지 해서 同質속의 異質性을 明確하게 索出해 내는 깊이 있는 研究를 遂行한다. 財力과 人力面에서 美國의 研究方式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위와같은 研究方法으로 小規模의 比較研究를 行하는 것이지만 다른한편 이같은 地域限定的 比較研究는 美國式的 包括的 比較研究方法에서 보다 흔히 水準 높은 研究成果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東方研究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方法論的 定說이 없고 또 定說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위와같은 比較研究가 그 나름으로 빛을 보고 있다. 결국 東方研究는 科目別 研究準則의 經驗的인 方法을 總動員해서 그 나름으로 正確한 研究를 해 나아가야 한다. 例컨대 「엘리트研究」(Eliteforschung)만 하더라도 問題點이 많다. 東歐共產圈 즉 閉鎖社會의 國民輿論이나 그 輿論의 動搖등을 正確히 把握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를 豫測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共產諸國의 엘리트研究를 行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東歐學의 테두리 안에서 行한 엘리트研究가 成功的인 것은 드물었다. 왜냐하면 엘리트研究에서 推出해 낸 結果와 實際 國民輿論의 方向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蘇聯의 境遇 지금 立場엔 國民 大多數가 沈黙하고 있지만 이들이 멀지않아 重要役割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보면 時間問題인 것이다. 産業社會化 過程에서 黨 獨裁나 黨官僚의 橫暴는 그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엘리트研究도 蘇聯의 實際 輿論動向과는 距離가 먼 것이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엘리트研究에 더 的確을 期해야 한다.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社會學的인 刊行物은 信憑性이 적을 뿐더러 入手하기도 容易하지 않다. 그리고 反體制側의 刊行物도 事實上 國民輿論의 全貌를 밝히지는 못하는 實情이어서 大衆輿論의 趨移를 正確하게 把握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尠大한 東方研究의 어려움이 共產社會의 閉鎖性으로 말미암아 加重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研究 같은 것도 正確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近來의 東歐研究에는 우리가 또 한가지 留意할 것이 있다. 蘇聯社會에 소비에트以前 즉 非소비에트의인 러시아의 精神史潮가 復活되는 듯한 風潮가 일고 있는 點이다. 19世紀末 20世紀初 이름없이 죽어간 러시아의 文人, 哲人, 學者들의 이름과 作品들이 數10年의 오랜 沈黙을 깨고 最近에 拳論되는 것을 보면 蘇聯社會의 底辺에는 분명히 非소비에트의 러시아精神이 아직도 깔려있는 것이다.

結論컨대 東方研究는 지금의 蘇聯政治를 了解하기 爲한 것이지만 共產主義 그 自体만을 理解·試圖할 것이 아니라 帝政러시아人的 思惟世界, 그들의 「유라시아」(Eurasia) 支配慾등을 모두 幅넓게 研究하면 지금의 中·蘇紛糾나 蘇聯의 霸權主義 理解에 큰 도움이 될 것이 分明하다.

라. 韓國人의 東歐研究

東方學 (Ostkunde) 또는 東歐學 (Osteuropakunde)이 엄연히 一科의 學問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科目의 研究를 疏忽한 것은 위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地理的 隔離로 因한 東歐文化圈과의 非接觸때문이었다. 그러나 大戰後 世界의 곳곳에서 東歐에 關心을 갖고 東歐研究를 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의 理由가 있다. 첫째는 歷史的인 理由인데, 예전엔 後進的이었던 東歐가 近代·現代에 와서는 1, 2次大戰의 勃發地가 된 程度로 政治的으로 浮刻되었다는 點이며, 둘째는 2次大戰後 東歐圈의 大部分이 蘇聯 主導下의 共產圈에 編入되었다는 點이다. 그리고 셋째는 近來 저들 共產小國들이 自由化 乃至 獨自路線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고, 넷째는 東·西歐關係가 <하나의 유럽>을 爲한 새로운 局面을 보인다는 點(例컨대 헬싱키의 全유럽 安保會議)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東歐諸國의 이러한 움직임을 旧植民母國과의 새로운 關係를 摸索하려는 亞·阿의 諸開途國 狀況과 比較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點이 東歐가 世界人의 關心을 산 重要點이다. 그러나 우리들 韓國人에게 이 다섯가지 以外에도 東歐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重要的인 政治的인 理由가 하나 있다. 즉 우리의 一部인 北韓이 共產圈 相互交流의 一環에서 東歐諸國과 密着되어 있기 때문에, 非同盟圈 外交強化라는 이름아래, 아니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世界의 모든 나라와 交流增進을 꾀한다는 <6.23 宣言>의 原則에 立脚해서도 우리는 東歐에 接近해야 한다.

결국 東歐接觸이라는 政治目標을 爲해서 우리는 지금 火急히 <東歐>를 알아야 하는 切迫한 狀況에 處한 것이다.

東·西의 政治現實을 理解하고 漸次的 東歐接觸에 차질이 없게 하기 爲해서는 東歐學의 基礎的 研究를 통해서 一步 一步 東歐에 발을 옮겨 놓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東歐研究는 一科의 純粹學問으로서의 東歐學만이 아니고 現實政治 (Realpolitik)의 幅을 넓히기 爲한 Basic Studies 로써의 東方學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理論과 實際를 爲한 우리의 東歐學的 基礎研究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東歐學 基礎研究의 方法論을 擘論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東歐研究의 어려움을 論議해야 한다. 東歐圈이라고 하면 슬라브世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슬라브世界라고 하면 社會主義圈이라고 해도 옳은 말인데 지금 우리의 立場에서는 國土分斷으로 因해 社會主義圈에의 接近이나 그 研究가 쉽지 않다. 물론 當局이 認定하는 研究機關이나 特定研究者에게 諸資料의 入手·參照가 許容되어 있지만, 知識大衆에게 社會主義에 對한 書冊이나 諸資料 購讀이 全面 禁止되어 있다. 물론 우리의 南北分斷이 超克될 때까지 政治思想教育은 絶對的인 것이니 만큼 所謂 不穩書籍의 檢閱制는 存続해야 하지만 좀 더 科學的인 規制方法이 研究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斯界의 研究者나 學者들에게 社會主義에 關한 書冊의 自由로운 取扱이 制限되어서는 東方研究는 枯死하고 偏狹性없는 思想教育마저도 期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不穩書籍에 對한 科學的인 檢閱의 円滑을 期해 一般識者層

의 讀書幅을 넓혀주지 않고선 東歐研究에 關係되는 專門書籍의 出刊 普及은 卓上空論에 不過해 진다. 社會主義는 分明히 19世紀에 抬頭된 하나의 思想이며 帝國主義(Imperialism)나 民族主義 또는 國民主義(Nationalism)과 함께 現 20世紀에 까지도 産業社會의 發展에 큰 問題를 提起해 준 諸思想思潮중 그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한 思想이다. 19世紀 西歐工業化의 副作用이 어떠한 것이었기에 社會主義가 抬頭되었으며 저 理念의 理論과 實際가 어떻게 다르기에 오늘의 共產社會는 鎮痛을 겪고 있는가를 識者大衆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政治思想教育의 強化인 同時에 東歐研究의 健全한 開放策인 것이다.

둘째는 東歐研究의 方法論的 方向設定 問題다. 東歐研究에는 方法論的 定說이 없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論及했지만 事實上 東歐는 地理的으로 歷史的으로 너무 老大하고 多様하기 때문에 研究對象, 研究準則의 設定 自体가 어렵다. 東歐共產圈은 蘇聯을 包含하면 모두 9個國이 된다. 이들 9個國이 東獨,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를 除外하곤, 모두 슬라브族의 나라이긴 하지만 제각기 言語가 다르고 歷史世界는 너무나도 離合이 無雙했다. 그리고 또 蘇聯만 하더라도 저 聯邦內에는 15個 共和國이 있으며 民族別個 分布는 半數를 겨우 넘는 53.4%가 大러시아系일뿐 餘他는 모두 非러시아系이다. 19)

註 19) G. Simon: Nationalitätenpolitik (民族政策), In: Osteuropa, Heft 8/9/1976, S. 672.

東歐圈의 生成要因이 위와같이 複雜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基礎研究의 準則을 어디에 두느냐도 漠然하다. 例컨대 東歐諸國을 國家單位로 個別研究할 수도 있고, 또는 東歐를 同一 言語圈이나 文化圈으로 区分하여 研究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東歐를 하나의 社會主義圈으로 보고 그들 個個를 서로 比較研究할 수도 있다. 이 세가지 方法중에서 東歐全般에 關한 基礎的 研究를 해야 할 우리에게 合當한 것이라면 우선 一次的으로 東歐諸國을 國家單位로 個別研究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國家單位的 個別的 研究에 並行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比較研究的 Case Study이다. 例컨대 社會主義圈의 統治制度를 研究하고, 共產社會의 社會構造도 檢討해야 한다. 즉 社會構造的 特色을 確定하기 爲해서는 社會主義國家對 社會主義國家의 比較와 아울러 社會主義 諸國對 西方世界의 諸開途國 比較研究도 必要하다. 그리고 共產圈에 일어나는 主要 發生事를 포착·정리해서 國民啓蒙에도 健全하게 反映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東歐研究의 基礎的 研究를 計劃性있게 推進해 나가기 爲해서는 먼저 東歐諸國의 語文 習得이 必要하며, 東西에서 出刊되는 東歐圈에 關한 基本的 主要書冊도 우리 말로 엮어 내야 한다. 그리고 對東歐政策 樹立에 必要한 所謂 「政策資料」를 爲해서는 專門家的 人力을 總動員하여 時急한 問題의 Case Study도 並行해야 한다.

Ⅱ. 東歐共產主義의 主流

1. 共產主義의 脈絡

共產主義라는 말은 1830年 무렵 프랑스에서 나왔고 1840年以後에 비로서 一般的으로 쓰여지기 始作했다.

그러나 오늘날 共產主義 및 共產主義者를 규정하는데는 두 側面에서 다루어야 한다. 즉 넓은 意味에서는 生産手段의 社會化 (Sozialisierung)를 支持하는 소위 마르크스 理想社會論이 구현되기를 願하는 者가 共產主義者이며, 좁은 意味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支持하고 蘇聯共產黨의 進路를 理想視하는 者가 共產主義者인 것이다.

共產主義의 發展過程에서 위와 같이 廣義와 狹義의 共產主義 및 共產主義者를 分別할 수 있도록까지 다양해졌지만, 따지고 보면 共產主義의 根源은 하나이다. 1920年代 中葉에서부터 50年代 中葉까지의 國際共產主義는 統一性을 띠고 있었다. 그 理由를 든다면 4가지인데 첫째는 政治心理的인 理由이다. 즉 마르크스의 理想社會論을 實現하기 爲해 蘇聯이 地球上에서 처음으로 社會主義國家를 建設했다는데서 蘇聯 共產主義는 示範的이었다. 둘째는 各國의 共產黨 要員이 모두 蘇聯을 示範 삼아 同一한 政治訓練을 받았었고, 셋째는 各國 共產黨의 組織도 그 特色이 모두 同一했었다. 그리고 넷째는 共產主義를 擴勢하려는 各國의 共產黨이 모두 蘇聯의 財政支援을 받았기 때문에 對蘇

關係에서 종속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¹⁾

위와같이 1950年代의 中半까지만 해도 統一的이었던 共產主義가 지금은 三分五裂되었지만 유럽 共產主義 (Eurokommunismus) 라고 하면 사실은 東西歐의 共產主義를 總稱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共產主義라는 語義 自体가 多樣하게 解釈되는데에 따라 유럽 共產主義를 蘇聯 및 東歐 共產主義 보다 좀 달리 独自の 理念路線을 제시한 西歐 共產主義를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면 유럽 共產主義란 무엇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蘇聯 共產黨처럼 一黨獨裁를 내세우지 않고 共產黨 機構를 民主中央執權主義 機關으로 보고 이를 西歐社會의 特色인 民主制度에 依拠 계속 民主化하여 마침내 이를 中心으로 마르크스의 理想社會論을 구현 하겠다는 것이 유럽 共產主義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 共產黨은 生産手段의 社會化 (Sozialisierung) 라는 마르크스의 社會觀을 구체화할 것을 鬪爭 目標로 하되 이의 實踐을 市民革命과 工業化를 體驗한 바 있는 西歐社會의 与件에 맞추어 議會民主主義的 鬪爭方法으로 敢行하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하되 高度의 産業化를 이룩한 바 있는 西歐的 傳統의 바탕위에서 独自の인 方法으로 遂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 建設의 西歐的 獨自路線을 提示하면서 지금 蘇聯 및 東歐에서 행해지는 社會主義가 「참된

註1) W. Leonhard, Der Eurokommunismus, S.39.

社会主義」(Der wahre sozialismus)가 아님을 批判한다. 즉
참된 社会主義 理論을 展開·試圖하는 유럽共産主義者들은 마르크스
의 社会觀을 再檢討하고 있고, 나아가선 마르크스 以前으로 소급해
올라가 유럽共産主義 出現의 社会的 및 精神的 根源을 규명·시도
하고 있다.

유럽共産主義의 社会的 根源에는 農業的인 要因이 있고, 또 精神
的 根源에는 改革的인 要因이 있다고 그들을 말한다. 勿論 同
論拋는 直接 유럽共産主義者가 규명·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同論拋를 圓용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에컨대 유럽共産主義 속에
農業的인 要因이 없었다면 Maoism이나 Fidelism이 유럽에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改革的인 特色이 없었다면 유럽
共産主義가 民族的인 發展傾向으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²⁾

西獨에서 共産主義 研究의 권위로 認定받는 G. 바르취(G. Bartsch)
씨는 早期共産主義 出現의 西歐의 背景으로서 近世初期의 農民叛亂
과 宗教紛爭 그리고 英·仏의 市民革命 등에서 過激派의 進路를
探索했고 또 現代 유럽共産主義가 民族的 아니 民主的인 性格을
떠는 实例를 Tito, Dzilas, Imre Nagy, Dubcek Garavdy,
Havemann, Fischer, Kolakowski 등의 改革共産主義的 提唱에서
찾고 있다.³⁾

註2) G. Bartsch, *Die Hauptströmungen des europ. Kommunismus*,
Hannover/1971, S.7.

3) G. Bartsch, a.a.O., S.43.

오늘날 共產主義 研究의 世界的인 學者들은 共產主義의 主流를 解明함에 있어,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하는 마르크스主義가 Bernstein, Kautsky 의 修正路線과 Rosa Luxemburg 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 路線, 그리고 Bukharin 의 추종파, 유고의 獨自路線, 레닌主義가 낳은 스탈린主義가 1956 年의 格下煽風을 겪고 난 후 다시 대두된 네오 스탈린主義 그리고 지금의 西歐共產主義(유럽 共產主義)에 理念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Trozskism 그리고 또 中國의 Maoism, 쿠바의 Fidelism 등으로 細分하지만(例컨대 Wolfgang Leonhard 의 見解), 필자는 이를 Bolshevism, Titoism, Trozskism 으로 大別하여 오늘날의 東西歐 共產主義의 흐름을 概觀하려 한다. 왜냐하면 위의 3大 이데올로기가 지금 사실상 유럽의 共產主義에 커다란 理念的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볼셰비즘은 1917 年의 革命後 共產主義의 國際潮流를 이끌어 온 러시아의인 共產主義 理念이다. 지금 유럽 共產主義는 러시아의 組織形態(볼셰비즘)를 離脫하기 시작했지만 1920-30 年代는 유럽 共產主義의 볼셰비즘化가 크게 拳論되 있었다. 볼셰비즘은 레닌에서 시작하여 스탈린을 거쳐 말렌코프에 이르렀고 또 후루시초프에 이르는 동안 소위 러시아 共產主義의 全体像을 그려내고 있다. 産業革命을 體驗했고 民主主義의 傳統을 가진 西歐社會의 社會主義化를 試圖하는 西歐 共產主義는 저 볼셰비키의 모델이 오늘의 西歐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 하여 拒否하지만 西歐 以外의 余他地域에서는 거의 볼셰비키의 모델이 지금도 社會主義 社會建設의 示範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셰비즘은 共產主義 思潮를 그려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主流인 것이다.

또 레닌의 後繼權 爭鬪를 에워싸고 스탈린에 의해 敗北당하므로서 Trozskism은 오늘날 共產圈에서 野的인 勢力이 되고 말았지만 勞動者의 評議會制度(Rätesystem)를 통해서 참된 共產主義를 建設하겠다는 Trozskism은 蘇聯 共產黨의 官僚體制에 反旗를 드는 無視할 수 없는 勢力이다. 이 Trozskism은 유고의 勞動者 自治行政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지금 西歐 共產主義에도 勞動者 經營參與의 民主化를 에워싸고 相當한 理念的 影響을 미치고 있다.

Titoism은 1948年 유고가 코민포름을 脫退하고 脫蘇化 傾向에 들어서면서부터 出現한 것인데 소위 유고 社會主義의 獨自路線이라는 Titoism의 特徵은 「勞動者 自治行政」에서 잘 들어난다. 유고 以外の 다른 共產國家에서 Titoism을 추종하는 나라는 없으나 勞動者의 經營參與面에서 部分的으로나마 Titoism의 長點을 받아 들이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다.

筆者가 보는 바로는 위의 3大 理念이 지금 유럽 共產主義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勿論 蘇聯은 西歐 共產黨의 脫蘇化 傾向을 막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이름아래 統一된 世界 共產主義 運動의 展開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西歐的 與件에 適応하여 民主的인 方法으로 社會主義를 建設하겠다는 西歐 共產黨이 결코 蘇聯의 무마책에 쉽사리 屈하지 않을 것 같다. 近來 東歐 共產圈의

動靜을 보면 불가리아와 체코는 蘇聯의 立場에 서서 유럽共產主義를 批判하고 있다. 또 폴란드와 東獨은 계속 沈黙을 지키고 있고 유고와 루마니아는 西歐共產主義의 理念과 独自の인 社會主義 建設方法을 積極 支持하고 있는 形便이다. 헝가리는 유럽共產主義가 내건 理念路線을 支持하면서도 西歐共產黨의 鬪爭方法이 統一된 世界共產主義 運動을 沮止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위 中立的인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筆者는 본 論文의 2章에서 東西歐共產主義의 主流로써 불셰비즘, 티토이즘, 트루츠키즘을 풀이했고, 3章에서는 東歐社會主義의 特異한 國策을 說明함에 있어 유고의 獨自路線, 루마니아의 民族共產主義 및 체코의 中斷된 改革共產主義를 例証했다. 그리고 유고, 루마니아 및 헝가리가 지금의 유럽共產主義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아울러 說明 試圖해 보았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유럽共產主義가 불원한 장래에 共產主義의 西歐型 모델을 유형화할 것이 分明한데 이가 앞으로 모스크바와 어떠한 關係에 놓일 것이며 또 西歐 自体内에서 한편으로는 保守勢力,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民主主義 勢力과 對決하여 어떻게 유럽의 政治관도를 變形시켜나갈 것인가가 자못 큰 관심이다.

東歐共產主義와 西歐共產主義(一名 유럽共產主義)間에 均裂이 생긴것은 다음 4가지 要因이 作用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는 코메콘(COMECON)이 形成되어 蘇聯 및 東歐圈단의 經驗 및

地域的 유대가 鞏固化했다는 点이고, 둘째는 후루시초프가 20次 党大会를 期해 '스탈린 格下運動'을 宣言함으로써 世界共產主義 運動의 分裂을 自招했다는 点이며, 셋째는 1956年の 헝가리 革命 當時 무참한 軍事的 抑压을 加했고 또 同革命 指導者들을 処刑했 다는 大國主義의 무자비성이며, 넷째는 유럽經濟共同体(EEC)가 發展 하여 西歐諸國間의 歴史的인 반목이 점차 解消되어 가는 조짐을 보였다는 事實 등이다.

그렇다면 위의 4가지 要因이 統一的인 世界共產主義 運動을 분 열어로 作用하기까지 共產主義의 主流가 2次大戰을 前後해서 어떻게 變貌해 갔는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 研究의 世界的인 學者인 볼프강 레온하르트는 共產主義 主流를 解明함에 있어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하는 마르크스主義가 베른슈타인(Bernstein), 카우츠키(Kautsky)의 修正路線과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 路線, 그리고 부하린(Bukharin)의 추종파, 유고의 獨自路線, 레닌主義가 낳은 스탈린 主義가 1956年の 格下騷動을 當하고 難後 다시 대두된 네 오 스탈린主義 그리고 지금의 西歐共產主義(유럽 共產主義)에 理念 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트로츠키즘(Trotskyism) 그리고 또 中 國의 Maoism 등을 낳았다고 大別하지만⁴⁾ 筆者는 本論稿에서 東西 歐의 共產主義에 큰 影響을 미친 볼셰비즘(Bolshevism), 티토이즘

註 4) Siehe, W. Leonhard, Die Dreispaltung d. Marxismus, 1970.

(Titoism), 트로츠키즘 (Trotskyism)의 三大山脈을 추적하여 지금의 東歐共產主義를 解明해 보려고 한다.

2. 불셰비즘

불셰비키主義라고 하면 오늘의 蘇聯을 共產主義의 모델로 보거나 國際共產主義 運動에 있어서 蘇聯共產黨의 指導的 役割을 認定하는 者를 말한다.

본시 불셰비즘은 1917年 10月 革命以後 共產主義의 國際潮流를 이끈 特異한 러시아的 狀況에서 出現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蘇聯邦內에 소위 蘇聯共產主義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蘇聯的인 路線을 特徵지우기 위해서, 즉 모스크바가 政治的인 또는 最少한 精神的인 中心部라는 것을 認定하는 뜻에서 지금도 불셰비즘을 拳論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共產主義를 論議함에 있어 불셰비즘의 概念을 묻는 것은 當然하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共產主義가 러시아的 組織形態를 離脱하기 始作했지만 1920年代는 유럽 共產主義의 불셰비키化가 當당히 拳論되었고 또 여지없이 同機構下에 組織化되었기 때문이다. 불셰비즘의 基底를 보면 그 概念속에는 5個 要因이 內包되어 있다. 즉 레닌에서 시작하여 스탈린을 거쳐 말렌코프에 이르렀고 또 이에서 다시 후루시초프를 거쳐 브레즈네프에 이르는 바, 이것이 또한 러시아 共產主義의 全体像인 同時에 그 指導的 人物들의 全모를 설명해 준다.

이들 다섯의 이름이 쇠사슬처럼 얽혀 있지만 그들간에는 勿論

見解差가 있어 불셰비즘을 屈曲있게 出現시킨 것도 사실이다.

10 月の 没落, 코민테른의 創立 그리고 蘇聯邦共和国의 成立等을 레닌 혼자 功勞로만 돌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가 蘇聯邦 建立者임에는 틀림없다. 이 네가지의 基礎위에서 스탈린은 當時 總書記長으로서 그의 莫強한 權力을 構築할 수 있었다.

레닌의 墓前에서 宣稱한대로 그가 「共產主義 인터내셔널」을 解体시키고서 蘇聯이라는 國家의 기틀을 짚고 또 그 國家를 에워싼 방대한 衛星國을 形成함으로써 그가 그의 權力과 影響力 行使의 頂點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事實은 蘇聯史의 發展過程에서 볼 때 그 後繼者中의 어느 한 사람도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스탈린의 첫 後繼者인 「말렌코프」는 韓戰을 끝마쳤고, 重工業 優先主義를 施行했으며 民衆의 消費欲을 抑制·무마하는데 重点을 두었으나 그가 헝가리와 체코의 諸改革 勢力을 支援하고 난 後엔 結局 후루시초프에 의해서 실각당하고 말았다. 그 당시 헝가리의 Imre Nagy 는 한동안 말렌코프와 信義가 두터웠으며 또 체코에서는 Barak 이 말렌코프를 支持했다고 한다.⁵⁾

그때에 말렌코프를 뒤이은 후루시초프는 한동안 딜렘마에 빠졌었다. 그 理由는 불셰비키黨에 대한 蘇聯國民의 信任을 얻고 또 國際關係에 있어서 蘇聯의 체모를 再定立하기 위하여 한편으론

註 5) Vgl. G. Bartsch, a.a.O., S.42.

스탈린의 遺産을 繼承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内外政策을 참신하게 改革 發展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때에 對內的으로는 共產主義의 理想을 實現시켜 보려 했고 또 同時에 現代産業社會的 發展策을 힘차게 推進하려 했었다. 그리하여 그의 指導下에 草案된 新 綱領은 '61年 10月 22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採択되었으나 이는 人民公社와 産業社會的 原理사이의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었다. 勿論 이 矛盾은 事實上 이미 오래전에 '國家와 革命' 이라는 레닌의 冊字에 의해서 드러나 있던 것이지만 후루시초프는 이를 是認하면서도 1980年까지 尙위 完全한 共產主義를 實現하겠다고 매담하게 約束했었다.⁶⁾

결국 推測컨대 이것은 現實政治에 失望한 蘇聯國民이 그들의 期待를 2000年代 以後에로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루시초프는 完全한 共產主義의 實現을 미리 못박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스탈린을 格下시키는데 勇氣를 가졌고 스탈린이 남긴 制度의 外形을 變革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國家安保 施策을 逆轉시키고 大部分의 強制勞動 收容所를 解体하여 法治國家의 바탕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그 改革試圖의 適中한 例이다.

그러나 이것은 多年間에 걸친 후루시초프의 관용추세를 제압하려 했던 敵對클럽에 의해 沮止되고 말았다.

후루시초프의 提示策을 볼때 그는 헝가리에 대해선 強硬했지만

註 6) Osteuropa H. 3/1956, S. 205 f.

폴란드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폈다. 그리고 1955年 5月엔 유고슬라비아의 独自路線을 認定했고 또 1956年 2月엔 蘇聯共産黨 20次 黨大會에서 平和共存과 平和的인 政權移 議論을 내세웠으며, 1958年末 中共의 人民公社에 制裁를 加한 것등은 모두가 유럽共産主義의 흐름에 있어 큰 意義를 갖는 發生事들이었다.

結局 스탈린의 統治體制를 拒否함과 동시에 東·西歐 共産主義를 모두 그 교조적인 凍結狀態에서 풀어 놓으려 했던 것이 후루시초프의 政策이다. Togliatti는 蘇聯의 20次 黨大會에서 돌아온 後 러시아的 共産主義 類型은 더 이상 確固히 維持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⁷⁾

루마니아 共産主義者들은 COMECON의 도움을 얻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엘베」까지 統一된 共産主義 社會를 만들겠다는 후루시초프의 計劃을 不信했었다. 그後 「中蘇紛糾」로 말미암아 中蘇의 견실했던 유대가 끊어지자 몇개의 유럽共産黨들은 同紛糾의 그늘에서 그들의 活動領域을 두드러지게 擴大해 나갔다. 즉 알바니아 동블럭圈을 離脱했는데 이 분열은 사실상 이미 모스크바와 벨그라드와의 紛糾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후루시초프는 共産體制下에서 特히 蘇聯邦內에 繼續 전파된 약간의 不法的인 資本主義的 傾向을 뿌리 뽑는데는 좀 등한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새로운 共産主義의 主流를 주름잡으려는 鬭爭

註 7) G. Bartsch, a.a.O., S.43.

에서 犠牲되고 만 셈이다. 그의 過失이라면 '蘇聯의 主導權과 蘇聯共産黨의 指導的 役割'이라는 所謂 스탈린의 遺産을 이어 가는 데 있어서 初期에는 成功을 거두었지만 나중에는 失敗했다는 데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의 잘못이란 1948년에 일어났던 運動 즉 우리가 東歐革命이라고 부르는 그 勢力 때문이 아니고 그 自身の 個人的 弱點에 있었던 것이다.

1964年 10月 그 권좌를 이어받은 브레즈네프는 그의 先任者인 후루시초프보다는 좀 다른 狀況에 있었다. 그는 그 自身の 權威를 통용시키기 위해서 스탈린 뿐만 아니라 후루시초프의 權威까지도 打倒할 必要가 없던 사람이다. 브레즈네프는 후루시초프에 의해 斷絶된 '蘇聯 共産主義'라는 歷史의 持續性을 再現하는 것으로서 足했다. 그의 先任者가 가졌던 '個人崇拜時代'에 對한 批判은 다만 스탈린의 過誤와 不信을 指摘한 것에 不過하다. 1971年 5月 '게오르기 蘇聯共和國' 創立 50周를 맞아 브레즈네프가 행한 演說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는 스탈린의 役割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 集團 指導體制의 斷行에도 역시 言及했었다.⁸⁾

指導的 機能을 갖는 자리의 로테이션原理 같은 것은 유고로부터 이어 받은 소위 '후루시초프主義'의 殘存部分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廢止되었다. 그리고 또 平和共存 理念도 準革命的인 것의 하나로써 撤回되었었다. 그의 이론인 制限主權論을 가지고 브레즈

註8) G. Bartsch, a.a.O., S.44.

네프는 체코에 대한 武力侵攻을 正當化했을 뿐만 아니라 유고와 루마니아의 獨自路線에 대해서도 原則적인 承認을 역시 撤回하므로써 國際共業主義의 統一性은 겉으로나마 모스크바의 主導下에 다시 놓여졌었다.⁹⁾

브레즈네프는 1969年 6月 世界共産党會議에서도 가장 중요한 課業中の 하나로써 諸共産党的 '行政統一' (Aktionseinheit)을 중용했었다. 그러나 지금 共産党的 分열은 어떻게 收拾할 수 없는 現實問題가 되어있다. 60年代 末까지만 해도 社會主義者와 社會民主主義者들의 統合이 가끔 論議되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同演說 以後 볼셰비키 路線은 右派 修正主義(Titoism)와 左派 修正主義로 分裂되었고 그 異質性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지금 事實上 그들만이 行動統一 原則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볼셰비즘의 諸要因은 위의 다섯 指導者를 거치면서도 어디까지나 마르크스主義의 바탕위에 그 主軸을 두고 있다. 레닌은 스탈린보다도 훨씬 마르크스主義的이었고 또 스탈린은 말렌코프보다도 더했다. 후루시초프는 티토思想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의 수완을 發揮하여 좀 果敢하게 모방했고 또 이를 러시아의 狀況에 맞추어서 역시 試圖해 보기도 했다. 스탈린은 볼셰비즘 그 自体에서 그의 單一的인 組織原理를 發展시켰는 바 이것은 레닌의 民主的인 中央集權主義로부터 그 民主主義的인 側面을 除外한 것이었다.¹⁰⁾ 그러나

註9) G. Bartsch, a.a.O., S.44.

10) G. Bartsch, a.a.O., S.45.

그는 資本主義의 漸進的인 위기에 대한 그 一般論을 繼續 主張했고 마침내 國家共產主義的인 傾向을 誘導해 냈었다.

이러한 傾向이 후루시초프때는 弱化되었으나 그 後繼者代에 와선 다시 되살아 났었다. 1969年 世界共產主義者會議에서 브레즈네프는 資本主義가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程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어떠한 形態이었던 間に 社會主義 建設의 統制策으로서 必須 不可決하다는 것을 力說했었다.¹¹⁾

그러나 맹목적인 스탈린主義者들이 있다할지라도 오늘날 그들이 모두 불셰비키主義者일 수는 없다. 그들은 지금 거의 빠짐없이 北平이나 Tirana 便으로 몰려서 힘을 못쓰고 있다. 그래서 불셰비즘은 지금 스탈린을 비판하는 立場에 있으면서도 基本的인 拒否 反應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불셰비즘은 平和共存論의 止揚을 피하는채 후루시초프에 대한 批判만을 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브레즈네프는 지금 그의 先任者가 行한 레닌論의 修正을 다시 訂正하기도 했다. 즉 브레즈네프治下에서 죽은 者를 추앙하는 個人崇拜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 事實에 政治的 意義를 賦与한다면 레닌의 權威와 새로운 指導體制에 대한 諸規範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點이 아닌가 한다. 이 點에 대해선 후루시초프도 이미 試圖한 바 있지만 黨 建立者의 修正主義理論을 再 修正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成果는 없었고 결국 브레즈네프代에

註 11) Sowjetunion heute, H.12/1969. S.7.

와서 비로서 레닌의 政治的 遺産이 잘 繼承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結論컨대 지금의 불셰비즘은 죽은 레닌에 의해 이룩된 그 神秘的인 基礎위에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즉 레닌의 精神的 遺産이 잘 承繼되는 바탕위에서 國際共產主義의 統一性を 再現코져 하는 것이 지금의 불셰비즘이다. 물론 걸으로나마 레닌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다른 主流들도 역시 拮勢되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共產主義 運動의 分裂은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進陟되어 있기 때문에 불셰비즘이 밝은 앞날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아마 3次大戰만이 새 潮流를 낳아서 諸共產党的 非常共同体라는 이름아래 再統一을 이룩할 수 있지않나 생각된다.

불셰비즘이 어떻게 전파되었던 가를 추적해 보면, 유럽共產党的 대부분이 아직도 불셰비키 路線에 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모스크바에 기울어 있던 속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運動에 沮害要因이 되어 있다. 1968年の 체코強占때 22個 西歐共產党中에서 17個 共產党만이 체코強占을 論評했고 그中에서도 그들의 主張을 끝까지 고집한 共產党은 불과 7個 共產党에 不過했다.¹²⁾

물론 어느 하나의 共產党도 모스크바와 아주 密着되어 있지는

註12) H. Brahm, Der Khenl und die CSSR 1968-69, 1970, S. 74 f.

않다. 東歐내의 불셰비키黨에서도 적지않은 수가 모스크바와는 다른 路線을 거닐려는 것이 事實이다. 불셰비키가 劃策하는 政治 戰略을 보면 그들은 지금도 勤勞者를 계속 搾取하는 資本主義의 危機가 深化되어 간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팻쇼主義勢力이 재대두 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그들은 希臘같은 나라는 팻쇼主義에 의해서 統治된다고 보고 또 西獨같은 나라는 '帝國主義的 유럽'의 總本產이라고 보고 있다. 獨逸의 帝國主義가 毛沢東 추종자나 트루츠키主義者 및 티토主義者들의 支援을 받으면서 共產諸國의 自由化를 試圖한다고도 보고 있다.

불셰비키 共產主義가 그 重點을 아직도 全유럽 大陸에 두고 있는것이 그들 유럽政策의 主目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毛沢東主義者와 트루츠키主義者를 除外한 諸共產黨의 行動統一이 要求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主義者와 社會民主主義者를 包含하는 共產主義者의 行動統一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糾合 方法으로써 共產主義者들은 經濟的인 獨占, 新植民主義, 新팻쇼主義등에 反對하는 소위 平和를 위한 鬪爭을 내세우고 있다. 이 네가지 打開 方法으로써 엘베江 以西 여러나라의 大衆 行動을 煽動하고 있다.

西유럽에 대해 蘇聯은 지금 그 自身이 平和 열강임을 自勉한다.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의 同時 解体를 提議하면서 하나의 非核地帶, 雙方의 軍縮 그리고 2次大戰의 結果로서 策定된 境界線을 계속 保障하려는 소위 集團安保체제도 내세우고 있다.





參與하기 以前인 1943年에 이들은 이미 執權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유고革命은 當初에 그 中心地가 없었으며 모스크바와 벨그라드의 紛爭속에서 分斷部分의 中心地가 생겼던 것뿐이다. 이것은 마치 1919年 - 1923年間的 러시아의 党内 반란狀況과 비슷했다. 유고는 저 때에 西歐工業國家를 目標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는바 이것이 東歐諸國에게는 하나의 과도적인 것이었지만 하여튼 러시아적인 것보다는 더 容易하게 받아들일만한 것이었다.

이 유고슬라비아에서 積極的인 平和共存思想이 대두되었고 또한 軍事條約의 廢止가 提唱되었다. 그러나 그 革命은 始初부터 러시아의 것 못지않게 凡國民的으로 번져나갔다. 그리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및 오스트리아의 케른텐(Kärnten)地方까지 번진 이 유고革命의 여파는 마침내 발칸聯邦思想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쳤었다. 그런데도 1953年과 1954年에 Tito와 Djilas 사이에 爭鬪가 벌어져서 유고黨 指導의 統一性이 깨지자 벨그라드에는 두개의 다른 基本傾向이 생겼다. 그 하나는 티토의 가까운 同調者인 Kardelj 指導下에 共產主義者 同盟이 一黨體制의 초석을 再確立하려는 路線이었고 다른 하나는 'Praxis'라는 學術誌의 精神的 指導下에 職業 黨機關員을 統制하고 또 유고圈 밖에도 集團的 自治行政을 施行시켜 共產黨을 存立시키려한 路線이다. 결국 티토이즘은 유고내에서도 두개의 면모를 가졌으나 이는 나라 밖에서도 尊重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共同基盤은 勞動者 自治行政

인데 만약 共產主義者 同盟이 그들의 住居地域에서 그 組織基盤을 다시 工業經營으로 옮길 경우에는 勞動者 評議會가 共產黨의 細胞 組織을 통해서 活躍하여 蘇聯에 있어서와 같이 正面으로 나타나게 되는 System 이었다. 이러한 理由에서 두 基本傾向의 対立・惡化는 유고슬라비아 밖까지 티토이즘을 波及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實務者들이 個人的인 추종의 限界를 넘어서는 結果를 가져오기도 했다.

티토이즘이 어떻게 전파되었나를 보자. Kardelj 路線에서 보는 티토이즘은 独自の인 民族的 特色을 살려서 共產主義를 이룩하려는 試圖인데 이것은 40年代末에 이미 靖통파 獨逸共產黨도 試圖한 바 있으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獨逸에서는 共產主義 理論家인 Wolfgang Leonhard 指導下에 '獨立獨逸勞動者黨' (Unabhängige Deutsche Arbeiterpartei) 이 한동안 實存했었지만 별다른 影響力을 行使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相當히 티토를 추종하는 傾向이었고 또 벨그라드에도 역시 그러한 클럽들이 많으므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國際組織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事實이다.

스탈린의 死去後 특히 蘇聯共產黨의 20次 黨大會後에는 狀況이 아주 달라져서 티토이즘은 커다란 매력과 伸張力을 가지고 發展했었다. 1956年 러시아 共產主義 모델과의 關係가 단절되자 革命的인 結果로서 폴란드와 헝가리에 暴動이 일어났을때 蘇聯은

軍隊를 介入시켜 이를 鎮壓했었다.

그러자 티토이즘은 다시 西歐로 기선을 돌려서 좀 다른 路線을 指向했는 바 이것은 그 추종자들에게 보다 많은 行動領域을 許容한 것이라서 마침내 벨그라드와는 아주 다른 獨立路線을 指向했었다.

이 새로운 路線의 影響을 받아 1959年 덴마크共産黨이 分열되었다.¹³⁾ 즉 오랜동안 그 黨首職을 맡고 있던 Axel Larsen이 蘇聯의 政策路線을 이탈하고 左派 社會主義者와 右派 共産主義者를 묶어서 社會主義人民黨을 建立했기 때문이다. 1966年의 選舉에서 同黨은 總投票數의 10.9%를 얻으므로서 종래 共産黨이 얻은 0.8%에 비해 相當히 좋은 成果였다.¹⁴⁾ 그래서 이것은 西歐에 있어서도 티토이즘보다 더 커다란 찬스를 갖는다는 것을 예시한 것이었다. 그러자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社會主義人民黨이 建立되었고 종래의 共産黨에서 많은 수가 同社會主義人民黨으로 몰려 갔었다. 그러나 덴마크 社會主義人民黨은 1967年 12月 다시 分열되어 지금은 2個의 人民黨이 存在하고 있다.¹⁵⁾

蘇聯의 20次 黨大會後 유고共産黨과, 이탈리아 共産黨이 密着되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意義일 것이다.

註13) G. Bartsch, a.a.O., S.50.

14) G. Bartsch, a.a.O., S.50.

15) G. Bartsch, a.a.O., S.50.

1964年 1月 그들은 共同声明을 내고 모든 형제당은 独自路線을 통해서 共產主義에 다달아야 한다고 했었다.¹⁶⁾ 이리하여 티토이즘은 西歐에서 점차 전파되었고 그 두더지作戰을 통해서 마침내 불셰비즘의 影響을 제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티토이즘에 있어 티토를 그들의 위대한 領導者로 보는 나라는 유고의에는 아무데도 없지만 유럽 共產黨 内部에서 이것이 방대한 自治運動化 되어있는 것은 事實이다. 英國, 和蘭,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San Marino 등등 도합 7個의 西歐 共產黨이 티토路線의 影響을 받고 있다.¹⁷⁾ 그리고 東歐에서는 루마니아가 유고를 示範삼아 独自路線을 걸고 있다. 물론 루마니아가 同路線을 걸기 始作한 것은 國家主權을 侵害하려고 했던 蘇聯의 統合計劃이 들어난 後부터 였다.

狹義의 意味에 있어서 티토이즘은 스칸디나비아의 諸社會主義人民黨과 西歐共產黨下의 自治主義者들 그리고 루마니아의 特異한 路線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勞動者의 自治行政이 아니고 勞動者의 經營參與만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廣義의 意味에 있어선 티토主義者나 또는 그 實踐家들은 西歐의 '新左派' (Neue Linke)와 東歐의 社會革命的인 인텔리겐차에 손을 뻗치고 있다.

註16) Weltkommunismus 1964, in: Osteuropa, Heft 7/8/1964, S.495 f.

17) G. Bartsch, a.a.O., S.50.

물론 그들의 影響力은 별로 강한 것이 아니지만 東歐의 學生運動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전 유럽이 社會主義에로의 路程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世界의 趨勢라고 볼적에 共產主義者와 社會主義 諸政黨이 거의 對等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 하나가 社會主義를 革命的인 것으로 宣傳하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를 發展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 共同의 敵은 소위 Etatism 인데 이것이 지금 西歐에서는 國家資本主義(Staatskapitalismus)이고 東歐에서는 國家共產主義(Staatskommunismus)로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것이 東西歐를 莫論하고 바로 社會主義的 發展을 沮止하는 傾向이다.'¹⁸⁾ 라고 보고 있는것이 유고의 立場이다.

그래서 이러한 社會主義的 發展을 沮止하는 모든 要因을 可能한 限 빨리 除去하려는 것이 저들의 戰略이다. 즉 이것은 東歐에 있어서 蘇聯의 主導權에 反하는 鬪爭을 뜻하며 유럽 共產主義 内部에서는 2개의 經濟共同체에 벨그라드가 協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社會主義 인터내셔널과 比較的 密接한 接觸을 가질 뿐더러 主要 동료정당과도 各별한 關係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西獨의 社民黨 代表團이 자주 벨그라드의 招請을 받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고의 티토主義者들은 '勞動者 自治行政'에서

註 18) G. Bartsch, a.a.O., S.51.

참된 共產主義의 基本條件을 보고 있으며 또 현재의 유럽이 革命的인 方法이 아닌 發展的인 方法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다.

그러나 Kardelj 主義者들이 共產黨의 엄격없이 自治行政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反해서 티토主義의 實踐家들은 그 要因을 分離 取扱하고 있다. 즉 그들의 보는 바로는 유고슬라비아에는 黨과 國家機構의 指導役割에서 나타나는 Etatism 的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Stojanovic 는 Etatism 이 무너지려는 勞動者 評議會가 活潑히 움직여서 먼저 各企業체가 實權을 掌握하고 나아가선 國家 權力까지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將次에 있어서는 社會革命이 政治革命보다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見解이다.¹⁹⁾

共產黨이 勞動者에 종속되므로써 黨의 官僚화가 勞動者의 沮止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티토主義者들의 主張이다. 달리 말하면 티토主義 實踐家들의 見解는 蘇聯 共產主義의 官僚화가 그들 나라 유고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的 要因을 消滅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蘇聯을 社會主義的이거나 共產主義的인 것으로 보지않고 새로운 階級分化에 따른 Etatism 的인 國家라고 보고 있다.²⁰⁾

註 19) S. Stojanovic, Der etatistische Mythos, in: Jugoslawien denkt anders, Wien/1971, S.163 ff.

20) S. Stojanovic, ebenda, S.178.

4. Trotskyism

Trotsky 主義者라고 하면 蘇聯이나 다른 共產國家들을 勞動者 國家로 보되 참된 評議會制度 (Ratesystem)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 自身이 必要로 하는 大部分의 領域에서 반관료적 革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者들이다.

Trotsky 主義의 基本바탕은 러시아革命에 Trotsky가 參與했다는 것, 스탈린에 반하던 그의 鬪爭計劃이 確固한 것, 그의 순교자적인 政治生命 그의 理論과 그리고 第4次 인터내쇼날 등등이다. 1917年 7月부터 1928年 10月까진 Trotsky 主義가 볼셰비즘의 한 部分이었다고 하지만 이 두 路線의 差이를 確定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Trotsky 主義에는 옛날의 反레닌主義가 反스탈린主義에 뒤져있을 뿐더러 Trotsky 主義는 별로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沈黙속에 묻혀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레닌의 民主적인 中央集權主義가 스탈린의 觀點에서 단일시적인 言行의 一致로 變했고 또 그 勢力權內에서 同原理를 위반했을 때엔 死刑만은 免하도록 했던 오늘날의 볼셰비키主義者에 反해서 Trotsky 主義者들은 民主적인 억양(Akzent)을 훨씬 더 높인다. 즉 그들의 諸組織은 各分野別로 自由가 保障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결국 共產黨 內部에서 많은 分열을 낳았지만 共產主義運動에서 그 나름으로 獨特한 面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대신 Trotsky 主義者들은 볼셰비키主義者와는 달리

各 分派의 自治대신 中央集權的인 世界的 党(Weltpartei) 만은 確固히 전지하러 들었다. 第4次 인터내쇼날이 第3次의 것보다는 比較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는 하여튼 러시아 中心主義를 초극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人種의 平等이라는 것을 實現했었다.²¹⁾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共產國家들을 判斷하는 데에도 있다. 볼셰비키主義者에게는 그들이 革命運動의 가장 중요한 勢力이었지만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主義的인 것이나 또는 修正主義的인 것과는 좀 달랐었다. 때때로 그들은 유고나 中國 및 알바니아는 '社會主義的'이라는 말을 쓸 權利가 없다고까지 했었다.

1969年 世界大會의 主要文書속엔 14個의 共產國家에 한해서만 '社會主義的'이라는 말이 쓰여있다. 이에 대해서 Trotsky 主義者들은 共產主義國家에 대한 辯証法的인 判斷을 내렸는데 이것을, 해명하려면 Trotsky 의 '반역한 革命'이라는 著書까지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蘇聯에 있어서 社會化된 生産力과 市民的인 分配形態를 區別했었다. 즉 社會主義的인 바탕은 하나의 關료의 '보나파르티즘'的 建設이 移植된 것이 아니냐는 見解였다. 社會主義의 基礎는 러시아革命의 업적을 지니고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市民社會의 分配形態가 資本主義的인 復古에 치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相反된 傾向이 지금 蘇聯 共產黨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蘇聯 共產黨이 革命的인 업적을 確固히 인정하고

註21) H. Brahm, Trozskijs Kampf um die Nachfolge Lenins, Köln/1964, S.204 ff.

있는한 그가 進歩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蘇聯 共産黨이 만약 社会的 特權을 누리는 속에서 分配 형태를 轉換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곧 反動的이고 또 복리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1936年에서 1938年에 걸쳐 Trotsky의 추종자들과 예전의 同盟 同志들을 거세하려는 모스크바의 反革命 公判이 있었을 때 Trotsky는 內的改革을 통한 蘇聯社会의 平和的인 變換은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官僚的 肥大性向을 배제하는 政治革命을 勸獎했었다.²²⁾ 이러한 뜻에서 Trotsky主義者들은 지금도 역시 '反官僚的 革命'을 云云한다.

Trotsky主義者들의 理論的인 基本은 永久革命論이다. 그들은 오늘날 그 內的인 觀点を 外的인 觀点보다 덜 내세우는 傾向이 있다. 다시 말하면 民族革命에서 國際的인 革命에로의 主張보다도 官僚的인데서 프롤레타리아革命에로의 過渡的인 것을 덜 내세우는 것이다.

그들 教養誌의 하나를 보면 '世界革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諸民族革命은 資本主義体制의 不均衡한 發展때문에 하나의 연쇄를 形成한다. 이 각양각색의 諸民族革命은 결국 전체 과정에 연결된 그 순간적인 것이다. 단 하나의 全体性이란 社會主義 世界革命이라는 全体性속에서의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²³⁾ 라고 되어

註 22) H. Brahm, ebenda, S. 29ff.

23) G. Bartsch, a. a. O., S. 53.

있다.

트루츠키理論은 결국 工業 프롤레타리아의 關鍵役割을 강조한다. Maoism 이나 Fidelism 이 가난한 農民의 革命力量을 動員하려는 데에 반해서 트루츠키主義者들은 '인더스트리·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을 重要視한다. 바로 이 點에선 Trotzky 主義者들은 볼셰비키나 티토路線과 一致된다. 그러나 그들은 平和共存을 根本적으로 反對하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집권하려는데는 反對한다. 결국 Trotzky 主義者들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사이에는 교두보라는 것이 있다고 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蘇聯뿐만 아니라 原則없는 支持때문에 부르조아 或은 封建的인 政權이라고도 불리우는 中國까지도 階級鬭爭의 對象에 집어넣고 있다. Trotzky 主義者들은 文化革命이 中國에 있어서의 官僚的 權力構造를 타도하길 바랐다. 그러나 저 革命의 결과는 毛沢東派가 黨과 國家를 再建한 것이었다. 오늘날 Trotzky 主義者들은 그들이 中國에 있어서 毛沢東 추종자이든 或은 劉少奇를 동정하는 勞動者와 知識人이든 間에 反官僚的인 反對派의 中心勢力으로써 左派를 形成하고 있다. 이들은 즉 革命的인 Trotzky 黨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²⁴⁾

Trotzky 主義者들은 마르크스主義의 基本的인 面을 위배한

註 24) H. Brahm, Pekings Griff nach du Vormacht, Köln/1966, S. 51.

毛沢東을 잘 非難하기도 한다. 毛沢東은 결국 理念을 重視하고 意志的 行動을 통해서 모든 問題를 打開하려고 했기 때문에 中國에는 스탈린主義의 분규를 더 激化시킨 主觀主義者라고 그들은 批判하고 있다. 古巴革命은 오랜동안 第4次 인터내쇼날로부터 아무런 條件없이 支援되었다. 왜냐하면 第4次 인터내쇼날은, Fidel Castro 를 오늘날까지도 브레즈네프에 비해 위대한 無血革命의 指導者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數年前부터 그들은 그를 批判하고 있다. 그 理由는 古巴經濟가 發展을 못하는 채 비참한 狀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理由를 評議會制度의 過誤와 古巴 스탈린主義者들의 影響 및 高位 黨職者의 社会的 特權等에서 찾고 있다.

'古巴가 必要로 하는 것은 諸委員會의 基礎를 가진 広範圍한 民主的 革命構造인 것이다. 이 諸委員會는 民衆에 의해서 直接 選出되고 또 何時라도 廢止될 수 있는 참된 權力機關이라야 한다. 달리 말하면 評議會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行政과 國家의 再組織이 問題인 것이다'²⁵⁾ 라는 말은 트로츠키主義者들의 立場을 잘 解明해 준다.

유고 슬라비아에 있어서 Trotsky 主義者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型의 評議會制度를 諸企業에 집어 넣는 것이었으나 아직도 그 全体的 規範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티토를 勞動者 民主主義의

註 25) G. Bartsch, a.a.O., S. 54.

發展에 있어 큰 進歩를 가져오게 한 者라고 보고 있지만 革命的 마르크스主義로부터 極端的으로 右旋回했다는 點과 특히 平和共存論에 관해서 많은 批判을 加하고 있다.²⁶⁾

Trotsky 主義는 결국 國際的 規範에 立脚해서 세밀한 차이점을指摘하면서 모든 다른 共産黨 路線의 批判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 그 理論家들은 古典的 마르크스主義 말을 꽤 조심스레 分析하며 그들 自身이 고전적 마르크스主義의 정통적 후예라고 自稱하고 있다.²⁷⁾

Trozkism 의 전과과정을 보자. 1938년에 結成된 第4次 인터내쇼날은 蘇聯이 하나의 「勞動者 國家」로서 앞으로의 繼續 發展을 위해 政治革命을 必要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蘇聯問題」를 에워싸고 한동안 분열되었으나 1963年 그들 추종자의 대부분이 다시 한데 뭉쳤었다. 그런데 第4次 인터내쇼날이 계속 育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確信하는 많은 트로츠키派中에는 西유럽에만해도 7個 分派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共産黨聯盟, 이탈리아의 共産主義的 革命者 클럽, 英國의 國際 마르크스主義的 클럽, 덴마크의 革命的 社會主義者들, 西獨의 國際마르크스主義者 클럽, 오스트리아의 共産黨聯盟, 그리스

註26) V. Rus, Die Institutionalisierung d. revolutionären Bewegung, in: Jugoslawien denkt anderes, Wien/1971, S. 201.

27) H. Brahm, Trotzkijs Kampf, Köln/1964, S. 210 ff.

의 國際共産黨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²⁸⁾ 第4次 인터내쇼날과 유대된 위와같은 正會員黨과 아울러 벨지움, 英國,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西獨 등지에는 또 余他的 Trotsky 클럽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世界黨(Weltpartei)의 諸分派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基本的인 問題에 對해서는 大部分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部分的으로 그들은 또 그들간에 갖는 諸會議에도 모두 參席하고 있다. 1970年 11月 21-22日에 브뤼셀에서 열린 'Kongreß der revolutionären Avantgarde'에는 19개의 西歐諸國이 代表를 派遣했는데, 그 중 4大 代表團은 프랑스(參加者 1,300名), 벨지움(1,000名), 英國(300名), 西獨(280名) 등이었다.²⁹⁾ 그런데 특이한 것은 同會合에는 西歐工業國家에서 參席者의 大部分이 왔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 意味에서 볼때 Trotskyism은 어찌보면 하나의 産業共産主義(Industriekommunism)라고 말할 수도 있다.

同브뤼셀 會合에는 또한 東歐羅巴에서도 野黨的 共産主義者들의 적지 않은 數字가 비밀리에 參석했었다. 全 유럽的 規模로서 Trotsky 主義者들이 맨처음 회동한 것은 1969年 12月 27日에서 1970年 1月 3日까지의 스위스會合이다. 同會合에는 第4次 인터내쇼날의 추종자들이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 등지

註28) G. Bartsch, a.a.O., S.55.

29) G. Bartsch, a.a.O., S.56.

에서 왔으며 모두 그들 나라 革命政党的 建設을 위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提示했었다.³⁰⁾ 체코에서는 두브체크하에서 '革命的 社会主義党'이 建立되었는데 1971年 3月 후사크는 이들을 법정 처리했었다.³¹⁾ 왜냐하면 이들이 油印物을 통해서 체코強占에 反하는 완강한 抵抗運動을 벌렸기 때문이다.

브라셀에서는 東歐羅巴에 대한 特別위원회가 組織되었고 同委員會는 行動綱領의 基本的인 것을 草案하기도 했다. 蘇聯에 대한 다른 共產國家들의 솔직한 態度는 蘇聯이 그들의 仇敵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1970年 6月 그리이스의 Trotsky 主義者 Psaradelli 가 형무소를 脱出하고 불가리아로 逃走했을때 불가리아 國家保衛省은 希臘에 反共的인 軍事 独裁政權이 있는데도 Psaradelli 를 그리이스 警察에 引渡했었다.³²⁾ 이같은 事例는 마치 스탈린이 蘇聯에 亡命했던 独逸共產黨員들을 히틀러의 Gestapo 에 引渡했던 것을 연상시키되 自國內의 野党的인 Trotsky 派를 얼마나 敵對視하는가를 엿보게 하는 좋은 实例이다.

Trozkism 의 戰略을 보면 1969年 4月에 열렸던 第4次 인 터내쇼날의 世界大会 以來 저들은 西歐에 있어서의 革命運動의

註 30) G. Bartsch, a.a.O., S.56.

31) G. Bartsch, Die Wiederbelebung d. Trozkijsmus in Osteuropa, in:Osteuropa, 9/1972, S.681f.

32) G. Bartsch, a.a.O., S.56.

再活과 蘇聯 및 東歐에 있어서의 스탈린主義의 분규 및 惡化 傾向을 크게 論議하고 있다.

Trotsky 主義者들의 立場에서 보면 資本主義와 스탈린主義에 의해서 勞動者 運動이 敗北한 후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의연히 革命的인 指導體制가 缺如되어 있는 점이 世界革命의 基本的인 問題로써 제일 심각했다. 그들은 그들 自身이 새로운 Avantgarde 의 核心이라고도 보았다. 그러나 Trotsky 主義者들은 事實上 지금까지 보편적인 指導機構를 形成할 수가 없었다. 유럽大陸에서는 프랑스만이 커다란 組織을 形成할 수 있었을뿐 東歐羅巴에서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組織化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가까운 目標라면 西歐에 있어서 大衆 政黨을 만들고 東歐에 있어서는 엘리트의인 機構를 設立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蘇聯에 있어서도 하나의 政治革命을 準備하기 위해서 Trotsky 黨을 만드는 問題다. 그러나 鄂畢江 以東의 主敵은 크레믈린의 官僚主義이고 鄂畢江 以西의 主敵은 西歐를 국제化한 帝國主義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Trotsky 主義者들의 發展에는 커다란 沮害要因이 되어 있다.

東歐羅巴에 대한 行動綱領은 다음과 같은 것이 問題視된다. 諸 企業에로의 勞動者 評議회의 創設, 勞動者 自治行政의 形成, 評議

회의 自治的인 中央集權化, 民族的인 労働者會議의 召集, 官僚主義의 抑壓을 피하는 計劃經濟의 維持 등이 바로 그것이다. Trotzky 主義者들은 共產主義的인 官僚主義에 대해 暴力을 行使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自發的인 退進이 있을 수 없음을 確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機關員의 特權을 廢止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引上되었던 機關員 給料을 労働者의 勞賃과 똑같은 水準으로 引上해 주려 한다.³³⁾

그러나 西歐에 對한 行動綱領은 東歐의 것보다는 훨씬 流動的이다. 즉 労働者의 階級意識이 어떻게 다시 深化되며, 革命課業을 어떻게 施行할 수 있는가에 가장 重點을 두고 있다.

勞賃鬭爭과 工業經營에 參與하는 革命的인 労働者 自治行政間의 仲裁적 打開策으로써 저들은 労働者의 調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즉 労働者 自身이 企業과 生産을 調整하게 되어야지 결코 參與의 폭을 넓히는 것만으로서 滿足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Trotzky 主義者들에게는 構造的 改革을 提唱한 이탈리아 共產黨의 強硬政策이 바로 修正主義的인 것이다. 그들은 이 點에 있어서 좀 消極的인 프랑스 共產黨을 願望하기도 한다. 資本으로

註 33) G. Bartsch, a.a.O., S. 57.

말미암은 勞働者 調整의 회피에서 政治權力을 에워싼 鬪爭까지의, 階級鬪爭을 鼓吹하는데 이 鬪爭은 무장한 민병을 가진 프롤레타리아의 獨裁에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Trotsky 主義者들은 勞働大衆에 뿌리박기 위한 兇動力이 學生運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學生運動이 一般的으로 모든 共產主義的 路線을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고, 또 동시에 이 學生運動에서 새로운 젊은 Avantgarde 가 育成되어 그들 旧世代와 규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學生들은 여러 工場에 있어서 政治的 陰謀를 위해 革命的인 衝突力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勞働青年을 同調시키는데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協同組合에 있어서나 또는 社会民主主義的인 社会主義的인 아닌 다른 共產主義的인 諸党에 있어서 Trotsky 主義者들은 이 改革的인 機構의 分派形成을 實現하기 위해 革命細胞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또한 '罷業委員會'와 같은 自力으로 選出된 機構에 定着되어 있고 Trotsky 党的 起點을 만들기 위해 모두 새로이 統合되고 있다.

브라티슬라바會議에서는 全유럽的인 主要求로써 유럽의 統一된 社会主義 國家의 分離 試圖가 提議되었다. Trotsky 主義者들은 그들 勢力을 全大陸에 펼치기 위해서 個個의 나라에서 그 政治權力을 奪取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方法의 가장 중요한 「스테지」로써

그들은 蘇聯에도 第4 인터내셔널의 支部를 들 것을 要求했다.³⁴⁾

또 지금 그들 拮勢의 커다란 期待를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다 걸고 있는 판국이다.

이러한 一聯의 狀況進展을 감안할때 트로츠키主義者들이 지금 그들의 拮勢를 爲해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에 큰 期待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註 34) G. Bartsch, a. a. O., S. 58.

Ⅲ. 東 共產主義의 實相

1. 유고의 독자노선

유고는 5개民族으로 이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對內外的 衝突은 실로 世界의 어느 民族 分규에 못지않게 가혹하고 무참했다. 지금의 「유고主義」가 出現되기 이전 저들의 對內外的인 衝突이 얼마나 처절했으며, 또 저들이 異民族으로부터 받은 학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추적하여 現 유고政治의 問題點을 理解해 보고자 한다.

1014年 「東로마」제국이 지금의 유고地域 一帶를 석권했을 때 당시의 「東로마」황제는 1萬5千名の 戰爭捕虜중 1百50名을 除外하곤 전부 두 눈알을 빼버렸으며, 남은 1百50名도 한쪽 눈을 멀게 하고서 다른 한쪽 눈만을 가진 외눈박이 1百50名이 그 많은 捕虜들을 引率하여 歸郷토록 한적이 있다.¹⁾

이 때에 그곳을 통치하고 있던 불가리아의 「사무엘」황제는 그 참상을 보고 너무나도 큰 衝擊을 받아 그대로 졸도하여 죽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14세기 이후 同地域에 터키통치가 행해졌을 때 도 터키인과 세르비아인의 諸 軋轢抗爭은 모두 피로써 얼룩진

註 1) 加藤雅彦; 東ヨーロッパ, 1970, p. 65.

歴史라고 할 수 있다.

그 代表的인 例라면 1809年 세르비아人 「S. 신제리치」는 화약통을 끌어안은 채 敵兵들 속에 뛰어 들어 그들과 모두같이 散化해 버린 것이다. 同 事件의 처벌에 있어 터키는 反徒 9百52名의 목을 잘라 그 목들로 탑을 쌓아놓고 세르비아人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지금 유고의 수도 벨그라드에서 南으로 3百키로를 가면 「니슈」라고 하는 작은 邑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해골탑」이 바로 1809年의 처절했던 그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한다.²⁾

이와 같은 外人虐政에서 거칠어진 때문인지 발칸人의 기질에는 성급하고 과격한 면이 있다. 1914年의 「오스트리아」황대자 암살자도 세르비아人이었고 1934年 訪仙중인 「알렉산더」 유고 国王 암살도 크로아치아의 極右派 청년이 행한 것이다.

특히 크로아치아의 極右派 團體인 「우스다시」(Ustase)는 2次大戰중에 많은 세르비아 正教徒와 回教徒, 그리고 共產主義者와 猶太人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2次大戰중 유고人 死傷者는 도합 1百70萬에 달하는 바 그중의 半 以上은 「나치」의 소행이 아닌 国内 南슬라브族 相互間의 殺害행위였다.³⁾

이렇던 国内 諸民族의 不和가 對獨軍유격전을 통해서 해소되고 나아가선 유고國民 全體가 「빨치산 運動」을 支援함으로써 当初

註 2) 加藤雅彦; 上掲書, p:66.

3) 加藤雅彦; 上掲書, p.67.

의 「세르비아」의 愛國運動이 소위 汎國民的 國論統一運動으로 변하고 마침내 反나찌통일전선이 된 것이다. 그러자 연합군도 同빨치산을 援助하게 되었고 원래 共產主義者를 母體로 發族했던 同빨치산조직에 非共產主義者들도 합세함으로써 유고의 속명적인 民族間的 對立도 점차 克服되기 始作했었다. 그리하여 同빨치산이 때로는 共產軍과 協力하여 노련한 게릴라戰을 펴서 「나찌」로부터 점차 國土를 해방시키자 1942年 11月엔 「人民委員會」가 結成되었고, 또 그 다음 해의 11月엔 「유고 反팻쇼 人民解放評議會」가 組織되었다. 그리하여 同評議會는 마침내 舊王國을 타도하고 연방국가 建設을 결의했으며, 1945年 11月엔 「티토」大統領下에 「유고 聯邦人民共和國」을 樹立한 것이다. (유고는 1963年에 그 國名을 「유고 社會主義聯邦共和國」이라고 改稱했음)

2次大戰中の 同「빨치산精神」, 즉 外勢에 反하는 유고주의는 戰後 스탈린과의 對결에 있어서도 심분 發揮되었다. 「유고」의 政治學者 데디에르(V. Dedijer)교수는 양국의 紛争原因을 史的으로 잘 해명하고 있다. 즉 그는 同紛争原因을 蘇聯의 유고에 對한 侵略的인 諸 경향에 돌리는 바, 兩國間的 不和는 戰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戰爭중에 싹트다는 것이다.

즉, 1941年의 유고 革命時에 소련의 指導者는 유고인의 봉기를 참된 유고解放을 위해 중용한 것이 아니고, 소련의 利益과 大 러시아政策에 합치되는 方向으로 指導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리고 1943年 유고의 「反팻쇼 人民解放評議會」가 망명政府의 不承認과 國王의 歸國禁止를 宣言했을 때에 스탈린은 그에 反對 했다는 것도 들고 있다.⁴⁾

이같이 해서 뿌러진 不和의 씨는 戰後 共產점령군의 유고에 있어서의 非行때문에 유고 國民의 반감을 삼으로써 더욱 자랐다는 것이다. 그 위에 1946年에 소련이 제의해 온 소련, 유고 合資會社案은 유고 經濟를 사실상 蘇聯에게 예측시키려는 內容이었다는 것이다.⁵⁾

그런데도 1947年 2月 유고는 二件의 合資會社設立案에 서명을 해야만 했다.

또 1948年 1月 유고는 그들 外交에 對한 蘇聯의 간섭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協정문에 加入할 것을 강요당한 바 있다.

그리고 또 同年 3月 蘇聯은 유고주재 군사고문단을 철수시켰다. 이와 같은 一連의 壓力的인 去來가 행해지자 유고中央委는 「우리는 社會主義 國家인 蘇聯을 꽤 좋아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서한을 낸 바 있다.⁶⁾

이것을 계기로 兩國 關係가 極度로 惡化되자 蘇聯은 마침내 同年 6月에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코민포름」에서 유고를 除名

註 4) V. Dedijer, Stalins Verlorene Schlacht (스탈린의 敗戰) Wien, 1970, S. 52

5) V. Dedijer, ebenda, S. 80 ff.

6) V. Dedijer, ebenda, S. 125.

했으며, 그 後 自國은 勿論이러니와 東歐諸國에게도 對유고經濟關係를 단절토록 했다. 이와같이 해서 유고는 東歐圈의 고아가 되자 그의 진로는 뻔한 것이었다. 즉 안으로는 政治, 經濟體制를 改革하면서, 밖으로는 東歐아닌 他地域으로 그 外交를 펴 나가야만 했으니, 이것이 낳은 것이 바로 「독자적인 社會主義」요 「積極적인 中立主義」요, 또한 「非同盟政策」이었다.

社會主義를 지향하되 「獨自路線」에 입각해서 國家建設을 시도하는 유고의 실제정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본다.

유고의 독자적인 社會主義를 한 마디로 表現하면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一黨獨裁를 전제하되 可能的한 限 政治的 自由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經濟的으로는 生産手段의 社會化(이 나라에선 國有는 아니다)를 전제하되 加급적 自由市場 經濟的인 方法을 시행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고는 1958年4月 第7回 共産黨大會에서 新綱領을 결의 採擇했던 바, 이것은 마치 유고 社會主義 憲章과 같은 것으로서, 그들의 독자노선의 기본理念이 總括的으로 담겨져 있는 重要한 의결안이다. 이 新綱領이 공포되었을 때 各國 共産黨은 이를 修正主義라고 호되게 비난했다.

이 綱領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社會主義 社會建設의 途程은 다양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⁷⁾ 즉 社會主義의 目標는 同一

註 7) R. Supek u. B. Bosnjak.
Jugoslawien denkt anderes.
Wien, 1971, 93 ff.

하지만 그 目標에 도달하려고 發展해 가는 그 노정에는 各國의 經濟發展, 政治構造, 傳統과 인습 및 國民의 歷史意識등이 作用하기 때문에 그 發展 템포나 形式이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國際 共產主義 運動에 있어서 하나의 求心點이 同運動을 지도하는 것에 反對를 표명했다. 즉, 社會主義 제국의 黨 상호간의 關係는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셋째, 社會主義 社會建設은 可能主義的인 制度的 融合을 통해서도 可能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⁹⁾ 즉 近來의 資本主義는 産業 國有化와 國家投資의 增大 및 個人資本의 제한 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순이 격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이와 같은 積極的인 (Positive) 變化는 東歐諸國의 社會主義的 發展過程에 있어서도 勞動組合, 民族革命運動 및 社會民主黨의 役割 등을 무시할 수 없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社會主義는 共產黨에 의해서만이 實現된다고 보는 종래의 견해는 誤類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同綱領은 黨의 지도적 役割도 부정하고 있다.¹⁰⁾

註 8) J.G.Reißmüller, Jugoslawien-Vielvölkerstaat Zwischen Ost Und west (유고-東西사이의 多民族國家, Düsseldorf 1971, s.139.

9) J.G.Reißmüller, ebenda, s.140.

10) J.G.Reißmüller, ebenda, s.155.

즉, 共産黨에 의한 政治權力的 絶對的 독점을 보편적인 불변의 原則으로 내세우는 教條主義에 反對하면서 社會主義의 至上目標가 個個人的 幸福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同綱領은 以上과 같은 네 가지로써 독자노선의 一般的 理念을 밝힌 外에도 「유고社會主義」의 具體的인 體制內域을 說明해 주고 있다. 즉 유고 社會主義의 中核인 「勞動者 自主管理」라든지 「勞動者 評議會」 및 「경영委員會」등이 유고體制的 特色인데 이를 좀더 자세히 論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고 憲法 第 8 條를 보면 「모든 生産手段을 社會化한다」고 되어 있다. (但 農地는 個人農이 인정되어 있기에 전부가 社會所有는 아닌 것임)

이러한 生産手段의 實際過程에 있어서 企 是 勞動者에게 양도되고 또 運營까지도 위임되어 있는 바, 이것이 곧 「노동자 자 주관리」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同評議會는 「經營委員會」라는 企劃專門의 小委를 構成하여 企業實務에 임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企業의 最高機關인 同「勞動者評議會」의 구성은 企業의 規模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15名에서 1百20名이며 그중 75%가 生産現場에서 선정되고 있다.¹¹⁾

또 「勞動者評議會」의 主任務를 보면 勞動者評議會는 첫째, 製 品의 種類, 數量 및 價格 등을 決定하고 둘째, 收益의 分配方法을 決定하며, 셋째, 企業의 擴張 및 그에 따른 조달을 숙의하며

註 11) K. Adenauer Stiftung, Jugoslawien im Umbruch(轉換속의 유고), Mainz/1973, s. 13.

네째, 고용노동자의 해고 및 신규고용 등을 論議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경영위원회는 첫째, 勞働者評議會가 행하는 諸般事
를 企劃 제의하고 둘째, 勞働者評議會의 決定을 구체화해서 企
業 運營에 적용하고 있다.¹²⁾

이와같이 노동자 자주관리 하에서는 勞働者가 자주적으로 企
業을 運營하기 때문에 中央政府가 企業活動에 直接 간섭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企業이 個人資本의 不足으로
因해 銀行融資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國家의
관여를 받게 마련이다.

유고의 企業活動이 위와 같이 当局의 상당한 制約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 比하면 훨씬 自由가 보장
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자주관리下의 經濟面과 비슷한 現
象도 있다.

즉 통일 업종의 企業들이 상호競争을 하기도 하며, 外國貿易
部門에서는 유고의 200여개의 貿易會社가 外國商社와 直接 去
來할 뿐더러 1966年3月以後로는 輸出에 의해 獲得한 外貨의
25%까지를 그들의 保有額으로써 輸入을 위해 自由로이 쓸 수
있도록 許用하기 때문에 西方世界의 貿易實態와 거의 비슷하다.¹³⁾

그리고 독자노선 體制下의 私企業과 個人營農制度로 주목거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고에서는 従業員 5人以下의 私企

註 12) K. Adenauer Stiftung, ebenda, s. 15.

K. Adenauer Stiftung, ebenda, s. 17.

業이 許容되어 있기 때문에 觀光客을 相對로 하는 個人經營業體
들이 아주 증대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食料品店, 이발소, 양화점, 목공소, 자동차수리업 및 택시
업등은 外貨獲得을 위한 當局의 자금 支援이 있기에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¹⁴⁾

그리고 個人營農실황도 좀 特徵이 있다. 유고 憲法 21條를
보면, 農地의 私有가 10헥터까지 許容되어 있다. 그러나 個人
營農의 실상은 10헥터 이상도 許多하 . 不毛 산악지대가 많은
「몬테네그로」共和國 같은 곳에서는 私有地를 아주 25헥터까지
許容하고 있다.¹⁵⁾ 원래는 유고도 45年의 政府樹立 當時 農地
改革을 통해 農業의 集團化를 시도했었지만, 保守層 農民의 非協
力으로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53年의 再改革을 통해 農業의
集團化를 중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 農土의 88
%가 個人農地이며 國營農場이나 協同組合農場등 소위 集團農場
소유지는 불과 12% 밖에 되지 않는다.¹⁶⁾

동集團農場에 종사하는 農民은 全農民數의 4%이며, 그들의 營
農地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12%이지만 동 集團農場의 수확고
의 全수확고의 22%를 점유한다.¹⁷⁾ 이것은 즉 농경기술의 改善을

註 14) K. Adenauer Stiftung, ebenda, s. 26 f.

15) 加藤雅彦; 上掲書, p. 76.

16) J. G. Reißmüller, ebenda, s. 195.

17) J. G. Reißmüller, ebenda, s. 196.

施行하고 있는 集團農場의 生産庫가 個人農보다는 우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고는 이와같이 독자적인 制度와 生産手段으로써 後進性 脱皮의 合理化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나라이지만, 저 제도하의 저 나라는 그 나름대로 큰 고민도 안고 있다.

유고의 독자적인 社會主義는 50年代初期이래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으로부터 修正主義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고社會主義를 비난하는 東歐國家는 없어졌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를 自國의 여건에 알맞게 機能的으로 결합시켜 낳은 獨自路線, 즉 共產黨의 優위를 인정하면서도 黨의 獨裁를 배제해 가고 있고, 또 統一된 經濟企劃의 完全한 포기가 아니면서도 効率的인 自由로운 企業經營을 권장하고 있는 저 나라의 獨自體制는 東歐의 自由化를 위해 분명히 선구적 役割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저 體制와 그의 指標인 「유고主義」는 지금 아래와 같은 問題를 안고 있다. 첫째, 西歐式 社會民主主義에 비할 때 하나의 左派社會主義와 같은 理念을 좇고 있는 저 나라는 명색이 社會主義 國家이면서도 실업자 問題와 노동자의 파업問題등을 안고 있다. 20만이라는 유고勞動者가 지금 西歐各國에서 就役하고 있는가 하면 國內에는 30만의 실업자가 있다.¹⁸⁾

그리고 特히 勞動者의 노임인상을 위한 「노동정지」(이 나라는 파업을 「노동정지」라 부른다) 問題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

註 18) J.G.Reiβmüller, ebenda, s. 165.

에서는 容納되지 않는 例로서 제도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⁹⁾ 그리고 또 同독자노선의 政治的인 未洽點이랄까 또는 長點이라고 한다면 共産黨답지 않게 黨機構自體가 유고에서는 民主化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 나라에는 일찌기 「질라스」의 黨獨裁制 否定을 비롯하여 「미하이로프」의 複數政黨制 제창등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티토의 自意가 아닌 他意에 依해서 中央委가 再編成된 實例등은 역시 독자노선이 내전대로 黨機構가 民主化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⁰⁾

둘째로 티토의 中央政治는 대전중의 「빨치산 精神」을 바탕으로 전유고인의 國民的 統一意識을 꾸준히 고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内部統一이 이룩되지 않은 채 많은 政治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유고의 제 問題에 있어서 가장 큰 암적 要因은 역시 저들의 숙명적인 民族對立이다. 北部인 「크로아치아」의 유럽적 생리, 南部의 「오리엔트」的 後進性, 中部인 세르비아의 강인한 排他性등이 유고슬라비즘의 發展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다. 1971年末을 前後한 티토의 對「크로아치아」彈壓策²¹⁾은 民族對立의 再燃경향을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세째는 유고 外交政策의 向方이다.

유고가 내전 「積極的 中立」과 「非同盟政策」은 東西冷戰時代에

註 19) Vgl, K. Adenauer Stiftung, ebenda, s. 25.

20) J. G. Reißmüller, ebenda, s. 157f.

21) S. Stankovic, Die Kroatische Krise (크로아치아의 분규)
in: OSTEUROPA, 61 1972, s. 411 f.

는, 알맞은 政策이었으나 東西베탕트의 오늘에는 맞지 않을 뿐더러 「네루」, 「수카르노」, 「나세르」없는 「티토」는 의로워졌다.

특히 近來에 와서 유고의 独自路線을 支持하는 勢力이 몇몇의 西歐 共産黨과 社會民主主義 國家일뿐 第3世界의 新生國家들이 非同盟 政策에 미온적이고 봄에 유고의 中立外交가 활발하지 못해졌다.

위와 같은 對外政策의 침체를 意識함인지는 몰라도 유고는 最近에 와서 國際共産主義 運動에 積極 參與하는 경향이다. 즉 독자노선을 繼續 確固히 다져가면서도 社會主義 諸國간의 相互協力을 再促하는 國際主義를 繼續 내세우고 있다. 비근한 例로써 1976年 4月 유고共産黨 書記長 S. 돌란취 (Dolanc)는 스페인 共産黨의 S. 카릴로 (Carrillo), 이탈리아共産黨 지도위원 G. 파제타 (Pajetta), 프랑스共産黨 서기국원 G. 플리손니에 (Pli-sonnier) 등과 함께 벨그라드에서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諸問題」를 論議했는데 社會主義 國家間에 同等과 不干涉의 原則이 認定되지 않고서는 國際的 協同이 불가능함을 主張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세 사람도 역시 「一元化的 統一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과 내일엔 各 黨의 권리와 자주성의 尊重없이 統一이 있을 수 없다.²²⁾」는 일치된 견해를 피력했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世界共産主義속에서의 「유고슬라

註 22) Südosteuropa, 5/6/1976, s. 102 f.

비즘」 즉 「티토이즘」은 그 이론과 國家實際(staatspraxis) 面에서도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티토」없는 中立外交 西方側의 큰 支援없는 유고 經濟등을 가정해 보면, 저 나라의 내 일이 꼭 밝을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2. 루마니아의 民族共産主義

루마니아 共産黨의 권력구조에는 兩大山脈이 있었다. 그 하나는 戰時중에 蘇聯에 망명했던 모스크바파이고 다른 하나는 本國에서 내내 감옥생활을 한 소위 國內派이다. 즉 모든 것을 蘇聯의 地畧에 의거, 運營, 시행하려는 모스크바派와 자력으로 黨을 建設해 가려는 國內派는 國策 施行의 基本方針에 있어 当初부터 對立되어 있었다. 1950年 무렵에는 모스크바派의 파우켈, 루카, 게오르게스 크, 보도나라스 등 4인이 7인으로 구성된 政治國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게오르규 데지(Gheorghiu Dej)를 「보스」로 한 國內派와의 党内 암투가 퍼 심각했었다.²³⁾

그러나 이 무렵에 國內派에 유리한 外的 變化가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東歐全域에 번졌던 「反유대인 運動」이었다. 즉 1952年 11月 「체코」共産黨 서기장인 R. 슬란스키가 티토주의자라해서 처형당했는가 하면, 1953年 1月에는 크레믈린의 의사 9명이 蘇聯 軍部の 지도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소위 「醫師共謀事件」이 發生

註 23) 加藤雅彦 ; 上掲書 , p.90.

한 것이다.²⁴⁾ 그런데 同事件의 주동자가 모두 유태계라 해서 東歐 各處에서 「反유태 運動」이 일자 루마니아의 国内派에게는 모스크바派 去勢를 위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52年 5月 国内派가 파우켈파를 추방하고 주도권을 장악한 以來 루마니아는 非스탈린化 運動과 關係있이 줄곧 国内派가 이끄는 教條的 民族共産主義를 쫓고 있는 것이다.²⁵⁾

1965年 3月 G. 데지가 死去한 後 지금의 N. 초세스쿠(N. Ceausescu)가 루마니아共産党的 第1人者가 되어 있는 바, 초세스쿠는 과감한 實踐家로서 선임자 데지가 떠 놓은 루마니아의 자주노선을 더 힘지게 넓혀가며, 全世界에 民族共産主義의 「모델」을 과시하고 있다.²⁶⁾ 결국 루마니아가 이와 같이 일찌기 자주노선을 걸기 시작한 데는 모스크바派를 거세했고, 또 1958年 7月에 루마니아 주둔의 蘇聯軍이 철수함으로써 蘇聯의 干涉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큰 原因이 있다. 그러나 同要因 못지않게 더 중요한 다른 하나의 要因은 루마니아共産党이 戰後에 맨 먼저 착수한 것이 經濟建設을 위한 技術教育이었기 때문에 많은 技術者와 經濟專門家가 育成되어 저 나라의 급속한 經濟發展을 可能케 했다는 점이다. 즉 저들의 經濟發展이 다른 이웃들보다 순조로웠기 때문에 国民은 安定된 生活向上을 누리면서 줄곧 데지 政權을 支持했

註 24) 加藤雅産; 上掲書, p. 90.

25) M. Huber, Grundzüge der Geschichte Rumaniens (루마니아 史 概要), Darmstadt/1973, s. 144 f.

26) M. Huber, ebenda, s. 152.

던 것이다.²⁷⁾

루마니아가 어떻게 經濟建設을 행했는가를 보자.

하나의 東歐圈이라고는 하지만 工業建設의 바탕이 나라마다 모두 一率的일 수는 없는 것이다. 東獨이나 체코에 比하면 루마니아工業의 바탕이란 아주 貧弱하다.

大戰前 1930 年代의 루마니아의 工業人口는 불과 10.2 %밖에 되지 않았다.²⁸⁾ 이것은 저 나라가 거의 순수한 農業國임을 말해준다. 그러던 루마니아가 1951 年에서 1965 年까지 15 年에 걸쳐 工業生産의 平均成張率을 年間 13.3 %까지 올렸다는 것은 경이적인 發展「템포」가 아닐 수 없었다.²⁹⁾

1959 年에서 1965 年까지 工業生産 成張의 3/4 이 勞動生産性의 상승을 통해서 이룩된 것을 볼 때, 西方側으로 부터의 技術導入이 크게 作用했음은 말할나위 없거니와 이를 그토록 밀고 나간 루마니아인의 志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東獨이나 체코와는 달리 工業國의 바탕이 全無狀態였던 저 나라가 거의 無에서 出發하여 西方側의 技術과 最新型의 「플랜트」를 도입해서 거창한 工業化를 成功的으로 이끈 點은 루마니아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저 백성의 능력인 것이다. 1959 年에 始作된 6 個年計劃의 工業成長率은 年間 14.4 %인데, 이는 1956

註 27) 加藤雅彦 ; 上掲書, p. 95.

28) 加藤雅彦 ; 上掲書, p. 92.

29) H. Hobmann, Die Wirtschaft Osteuropas zu Beginn der 70er Jahre (1970 年代의 東歐經濟), Stuttgart/1972, s. 205.

년의 工業生産의 2.24 배요, 戰爭前 1938 年の 9.5 배였다.³⁰⁾

1966 年に 始作된 第 3 次 5 個年 計劃도 11.6 %라는 年間 成長率을 보였다.³¹⁾ 그리고 또 다른 한편 1970 年の 國民所得 은 1959 年に 것보다 60 %가 늘었고, 또 實質的인 임금은 36 %가 增加되었다.³²⁾

重工業에 重點을 둔 工業化라는 面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經濟는 비약적으로 發展한 것이 사실이지만, 農業을 中心으로 본다면 이 나라의 내일이 꼭 밝지는 않다. 앞에서도 이미 論한 바, 있지만, 戰爭前의 이 나라는 人口의 8 割이 農業에 종사한 전통적인 農業国이다.

토양도 비옥할 뿐더러 天候도 農業에 알맞는 地域이라서 옛부터 穀物과 農作物의 輸出国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重工業 建設에만 치중한 나머지 農業을 등한히했기 때문에 그 生産性이 工業生産의 成長率에 비해 아주 낮다.

예컨대 1968 年の 이 나라 工業生産은 戰爭前의 14 倍인데 반해 農業生産은 불과 1.8 倍밖에 되지 않았다.³³⁾

勿論 農業技術의 發展도 戰爭前에 비해 전혀 없는 편은 아니었다. 소위 農業의 機械化 政策에 의해서 「트렉터」를 비롯한

註 30) H.Hohmann, ebenda, 205.

31) H.Hohmann, ebenda, s. 205 u. 212.

32) H.Hohmann, ebenda, s. 213.

33) H.Hohmann, ebenda, s. 213.

諸 農機構가 모두 國產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지난 1963年 같은 해엔 東歐共產國家가 거의 「카나다」의 穀物을 大量 輸入했는데도 루마니아만은 오히려 蘇聯에 40 만톤을 輸出했었다.³⁴⁾

다만 이 나라의 農業은 東獨, 체코, 헝가리에 比하면 天堯조건의 惠擇을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灌溉事業에 뒤져 있고, 또 다른 工業 分野보다 덜 권장되어 있다는 것 뿐이다.

1970年의 봄 도나우江의 大洪水로 因해 큰 피해를 입었던 事實들은 저 나라 灌溉사업의 未成함을 입증하는 좋은 例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다른 분야보다 農業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農業投資를 서두리지 않으면 안되는 形편이다. 그러나 最新의 技術「플랜트」등을 西方에서 大量 輸入할 수 있는 外貨 事情이 餘의치 않은 것이 큰 弱점이다.

그러나 低調한 농업생산면을 제외하고는 重工業이나 其他産業 部門 部門은 比較的 순조로운 發展을 보이고 있다.

蘇聯을 除外한 유럽 第2의 石油產出国인 이 나라는 豊富한 石油資源에서 化學工業을 비약 發展시켰다.

「게 오르규데지」의 石油化學工場 「푸로에시다」의 精유공장, 「크라요바」의 비료공장, 「사비네디」의 化學纖維工場등이 저 나라 化學工業의 代表的인 企業들이다.³⁵⁾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

註 34) H. Siegent, Rumanien heute (오늘의 루마니아), Wien / 1966, s. 36 f.

35) H. Siegent, ebenda, s. 246 ff.

70년에 完工하여 年間 7百萬톤을 生産하는 「가라자」製鐵工場도 빼놓을 수 없는 大企業이며, 71년부터 5個年計劃에 들어가 있는 電子工業(「오토메이션」과 「컴퓨터」관리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도 크게 期待되는 産業이다.³⁶⁾

루마니아 國策의 方向을 평가해 보자.

中.蘇紛爭을 利用해서 루마니아가 그 독자노선을 펴간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政策路線의 內역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中.蘇紛爭의 발단은 平和共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두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6年 第20次 蘇聯共産党大會에서 平和共存論과 더불어 스탈린 格下運動이 始作되던 때부터 共産權 内部에 「지도권 紛爭」이 싹텄다. 그後 60年 6月 第3次 루마니아共産党大會에 外賓으로 參席한 中.蘇代表들은 그 자리를 빌어 상호비난의 砲門을 연 바 있다.

즉 蘇聯 代表인 후르시초프가 「中国人은 近代戰爭의 的의를 모르는 超教條主義者」라고 비난한데 이어, 中共 代表였던 彭眞 北京시장은 「中国人은 抗日戰과 韓國戰爭을 通해서 近代戰의 實상을 世界의 어느 國民보다도 잘 체험한 國民³⁷⁾」라고 응수함으로써 루마니아의 同大會가 수라장화 했었다. 이리하여 공개화된

註 36) H. Siegert, ebenda, s. 246 ff.

37) C. Sporea, Der Dritte Kongreß der Rumanischen Kp., in: OSTEURORA, 11/12/1960, s. 811.

中.蘇紛爭은 同年 11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 共產黨 大會에
로 이어졌는데, 中共代表 鄧小平서기가 「世界 共產黨的 指導的 黨
인 蘇聯共產黨的 存在는 認定한다.

그러나 黨關係에 있어서 소수가 多數를 좇으라고 強要하는 것
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各國의 黨은 各自 獨立的이기 때문이다.³⁸⁾」라는 反蘇연설을 하므로써 中.蘇紛爭은 거듭 公同연해졌다.

中.蘇의 對立이 이같이 심각해지자 루마니아는 양대국의 干涉
을 피하기 위해 中立을 지키면서 1963年初부터 間接적인 對中
共 接觸을 시도했다. 즉 1963年에 3월에 루마니아는 中共의
우방이었던 알바니아에 使사를 파견했고, 또 同年 5月에는 中共
과 새로이 貿易協定을 締結한 것이다.³⁹⁾

그리고 同年 6月 東獨의 울브리히트 70回 生日을 계기로 열
린 동구수뇌회담에도 루마니아의 G. 데지 제 1서기는 불참했었다.⁴⁰⁾

또 同年 7月 中.蘇紛爭에 관한 中共側의 海명서인 「25個項
項」을 다른 東歐諸國은 蘇聯의 指令에 의해 公同하지 못했으나
루마니아만은 그 全文을 자국의 新聞에 發表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1964年 3月에는 中.蘇對立의 化解를 중재하기 위
해 루마니아 代表團이 北京을 訪問했는가 하면, 그後 中共의

註 38) K. Mehnert, Peking und Moskan (北平和 모스크바), in:
OSTEUROPA, 11/12/1960, S. S. 733 f.

39) Rumanien (Mai-Ort, 1963) in Chronik, in: OSTEUROPA, 6/
1964, s. 469.

40) 加藤雅彦, 上掲書, p. 101.

「문화大革命」에 대해서도 루마니아는 내정불간섭의 原則을 내세워 철저한 中立을 지켰었다.⁴¹⁾

1969年 6月 모스크바의 世界共産黨大會에서도 中共을 國際共産主義 運動에서 추방하고, 蘇聯의 주도권을 確立하려는 분위기가 造成되자 루마니아는 同회의 開催自體를 反對했는가 하면, 68年의 「체코 강점」以後에도 루마니아는 蘇聯의 위壓적인 態度에 굴하지 않고 蘇聯의 中共비난을 反對하는 態度를 취했다.⁴²⁾

루마니아의 이같은 態度는 결국 양대국의 분규에 말려들지 않은 채 共産主義에로의 독자노선을 펴서 소위 民主共産主義적인 福祉國家를 建設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 나라는 平和共存속의 社會主義的 國民國家 建設이 可能한가를 위해 주시해 불만한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民族共産主義的 實態를 보자.

中. 蘇對立에는 中立을 견지하면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西方과의 交流를 점차 더 활발히 했다는 것은 루마니아의 国力이요, 國策의 方向인 것이다. 東歐體制가 嚴存하는 상황에서, 東블럭의 1개소국인 이 나라가 69年 8月에

註 41) Vgl. H. König, Rumaniens Standort in der kommunistischen Weltbewegung (世界共産主義 運動에 있어서 루마니아의 위치), in: OSTEUROPA, 2/1970, s. 83 und in: Osteuropa, 7/1972, S. A 469.

42) Ceausescu: Kein leitendes Zentrum nötig (지도적 중심부는 불필요하다), in: OSTEUROPA, 2/1970, S. A76.

니슨大統領을 초치하여 거국적인 환대를 한 것 등은 世界人의
耳目을 끈 거창한 일이었다. 64年4月이래 이 나라는 한 民族
國家의 권리를 宣言하고 꾸준히 독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택한 이 나라 백성의 底力과 꿈이 무엇인가를 밝혀보자.

이 運動이 추진되고 있는 要因中 첫째는 아마 (라틴)民族이라
는 民族意識이 강하게 作用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63年 以後
이 나라의 「非러시아化 運動」은 표면화해서 러시아語와 그 文學
研究機關인 「막심 고르기 研究所」를 부카레스트大學의 「슬라브」
문학과로 폐합했고, 또 第1外國語를 露語대신 仏語로 교체한 것등
은 「슬라브」계의 지적, 精神的 影響을 배제한다는 實證인 것이다.⁴³⁾

그리고 루마니아의 관리들이 「民族의식은 이데올로기에 先行한
다.⁴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나 또는 蘇聯, 체
코, 폴란드는 西方貿易을 行하면서 왜 여타의 나라들은 서방교역을
못하느냐는 不平을 크게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저들이 슬라
브族과 친근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⁴⁵⁾

둘째는 비야적인 經濟建設을 위해서는 西方接近만이 그 지름길이
라고 본 실리추구 政策이다. 루마니아가 「코메콘」을 이탈한 後
에도 繼續 그 工業을 확장할 수 있던 것은 말할 나위없이 西方
과의 技術制携의 交역에서 얻은 成果가 컸기 때문이다.

註 43) H. Siegert, ebenda, s. 104 ff.

44) 加藤雅彦; 上掲書, p. 103.

45) 加藤雅彦; 上掲書, p. 104.

세째는 教條的 社會主義를 民族의 主體에 입각해서 實現하겠다는 點이다. 즉, 체코와 같은 改革的인 方向도 아니요, 유고와 같은 改革的이며 變환을 전제로한 社會主義도 아니고 다만 民族의 실리를 쫓아 東西外交만을 신축성있게 구사하겠다는 正統派 社會主義에의 定向인 것이다. 즉, 理念的인 面에서 볼 때 루마니아의 독자노선이란 反蘇的이었던 「헝가리의거」나 「프라하의 봄」과 같은 자유화 경향과는 全然 無關한 것이다. 국경을 같이 하는 이웃인데도 蘇聯의 對루마니아政策이 관용적인 이유는 바로 루마니아의 理念路線이 전통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체코 강점」이후에도 루마니아는 바르샤바조약軍의 루마니아에서의 연습을 끝내 저지시킨 반면에 76年 7月 對소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재체결을 관철시켰다. 이것은 결국 초세스쿠의 신축성있는 外交가 아직까지는 成功的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위와 같은 民族 위주의 政策을 루마니아는 理論的으로도 合理化하고 있다.

지난 76年 4月 루마니아의 (Vuma)誌가 「民族의 存続과 國際主義의 眞意」라는 테마를 다룬 論說을 보면, 共產권의 理論家들이 一般的으로 國民國家 發展을 부정하고 있지만, 勞動階級이 통치하는 社會秩序속에선 한 民族이 均等한 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는 立場에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나 國民國家的 發展이 결코

國際主義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⁴⁶⁾

自由의 概念에 對해서도 그들은 獨特한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 76年2月 초세스쿠가 유고의 (Delo)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自由의 概念을 보면, 「오늘날 自由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不平等政治나 獨裁政治를 배제하고 民族의 獨立을 지속, 또는 實現 하려는 諸 民族의 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經濟的 不均衡을 제거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식민政治를 폐지시키고, 諸 國家間的 평등한 關係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⁴⁷⁾」라고 말했었다.

「진보는 전통에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없이 는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가 덧붙인 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다.

3. 체코의 중단된 인도적 社會主義

1968年8月 「바르샤바조약군」의 무력개입이 있기 전까지 東歐圈에서 모두 체코를 가리켜 社會主義의 모범國家라고 했다.

체코가 東歐의 여타국으로부터 그러한 평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다.

註 46) Patriotismus-Internationalismus,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4/1976, S. 76 f.

47) Was ist Freiheit? (자유란 무엇이나?), in: WD, SÜDOST-EUROPA, H. 3/1976, S. 62f.

첫째, 체코는 蘇聯의 忠實한 위성국이라는 點이고, 둘째는 社會主義的인 經濟建設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比較的 높은 國民의 生活水準을 유지했다는 點이며, 셋째는 黨과 政府에 對한 國民의 不安 및 반감을 적절히 抑制, 무마해서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은 民중봉기가 없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세 가지 이유로서 체코는 共產圈의 우등생이라는 칭찬을 받아가며 보수적인 國家發展을 繼續 유지했었다.

종전에도 있었던 체코의 共產化 과정을 보더라도 東歐의 여타 國家와는 그 方法이 달랐다. 대개의 나라에선 주둔 蘇聯軍의 무력에 의해 거의 정권을 탈취하는 식으로 共產化가 추진되었지만 체코에서만은 그렇지 않았다. 즉, 그들은 소위 民主的 方法으로 정권교체를 可能토록 조종해서 정권을 이양받았던 것이다. 46年 5月の 第1次 總選舉에서 36%의 支持를 얻어 第1黨이 되었고 26名의 各료中 9名이 黨員으로서 이들이 각기 요직을 點하므로써 체코는 점차 親蘇경향에 들어선 것이다.⁴⁸⁾

47年 6月 체코政府는 파리에서 열린 「유럽 復舊計劃」(마살 플랜)의 회합에 參與코져 했으나 스탈린의 불찬성때문에 斷念해야만 했고 또 佻 체코 원조조약의 再締結도 포기해야만 했다.⁴⁹⁾

체코의 政治가 이같이 左傾化할 때 체코共産黨에겐 無血革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었다. 즉 48年 2月 共産黨이 프라하

註 48) 梅田良忠編, 東歐史, 1963, p.394.

49) 梅田良忠, 上掲書, p.428.

의 秘密警察 간부를 增員, 진보하자 12 人의 非黨員閣僚들이 世論에 호소하고 동조치를 저지할 目的으로 모두 一括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때에 고트발트수상은 베네쉬大統領에게 壓力을 가하여 모두 사표를 수리시키고 全閣僚를 黨員出身으로 경찰시킨 것이다.⁵⁰⁾

이리하여 구출된 共産黨정권은 56 年以後의 非「스탈린」化 運動에도 거의 동요하지 않은 채 63 年 무렵까지 社會主義 建設의 保守路線을 繼續 지켜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는 繼續 國家發展의 保守策만을 견지하고 있느냐는 問題가 야기된다. 그것은 한마 로 말하면 獨立意識이 強한 슬로바키아人的 反발을 抑制 무마하기 爲해서는 一黨 中心의 中央集權主義를 보강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妙策이었기 때문이다.⁵¹⁾

68 年 1 月 노보트니에 뒤이어 슬로바키아 出身의 두브체코가 黨 第 1 書記였고, 또 지금도 후사크(슬로바키아계)가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은 슬로바키아의 이탈을 막자는 民族政策的인 배려에서 이다.

1969 年 체코는 親憲法을 制定 공포하여 「체코슬로바키아 社會主義 共和國」이라고 소위 국호를 改稱했다. 그 이유는 東歐

註 50) 梅田良忠, 上掲書, p.429.

51)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18 年의 共和國樹立時에 人爲的으로 병합되었다. 言語, 風習이 모두 다른 두부분은 歷史的인 異質性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反目は 지금도 지속되고있다.

圈에서 그들이 蘇聯에 뒤이어 두번째로 社會主義 建設을 成功的으로 이끌었다는 自負인 同時에 共產圈의 우등생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自負와는 달리 60年代 初부터 체코經濟의 침체경향이 표면화되기 始作했으니 이것이 바로 計劃經濟 體制의 취약點인 同時에 自由化물결을 일게한 轉機였다.

計劃經濟下의 경기불황을 克服하기 위해 市場定着的 社會主義를 들고 나왔던 체코의 實態를 추적해 보자.

奧匈帝國 보헤미아 王國시절에 이미 工業化를 이룩해 놓은 나라인지라 체코는 兩次大戰을 겪은 후에도 의연히 東歐第一의 工業國이었다. 그 위에 또 戰後의 公산정권이 슬로바키아를 中心으로 重工業政策을 썼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地方에 기간산업이 확충되므로써 「체코슬로바키아」의 公산업은 제법 平衡을 이루고 있었다. 總人口 1千4百여만에 12萬8千명방킬로(西獨의 약 半)의 小國이면서도 체코의 工業生産量은 1960年 現在 每人당 아래와 같은 比率을 보였다.

鐵鋼생산고가 世界 第6位요, 石炭은 第9位, 炭은 第2位, 「에너지」消費量은 第3位, 機械「플랜트」輸出庫는 第8位라는 순위이다.⁵²⁾ 이렇던 체코의 工業生産이 60年 初부터는 低調를 보이면서 製品의 質도 저하되었었다.

註 52) Vgl. H. Hohmann, a. a. o., s. 124.

工業 成長率이 60 年の 12 %에서 61 年の 8.9 %, 62 年の 6.1 %, 63 年の 2.2 %로 떨어졌었다.⁵³⁾

또 輸出面을 보아도 60 年에서 63 年에 걸친 4 年동안의 수출 상품고는 불과 34 億이었고 또 다른 한편 農業도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⁵⁴⁾

이와 같은 체코의 經濟不況을 보고 西方側의 言論이 計劃經濟 體制의 취약점을 지적, 비판하게 되자, 체코 國內에서도 많은 經濟 專門家들이 그 改革案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프라하工大의 經濟學 者인 세룩키 (R. Selucky) 씨가 「計劃은 어디까지나 社會發展을 促進시키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自己的化해서는 안된다」라고 主張하고 「個人崇拜」와 「計劃崇拜」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⁵⁵⁾ 그에 뒤이어 「레부르」 (H. Lefebvre) 교수는 計劃經濟 란 저개발국이 經濟實態나 그 적용이 可能的 것이지, 체코와 같은 높은 水準의 工業국에는 同經濟體制의 存立이 不必要하다는 소위 「체제 無用論」을 내세웠다.⁵⁶⁾

그리고 또 오타 시크 (Ota Sik) 같은 유명한 經濟學者는 소위

註 53) H. Hohmann, a. a. o., s. 125.

54) R. Selucky, Reformmodell CSSR-Entwurf einer Sozialistischen Marktwirtschaft oder Gefahr für die Volksdemokratien, (체코의 改革모델 - 社會主義的 市場經濟制度나, 人民民主主義의 위험이나), Hamburg/1969, s. 31

55) R. Selucky, ebenda, s. 44.

56) W. Leonhard, Die Dreispaltung des Marxismus, Düsseldorf /1970, s. 394.

(市場定着的 社會主義) (Marktorientierter Sozialismus.)

論을 펴서 마침내 「프라하의 봄」을 유도하는 先覺者役을 했다.⁵⁷⁾

그리하여 이와 같이 經濟分野에서 始作된 체코의 自由化는 이 때까지 東歐諸國에 그 類例가 없는 大規模의 것으로 擴大되어 마침내 政治 및 理念의 自由化에 까지 번져갔다. 이러한 自由化運動을 66年の 체코人들은 종래 社會主義의 모델이 아닌

「人道的 社會主義」에로의 체코改革路線이라고 공언했던 것이다.⁵⁸⁾

改革政策을 통해서 經濟危機를 克服하려던 체코共産黨 주리는 오타 시크교수의 改革案을 받아들였다. 즉, 「시크」案에 따라 計劃經濟를 基本的으로 수정한 新經濟政策이 66年5月の 第13次 黨大會에서 採擇되자 보수적인 黨간부들은 궁지에 빠지고 그대신 經濟學者들은 中心으로한 「리버럴」한 改革派가 得勢하게 되었다.

黨의 권력構造에 이와 같은 변동이 일자 作家와 知識人 그리고 學生들도 自由化 要求를 들고 나오기 始作했다. 그리하여 67년에는 作家同盟에 대해 彈壓이 가해지자 프라하의 大學生이 데 모를 벌리기도 했다.

사태가 이같이 惡化되어갈 때 노보트니 第1書記를 蘇聯의 支援을 구했으나 蘇聯의 態度는 吾不關焉이었다. 宗主國의 內政

註 57) D.E.Viney, Der Demokratisierungsprozess in der Tschechoslowakei (체코의 民主化過程), in:EUROPA ARCHIV, 12/1968, s.424 f.

58) F.Beer, Die Zukunft funktioniert noch nicht (미래는 아직도 예측을 不許한다.), Frankfurt / 1969, s.277 f.

不干涉 態度를 보지하여 10人으로 構成된 中央委 간부회의 過半數는 노브토니를 해임케하고 두브체크를 선출하는데 찬성했다.

그리하여 두브체크의 등장을 계기로 「프라하의 봄」은 시작되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지만 체코의 自由化가 무엇을 要求했는가는 68年 4月 체코共産黨이 發表한 「行動綱領」과 同年 6月の 文人들이 내놓은 「2천語宣」이 잘 입증해 준다.

同綱領의 내역을 보면 체코가 지닌 諸與件에서 출발한 自由로운 삶에로의 欲求가 여실히 드러난다. 黨의 지도적 役割이란 獨점적 權력의 掌握만이 아니라는것, 黨의 目的이 非黨員을 차별 대우하면서 온天下를 지배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 市民民主主義가 獨점하고 있는 諸自由는 보르좌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 등 모두 自由生活을 갈구하는 高貴한 内容이다.⁵⁹⁾

그들은 또한 共産主義에로의 途程에서 위와 같은 諸自由를 依法保障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다짐했다.

집회나 결사의 自由를 보장하고, 重要 결의는 여론에 準하여 行할 것이며 外國新聞의 주입과 판매를 許容하고 黨高位層은 정기적으로 記者會見을 갖고 時事問題의 언급에는 「매스미디어」를 利用한다는 것 등, 종래의 共産社會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自由를 國民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⁶⁰⁾

註 59) H. Brahm, Der Kreml und die CSSR 1968-69 (크레믈린과 체코 1968-69), Stuttgart/1970, s. 19 f.

60) H. Brahm, ebenda, s. 21.

그리고 또 憲法에 規制되어 있는 出入國 管理法를 개정해서라도 市民의 自由로운 出入國과 外國에서의 長期체류 및 常住등은 法的으로 보장하겠다는 것도 다짐하고 있다.⁶¹⁾

同行動綱領에 뒤이어 나온 文人들의 「2천語 宣言」은 「行動綱領」보다 훨씬 急進的인 것이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宗主國 蘇聯에 對한 挑戰文書같기도 했다. 예컨대 黨의 권력을 남용하며 不正을 行하는 者에 對해서는 公公연한 批判과 데모와 스트라이크등의 方法으로라도 항의하자는 호소는 분명히 共産黨의 독재를 증오하는 표현이었다.⁶²⁾ 그리고 “外勢가 우리 內政을 干涉할 때 우리는 무기를 손에 들고서라도 우리 政府를 支持하겠다”라고 하고 있다.⁶³⁾

이 과격한 表現을 그들의 反蘇感情을 분명히 노골적으로 表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코의 事態進展이 이같이 심각해지자 蘇聯수노들은 「티르나」(Vcierna)와 「부라디슬라바」(Bratislava)의 두 會談을 거쳐 무력지지를 결의했다.⁶⁴⁾

自由化 支持를 위한 軍事개입을 에워싸고 蘇聯수뇌부에도 적지 않은 贊反이 있었다는 것이 近来에 조금 밝혀졌다.⁶⁵⁾

註 61) H. Brahm, ebenda, s. 21.

62) H. Brahm, ebenda, s. 35.

63) H. Brahm, ebenda, s. 36.

64) H. Brahm, ebenda, s. 53f.

65) Osteuropa, 3/1977, s. A 182.

고위층의 상당수가 군사개입을 反對하는데도 蘇聯이 체코를 強點한 것은 체코의 공산권 이탈을 阻止하는 것이 東블력의 協力體制를 공고화하는 契機일 뿐더러 나아가선 이것이 또한 緊張緩和속의 東西 力關係를 平衡하는 「리얼 폴리틱」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人道的 社會主義에로의 自由화가 무력으로 阻止되고 난후, 체코의 指導體制는 후사크를 위시한 新스탈린主義者(「노보트의 治下에서의 보수派 불평분자」)들로 全面 改編되었다. 즉, 후사크體制란 親蘇的 보수체제로서 蘇聯의 干渉와 調整이 容易하게 具사될 수 있는 소위 半植民, 半自治的 過渡體制라고 할 수 있다.

69年·70年 두 해에 걸쳐 各界의 숙청이 거듭되면서 후사크體制가 굳어져 갈 때 「프라하」의 學生들은 「Sorry Tony」라는 밧지를 달고 다니며 노보토니時節에의 향수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리는 「날짐승을 싫어한다」라는 弄談으로 후사크를 조롱(Husak란 名詞의 뜻은 「오리」임)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共產主義라는 理念 自體보다도 外세干渉와 外軍통치의 侍女役을 맡은 후사크體制에 얼마나 敵意를 품고 冷笑하는가를 알 수 있다.

68年의 봄 두브체크 영도하에 체코의 民主化가 進展될 때에도 그들 청년학생들은 그 自由化가 바로 西歐化이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두브체크가 뜻한대로 「人間에게 自由가 許容되는 改革된 新社會主義」를 원했던 것이다.⁶⁶⁾

註 66) D.E.Viney, a. a. o., S. 438.

世界史의 各章을 보면 한 國民의 열망과 그 정신사조가 機構外制度라는 外的 속박에 의해서 發展을 阻止당하다가도 언젠가는 그 軛轡를 초극하고, 흔히 그 「콘티뉴이티」 즉, 지속의 원리를 되 찾더라는 歷史의 教訓이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始作된 運動이 때로는 鮮明하게, 때로는 不透明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變化를 向해서 繼續되는 것이 通例이다.

체코의 自由化도 平和를 그리는 現代人の 本能的 要求와 産業社會의 構造變化에 따른 「도그마티즘」의 脫皮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저 運動은 필히 언젠가는 内部的 體制變動, 外部의 分열과정 (共産世界의 3分5裂 경향을 뜻함) 등을 통해 또 다시 鮮明하게 드러나리라고 본다. 아래의 글은 自由化의 모택 불이 아직도 체코 各家庭의 아궁이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준다.

1970年 國家 反役罪로 법정공판을 받은 자중의 한 사람인 오타 피립 (Ota Filip) 씨가 「8.21 強點」後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 체코의 知識人 상황을 풀이한 內容이다. 同해설 內容은 68年 10月 25日 西獨의 「브레멘」 (Bremen) 라디오 放送에 보도되었다. 「지금 우리들중의 대부분은 軛轡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주 「죽어 버린 침

목」은 아닌 것입니다. 라디오 경청자 여러분! 우리의 이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나라 文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체코異端者의 위대한 傳統에 이어지는 우리의 이 소리를 여러분은 듣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放送에서 합창단이나 稱頌의 노래가 흘러 나오면 우리들은 그것을 따라 부르지 않고 다만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異端者를 가지고 있는 限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

「프라하의 봄」이 사라진지도 벌써 10年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후사크(Husak)하의 체코 政治는 改革의 면모가 깨끗이 씻어지고 親蘇的인 舊 體制로 환원하여 諸發展의 템포가 아주 느린, 아니 거의 침체적인 小康狀態를 유지해 오고 있다.

中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루마니아의 自由路線을 비방했고, 티토의 크로아치아 彈壓에는 찬사를 보냈고 西獨과의 「38年 윈헨 協定」의 無効化協相에선 独自の인 態度를 취했다. 勿論 蘇聯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은 채 그의 권좌를 굳히려는 후사크에게도 고충이 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지금의 國民 여론을 보면 체코를 強點했던 蘇聯에게 체코의 混亂을 수습해 주었다 해서 感謝를 표했던 事實, 두브체크를 배신한 점, 市民的 自由를 不信한 점등 때문에 그는 지금 좋은 評을 못받고 있다.

近來에 西方側 資料가 證하는 바에 의하면 昨今の 체코 經濟가 比較的 安定세를 찾았다고 되어 있지만, 最近의 체코 新聞

은 經營狀態의 不進, 生產品의 品質底下, 재고품의 增加, 建築業의 混亂, 경제사범의 檢증 등을 가끔 보도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이 報道는 위와 같은 침체된 經濟現象이 蘇聯을 시범으로 삼은 中央集權의 관료적 지도체제에로 復歸한 데서 왔다는 말만은 시종 침묵하고 있다.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후사크는 자주外交의 幅을 넓혔다는 듯이 東歐 諸國과의 關係 정상화는 勿論 西獨과의 關係 개선, 對日 交易 增大, 싱가포르의 國交樹立 등을 이룩했지만, 주요한 外交決定은 지금도 宗主國인 蘇聯과의 협의하에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⁸⁾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自由精神은 지금도 嚴存해 있고 또 그들의 「프라하의 봄」에 對한 향수는 대단하지만, 政治가 許容하는 制度的 自由없이 그들의 自由精神이 발현되기는 어려운 現實이다.

4. Eurocommunism에 對한 東歐圈의 反響

가. 유고와 Eurocommunism

유고共産黨의 指導的 理論家인 에르와드 카르델리 (Edvard Kardelj)씨는 사라예보에서 발간되는 철학 및 社會理論誌「對話 (Dialog)」와의 인터뷰에서 유럽共産主義를 아래와 같이 論評했다. 革命的인 社會主義的 發展過程 및 發生에 對한 전제라는

註 67) Osteuropa, 11/1975, S.A 571.

68) Osteuropa, 5/1975, s. 349 f.

제목으로 그는 그의 소견을 밝혔는데, 유럽이 블랙화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現政勢下에서 西部유럽 여러나라의 勞動運動은 예전에 비해서 온전히 새로운 상황에 直面하고 있다. 유럽各國의 勞動階級은 그들 자기 社會의 부르주아 및 反動勢力에 直面해 있을 뿐만 아니라 完璧한 블랙政策 및 군사체제와도 對立되어 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社會主義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투쟁 방식이 재래의 形態로써는 成果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 있다.

西歐의 여러 共產黨은 지금 현실로부터 억눌린 진리를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 블랙화한 상황을 촉진시키려는 民族勢力을 繼續 保有하고자 한다면, 그는 對立된 東西블력을 現實로써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⁶⁹⁾

카르멜리는 이러한 그의 관점을 거듭 자세히 밝혔는데 西歐 共產黨들은 블랙 반목의 무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들 民族의 自立的인 主體이어야 한다고 한다. 즉 그들이 자기 独立的인 길을 걷되 이 獨自路線은 西歐 社會主義 發展에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카르멜리는 유고같은 나라가 西歐 共產黨과 항상 그 관점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해명했다. 즉 유고처럼 西歐 諸國도 特異한 상황, 관심 및 투쟁 可能性에 입각해서 그들의 관

註 69) Eurokommunismus aus jugoslawischer Sicht (유고가 보는 유럽 共產主義),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4/1977, s. 111.

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各個는 特異한 關心을 보편 타당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 本質的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다른 나라의 觀點을 Dogma로써 맹신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西歐 共産黨은 그 어느 하나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설령 시도한다면 그것은 同運動의 本質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카르멜리의 견해로는 市民 民主主義 政治制度下에서 투쟁을 繼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復數 政黨制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카르멜리는 “ 社會主義的 實際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論學 ” 라는 討論에서 「 定着化 」 問題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各國 政策의 定着化는 참된 社會主義의 繼續 發展을 위해서 아주 重要하며 이것은 또한 東西間의 理念紛爭에 있어서도 特異한 役割을 할 수 있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西歐 共産黨들이 獨立路線을 거닐려하고 또 블럭體制에 얽매이지 않은 채 獨自的으로 階級투쟁을 감행하려 한다면 그들은 各國의 社會體制內에서 투쟁을 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본다.

카르멜리는 유럽 共産主義를 勞動者 運動의 歷史過程에서 발생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있다. 마르크스의 창조적인 理念的 教條主義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路線을 찾은 것이며 유럽 여러나라의 勞動者 階級은 이 노선에 따라 모든 進歩的인 民主的인 勢力과 유대되어 불럭없는 하나의 유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금 한동안 그들 路線이 그 定着化過程에서 不分明하고 동요되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現象이지 社會的인 的의를 論할 때 그것이 本質的인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本質的인 것이 아닌 限 이 運動은 어디까지나 社會的 進歩를 에워싼 투쟁과정에서 獨自的인 勢力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이는 社會主義的 실제 (Praxis)과정 그 自體뿐이라는 것이다.

勿論 이 運動에 있어서 社會經濟制度는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에 있어 그 發展的 諸問題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의 國家資本主義的 發展面에서 내세워진 교리가 실제로 우대되면 그것이 社會主義的 실제의 民主化를 위해서 하나의 거센 장애물이 될것 事實이다. 西歐 여러나라에 있어서 國家 資本主義的 「콘째른」이 社會主義 發展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 '階級의 社會的 地位를 直接的으로 變化시킨 것도 아니며, 또한 그들의 民主的 권리를 擴大해 준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 결국 카르델리의 견해는 유럽 共產主義가 市民的 民主社會의 여건하에서 社會主義의 길을擇한 이상 불원한 장래에 現代社會主義의 社會經濟的 諸問題를 타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있다.

카르델리는 위와 같은 인터뷰의 지상討論을 통해서 유고슬로비아의 社會主義的 자치행정에 對해서도 言及하면서 특권 政党的

주도권 要求를 批判하기도 했다.⁷⁰⁾

社會主義的 自治行政이란 다만, 社會主義 發展의 한 形態이며, 한 國民으로써 社會主義的 실제의 發展에 있어 새로운 社會的인 文化的인, 民主的인 그리고 인도적인 將來를 내다 본 것이라고 했다.⁷¹⁾ 그리고 유고社會는 그들이 지금까지 達成한 것에 對해 自負하고 있고, 또 이 達成한 것을 잘 보위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르멜리는 유고의 自治行政이 社會主義 建設의 唯一한 모 델으로써 現時點에서 모든 나라의 상황과 합치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世界社會主義(Weltsozialismus)를 위해서는 社會主義的 發展 過程에 있어 現在의 社會體制에 對한 民主的이고 批判的인 對話가 아주 요긴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現在의 狀況은 많은 社會主義國家가 자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對話를 必要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 相互關係를 위해서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對話를 抑壓하는 것은 國際的인 壓力인데 이는 繼續的인 危脅이나 또는 여러가지 관여形態로서 취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These나 特殊狀況에 對한 分析의 諸論學를 규명하는 建設的인 對話는 어디까지나 理論的이고 科學的인 선에서 行해져야 함을 主張한다. 특히 社會主義의 繼續

註 70) SÜDOSTEUROPA, H. 4/1977, s. 111.

71) SÜDOSTEUROPA, H. 4/1977, s. 112.

發展을 爲해서 아주 긴요한 것은 동로국가들을 일깨워주는 問題라고 보고 있다. 하나의 그러한 對話없이는 그들 相互間에 왜 社會主義的인 실제형태가 각기 다른가 하는 點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對話없이 왜 中蘇間에 紛爭이 생겼고, 왜 스탈린과 우리들 유고인이 對立되었던가도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發展의 실제에 있어서 差異와 모순 그리고 次元인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主義的으로 入론되어야 한다. 그러한 對話를 못하도록 抑壓해서 政治的 모순이나 政治的 分규를 造장하려 든다면 이러한 諸問題의 마르크스主義的인 海명은 어려워 진다고 한다.⁷²⁾

유고는 유럽共産主義에 對해 76年 7月以後 여러차례 論評했는 바, 카르멜리의 위와 같은 인터뷰外에도 最近에 유고가 밝힌 그의 立場을 몇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비근한 例로써, 77年 2月 14日 유고共産黨 中央委員인 알렉산더 그를리코브(Dr. Alexandar Grlickov) 박사는 國際共産主義의 運動이 變形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고일간지 「보르바(BORBA)」를 通해 發表했던 바 그 요지는 一元的 統一이 多樣性的 統一으로 轉換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³⁾ 그에 依하면 多樣성을

註 72) SÜDOSTEUROPA, H.4/1977, s.112.

73) Monolithische 「Einheit durch Einheit in Vielfalt ersetzen (一元化統一은 多樣性的 統一로 代替되어야 한다.)」 in: Sonderlieferung der MONTOR-REDAKTION der dt. Welle-Eurokommunismus 1, Köln, Mai/1977, s.39.

通한 統一의 問題는 社會主義國家 相互關係의 構造와 制度, 주권 및 내정의 相互 不干渉, 각기 國民과 勞動者 階級에 對한 책임問題等에 關聯된다고 한다. 즉 一般的인 統一的 政治路線의 各기의 民族的,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條件에 一致되는 政治路線으로 轉換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國際的 規念에 입각한 民主的인 中央集觀主義는 各기의 利益을 爲해서 各국 共產黨의 책임하에 遂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問題에 對한 對話만이 共產主義的 勞動者 運動의 실리적 發展을 위한 것이며, 同時에 그 推進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를리코브의 지론이다.⁷⁴⁾

그는 또한 國際共產主義의 運動이 根本적으로 變換되는 데는 거의 4 반세기 동안 存続해온 一元的 國際共產主義 機構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기구는 個個의 民族的인 獨立的인 勞動黨을 통해서 그리고 各國의 여건에 알맞는 자주적인 民族의 政治路線으로 轉換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⁷⁵⁾

그를리코브는 그가 쓴 論說의 大部分을 유고의 對蘇聯 關係에 對한 1955年의 「벨그라드宣言」에 對해 言及했었다.

이 벨그라드 宣言의 原則은 유고共產主義者 同盟과 蘇聯共產黨과의 關係가 1958年의 「모스크바 宣言」에 依해서 認定되었음을

註 74) Eurokommunismus I, in: Monitor Bericht, ebenda, s.39.

75) Eurokommunismus I, ebenda, s.40.

밝힌 것이었다.⁷⁶⁾ 이 두 宣言의 방정文書는 共產主義 勞動黨에 있어서 蘇聯 共產黨과 여타 社會主義國 共產黨間의 새로운 發展을 위한 基本이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⁷⁷⁾

나. 루마니아와 Eurocommunism

루마니아는 유럽 共產主義를 資本主義的 여건하에서 共產主義의 승리를 爲한 現代的 形態라고 論評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교수들이 他國의 外交問題에 對해서 言及한 例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昨年 7月 루마니아의 前주미대사 실비우 부루칸(Silviu Brucan)이 뉴우욕 타임즈에 論說을 실고 유럽 共產主義를 論評할 바 있다.⁷⁸⁾

“A Rumanian, on the Italian Reds”라는 제목하에 유럽 共產主義를 論評한 루마니아의 立場을 보자.

1848年 共產黨宣言이 나온以來 世界는 크게 달라졌는데, 近来 이탈리아의 경우만 보아도 共產黨이 정권에 參與할 정도로 成長했다 하는 것이다. 지금 이탈리아는 예전의 지배階級(보수勢力)이 활발히 統治할 수 없을 만큼 混亂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民衆은 共產黨을 정권에 參與토록 支持해준 同時에 모든 變化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共產黨이 그러한 狀況을 적절히 利用할 수 있을 만큼 유

註 76) Eurokommunismus 1, ebenda, s. 40

77) Eurokommunismus 1, ebenda, s. 40

78) New York Times(2.7.1976)

능한 主體勢力을 가졌는가는 疑問이라는 것이다.

이탈리아 共産黨은 選舉結果에 依해 發展된 資本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政治參與에도 위촉되었지만 社會主義的 性格을 지닌 諸革命이 언제나 國際분규를 유발할 것을 보면 世界 戰略上 重要한 地域에 있는 저 나라 共産黨이 저 課業을 이행할까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共産黨의 정권참여는 資本主義 體制의 中心이라고 할 수 있는 西歐世界에서 첫 폭발인 셈인데 産業革命을 가졌었다는 歷史的인 條件은 유리한 一面이기도 하다. 그로 말미암아서 西歐는 부유하고 높은 發展度를 가졌으며, 世界의 殘餘 부분은 後進的인 狀態에 있다. 現時點까지 資本主義的인 西歐世界의 이 中心部分이 1, 2次大戰에 뒤이은 革命의 動요를 成功的으로 克服했던 것도 事實이다. 레닌을 資本主義권에서 일어나는 革命이 國際 體制를 變化시킬 만큼 強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만 革命의 成果를 덜 發展한 나라에서 期待했었고, 거기에서 社會主義가 世界定着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狀況에 로 育成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다.⁷⁹⁾

이 點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이탈리아 共産黨의 戰略과 綱領이 예전의 共産主義 立場이나 社會主義社會를 이룩한 모델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註 79) Eurokommunismus aus rumanischer Sicht (루마니아가 보는 유럽共産主義),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5/6/1977, s. 158

지금 이탈리아의 共産黨 指導者 엔리코베를링거 (Enrico Berlinguer)는 이탈리아의 勞動階級이 社會主義 路線을 擇하고, 社會主義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二元的이고 民主적인 方法으로 推進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이는 매우 合理的이다. 民主秩序가 있는 곳에는 急進적인 變化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이탈리아 社會體制에 있어서나 또는 나토 및 EC에 參與하는 이탈리아의 會員 構成面에 있어서 急進적인 變化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客觀적인 전제조건에 適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제열강이 서로 묶여 있고 또 内外政勢가 집중적으로 얽혀져 가고 있는 하나의 世界속에 살고 있다.

이 새로운 前제조건이 社會革命的인 理論과 戰略을 새로이 形成토록 抑壓하고 있는 것이다. 칠레의 境遇, 内政의 前제조건이 革命的인 發발을 誘導한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社會主義적인 秩序의 公告화는 國際적인 權力구조에도 關係된다는 것을 극적인 方法으로 잘 보여준 케이스이다. 결국 内政의 變化는 그 地域政治 (Regionalpolitik)에 잘 반영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際적인 關係 및 재정지원에도 크게 關係되는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를 속고해 보면 프랑스 社會主義 指導者인 Mitterand이 1974年의 大統領選舉에서 敗背한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共産主義的인 社會主義 戰線의 후보자가 프랑스 大統領으로써 하나의 地域體制의 中間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가 問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유치하

는 地域體制란 NATO와 EC에 依해서 움직여져 있는 바, 이 두 機構가 그를 敵對視하고 또 항시 프랑스 經濟를 뒤흔들 可能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랑貨를 레몬짜듯이 쥐어 짤 것이다.

나는 Mitterand씨가 그러한 난국에 處해 있으면서 지스카르 大統領보다도 資本主義 體制를 더 잘 이끌어 갔을 것인가는 疑問이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에 西方社會에 있어서의 社會的 變化는 實現의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斷言할 수도 있다. 결국 서로가 存続되어 있는 하나의 世界에서 成功的인 革命을 위한 그 전제조건을 国内的으로만이 아니고 國際적으로도 역시 成熟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결국 위와 같은 觀點에서 얻은 論理的 귀결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始作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그리이스까지 번진 西歐의 社會主義는 内外政을 통해서 먼저 지중해圈에 뿌리박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나라에 強한 共産黨이 있어야 하고, 또 社會主義者들은 北쪽에 있는 그들 동료들 보다도 左派統合을 위해 더 과감해야 한다.

결국 이들 나라의 共産主義者들은 위해서는 그들에게 언젠가 可能할 수도 있는 집권, 그것이 問題가 아니고 우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위치를 더 공고화 해주는 것이 問題이다.⁸⁰⁾

註 80) SÜDOSTEUROPA, H. 5/6/1977, ebenda, s. 159.

今年 7月 30日 초세스쿠의 招請으로 루마니아를 訪問한 카릴로는 훌륭한 待接을 받았으며, 두 나라 共産党的 우호증진을 거듭다짐했 다는데 공동성명을 통해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두 나라는 世界共産主義 運動의 統一된 새로운 形態를 만들어 내기 위해 두 나라 共産党的 우호와 우대를 強化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共産主義 建設은 各國의 狀況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각기의 國民이 處한 歷史的인 여건을 十分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⁸¹⁾ 즉, 루마니아는 스페인 共産党的 투쟁方法을 온전히 認定해 주고 있는 바, 이는 西歐 共産党的 獨自인 進路를 骨正的으로 받아들였다는 根據가 된다.

西歐 共産党的 우고와 루마니아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事實이다.

다. 匈牙利와 Emocommunist

베를링거, 마르세, 그리고 카릴로가 회동한 “유럽共産主義者 정상會談”⁸²⁾에서는 “유럽共産主義的”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았

註 81) Kommunique über die Gespräche Zwischen Ceausescu und Carrillo (초세스쿠와 카릴로會談의 공동성명), in: Monitor-Bericht Vom 1. August 1977. s. 1

82) Eurokommunismus aus ungarischer Sicht (匈牙利가 보는 유럽 共産主義), in: Wissenschaftlicher Dienst SÜDOST-EUROPA, H. 3/1977, s. 67.

기 때문에 지금 공산권에서는 이 유럽共產主義라는 말이 커다란
論争거리가 되어 있다. 소피아에서 열린 東블력의 정론가들 회
합에서 불가리아 共產黨首 Vivkov가 유럽共產主義를 反蘇主義의
同意語라고 한바 있지만, 저들 회합의 페회코뮤니케에서는 역시
이에 對한 아무런 言及이 없었다.⁸³⁾

그러나 1976年 6月の 「東베를린會議」이래 東歐圈에서 유럽共
產主義에 對한 論議가 활발해진 理由는 最近에 와서 유럽共產主義
가 蘇聯이나 東歐의 反體制 運動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 문이다.

1976年 12月 헝가리 共產黨은 János Kádár 당수의 오스트리아
國家 訪問을 계기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엔나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Kádár가 밝힌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共產主義가 反蘇주의를 뜻하는 하나의 새로운 形態”⁸⁴⁾
라고 이야기한 Todor Vivkov의 견해에 동조하느냐는 한 이탈리
아 記者의 質問에 對해 그는 이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註 83)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7.

84) “Echter Sozialismus-eine mächtige Waffe Unserer Propaganda”, Ideologen des Ostblocks erörtern in Sofia Fragen des Wissenschaftlichen Kommunismus und Euro-kommunismus (참된 社會主義-우리선전의 무기, 유럽共產主義와 科學的 共產主義에 對한 東歐圈정론가들의 소피아회합) in: Sonderlieferung der MONITOR-Redaktion d. dt. Welle Köln, Mai/1977, s. 27.

1個月 後인 1977年 1月 Kádár는 “社會主義와 平和의 諸問題”라는 論文에서 이 問題에 言及했던 바 그들은 유럽共產主義와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⁸⁵⁾

Kádár의 비엔나 발언이후 헝가리는 繼續 그들의 新聞이나 당기관지를 통해 유럽共產主義를 論評하는데 그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헝가리가 보는 유럽共產主義의 주요점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로의 独自の인 民族路線이 強調이고, 둘째는 유럽共產主義者들의 態度를 蘇聯에게 연결하려는 중재, 시도이며, 셋째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共產黨의 特異한 狀況을 풀이하면서 다른 당의 일에 不干渉이라는 原則을 強調하는 點이다.⁸⁶⁾

이 세가지 問題點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로의 独自の인 民族자주路線의 強調는 社會主義에로의 道점에서 헝가리의 經驗을 해명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社會主義의 建設이란 어떠한 共產國家도 도외시할 수 없는 하나의 國際的인 特定法則에 의해 이룩되는 過程이라고 입론한다. 그러나 모든 共產黨이 각기의 民族的인 特色과 內政的인 狀況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시인하고 있다. 즉, 이 같은 각계 共產黨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그들 자신의 歷史的인 政治的인, 經濟的인

註 85) World Marxist Review, Problems of Peace and Socialism
Dec./1976, pp. 3-16.

86)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8.

條件에 一致시켜서 利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Kádár의 論說에는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概念 問題가 包含되어 있다. 그는 먼저 現存하는 모든 社會主義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通해서 지금의 社會主義 단계에 도달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社會主義에로의 하나의 道이 있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아 말했다.

“歷史過程에서 우리는 이르는 여러가지 方도를 배웠고 그리고 그를 유지하는 데도 여러가지 形態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 相異한 그러한 條件下에서 한 階級이 집권하게 되고 또 그들이 發展시킨 권력의 形態를 特定한 狀況과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⁸⁷⁾라고 말하고 있다.

西歐共産党的의 內政問題를 論하면서도 헝가리는 동조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즉, 그들은 社會主義의 一般路線을 脫退하려는 타는 유럽共産主義를 시인하며 高度화된 現代産業社會의 諸問題를 적절히 處理하려는 西歐共産主義者들의 態度가 옳다고 보고 있다.

헝가리 共産黨 中央委의 外交분과 委員長인 G. 아오른 (Aorn)은 그들의 外交誌 Kulpolitika를 통해 西歐共産主義를 論評했는데 바 西歐共産主義의 대두는 社會主義가 國內外的 階級的인 敵을 去勢하려는 完強한 階級투쟁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몇몇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社會主義 로의 轉換시도

註 87)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는 東구라파에 일어났던 것보다 확실히 다른 手段과 方法으로 이
룩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党도 이미 社會主義의 社會를 建設
한 여러 党의 多様な 歷史的인 經驗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⁸⁸⁾

Aorn은 또 同外交誌에 실린 論文에서 二元主義의 理論을 조심
스럽게 수증했고, 또 西歐共産党間에는 參政問題와 미래의 권력構造
에 對해 서로 相異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多様な 견해 差異가 있는 속에서도 共同의 目標
설정의 可能함을 시사하면서 社會主義國家의 未來에 關한 西歐共
産党的 共通要因을 다음과 같이 確定해 놓고 있다. 첫째, 中小企
業의 私有財産은 主要生産 方法이 社會化되어가는 過程에서도 繼續
認定될 것이다.

둘째, 複數政黨制度下에서도 勿論 勞動者層이 指導的 黨이 되겠지
만 그 制度 自體는 繼續 存立할 것이다.

셋째, 勞動者層에게 생소한 反마르크主義的이고 宗教的인 理念등이
繼續 널리 보급될 것이라라는 等이다.⁸⁹⁾

그後 아오른은 그의 主張을 더 구체적화했었는데 西歐共産黨이
계급투쟁을 暴力으로 行하지 않고, 꾸준한 政治理念的 과공을 通해
서 遂行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意味에서 그는 複數政黨制를 認定

註 88)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89))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한다고 한다.⁹⁰⁾

Aorn의 이같은 發表에 對해 外交政策評論家인 Ferenc Varnai
은 理念問題의 專門家로써 西歐共產主義 問題를 다음과 같이 補完
說明하고 있다.

“工業化라는 發展된 바탕을 가진 資本主義 諸國에 있어서의 社
會主義는 20세기初에 後進的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는 다른
方法으로 成就될 것이다. 즉, 러시아의 狀況은 帝國주의의 기반을
脫皮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지주層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의 여러 나라 지배層 間에 去來가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勞働者
層의 손으로 平和的인 政권이양을 可能케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西歐共產主義의 이러한 方途는 東歐 人民民主主義
와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西歐共産黨이 主張하는 모든
問題는 不可能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Varnai의 主張의 골자는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西歐共産黨이 제시한 基本理念의 解答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이 基本理念이란 각기의 民族的 條件과 一致하여야 한
다는 點이다. Varnai는 저들 共産黨들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를 가졌다는 윤곽을 그린 것이라고 보고있다. 勿論 그의 제의가
西歐共産黨에게 東歐의 모델이 언제나 합당한 것임을 主張하는 것
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오류를 범하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들처럼

註 90)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69.

럼 그들 나름으로 그들의 問題點을 타결하는 方途를 覓경 찾는다는 것이다.⁹¹⁾

結論적으로 보면 헝가리 共産黨이 유럽 共産主義의 理念的 諸問題에 對해 아주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예컨대 헝가리 共産黨은 西歐 共産黨이 형제당간의 關係에 있어서 相互援助와 共同 타결책, 社會主義 國家의 市民社會 비방에 對한 不認定, 그리고 그들 각기의 國民에 對한 共産黨의 責任等을 역설하는 것을 肯定的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 相互間에 새로운 問題에 對한 견해 差異가 있을지라도 全體로써의 共産黨運動에 對한 共同責任은 져야한다.”

즉, “서로의 意思 交換은 共同原則의 바탕위에서 行해져야하고 基本的인 關心과 目標로 國際主義 精神에 입각해서 화목한 方法으로 遂行되어야 한다.”⁹²⁾ 라는 確固한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結論컨대 헝가리 共産黨은 지금 유럽 共産主義의 發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漸次 東歐 共産黨과 西歐 共産黨간의 間격을 좁히는 중개역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

註 91)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70.

92) SÜDOSTEUROPA, H. 3/1977, ebenda, s. 71.

IV. 東歐의 民族問題

1. 19世紀 다뉴브帝國(Donau-Monarchie)의 民族問題

가. 民族紛糾의 歷史的 背景

1867년의 妥協으로 成立된 多民族國家 <奧·洪帝國>이 第一次 世界大戰과 더불어 어떻게 沒落했으며 同 二重帝國의 多民族的인 要素는 統一된 大 君主國의 崩壞過程에 있어 어떻게 作用해서 마침내 그 解體를 助長하게 되었나를 살피는 것이 本 單元의 要旨이다.

二重帝國의 民族的 紛糾은 19世紀에 들어서서 特히 1948年을 期하여 저들 少數民族들이 政治的 要求에로 覺醒한데서 부터 始作된다. 1526年까지의 오스트리아에는 티롤(Tirol) 南方에 이탈리아인과 라디베르(Ladiener)인이 살고있고 케른텐(Karnten),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및 크라인(Krain)地方에는 슬로베렌(Slowenev)인이 살았으며 퀴스텐란트(Kustenland)와 이스트리에르(Ietrier)地方(지금의 이탈리아 Triest地方에 해당함)에는 크로아텐(Kroaten)인과 이탈리아人等이 各各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의 오스트리아에는 比較的 거의 完全한 하나의 獨逸語圈을 이루고 있어서 文化的인 面에서의 民族間의 爭鬪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526年 以後 체코人, 슬로바키아人, 마자르人 地域 등이 합스부르크家의 統治領域으로 編成되면서 부터 帝國內의 民族紛糾은

싹트기 시작했으며 1683年 土耳其의 再侵을 막아내고 「헝가리」의 全域을 帝國權에 넣어 中歐烈強으로 굳림하면서 부터는 帝國內 民族紛糾의 氣勢가 活達해져서 겉으로는 肥大했으나 안으로는 帝國의 一元化政策에 寧日이 없는 怪常한 내쇼날·스트럭추어를 지닌채 1918年의 悲運을 맞게 되었다.

帝國內의 民族紛糾가 政治問題化하기 시작한 것이 1848年이며 또 저들 民族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二重帝國 成立後인 19世紀 後半에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 1848年 以前의 民族紛糾와 빈(Wien)中央政府의 帝國政策을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은 點을 指摘 할 수 있다. 합스부르크家の 統治下에 있는 文化水準이 아주 低劣한 東南歐의 諸民族이 文化的 繁榮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이미 「後期 르네상스」부터 였지만 저들이 各己의 民族語에 依한 詩文學등을 育成하려던 것은 역시 啓蒙思潮의 影響을 받은 18世紀 후반의 일이었다. 即 1770年 以來 帝國內의 非獨逸人系 諸族은 各己의 民族語나 土俗的인 詩와 文學등을 발달시키기 爲한 民族運動을 벌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政治的인 問題는 아닌 所謂 一種의 「言語的, 文化的 民族運動」이었다.¹⁾ 그 뿐만 아니라

註1) 1770年代의 所謂 「言語的, 文化的, 民族運動」이란 事實上 帝國內의 個個民族이 그 固有文化를 獎勵 育成하는 試圖策으로써 各處에 學校를 設置할 것을 中央政府에 要求하는 程度였다. F. Valjavec, : Nationalitätenfrage in Österreich nach 1948, S. 35. Ferner Vgl. dazu E. Zöllnerj Geschichte Österreichs, S. 315f.

그 당시 마리아·테레지아(Maria Theresia +1780)와 요셉二世
 (Josef II +1790)의 帝國政策이 저들의 民族文化 發達을 爲하여
 帝國民全體의 精神的 紐帶와 協同을 꾀하는 데에 그 力點을 두었
 기 때문에 저 時機의 民族問題는 하등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815年 以後 「保守反動」(Metternich-System)에 反하
 는 유럽의 自由主義的 國民主義 思潮는 저들의 民族的 自覺을 일
 깨웠으며 1848年 以後에는 저들의 民族運動이 政治的 要求에로
 發展하게 되었다. 三月革命 이후의 反 王朝的 民族運動을 간추려
 보면 셋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자르人的 억센 反獨運動
 이며, 둘째는 「프라하」에서 열린 「슬라브人會議」이후 체코, 폴란
 드, 슬로바키아人들의 反政府的인 民族的 要求이고, 셋째는 마자르人
 에 對한 슬로바키아, 세르브, 크로아치아, 루마니아人等의 民族的 反
 抗인 것이다. 그러나 1848年을 前後한 이 初期民族運動의 性格
 이 各己 民族들의 관심사를 成就 또는 增大시키려는 紛爭이었을
 뿐 君主國의 Status를 全面 否定하는 反抗運動은 아니었기 때문
 에 빈政府의 寬容的인 文化獎勵策에 의해서 이 初期運動은 순조로
 이 무마되었다. 1848年의 革命과 49年의 混亂이 진압된 後
 1867年의 二重帝國 成立에 이르는 期間의 國政을 살펴보면 當時
 의 오스트리아는 王家側의 보다 改革的인 施政策에 의해서 1848
 年 以前에 比해 오히려 內政의 刷新과 近代化의 本格的인 推進이
 확연하게 들어난 安定과 道義의 一時期였다. 二重帝國 해체후의
 후에국들인 東南歐의 여러나라에 오늘날 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教育制度나 鐵道, 通信網의 敷設 및 發展등은 모두 저 時期가 남겨 놓은 偉業인 것이다. 特히 저때에 帝國內의 諸民族은 言語적으로 文化的으로 沮止없는 發展을 꾀할 수 있어서 심지어는 헝가리와 같은 지방색이 강한 곳에서도 「過激主義」가 緩和되었기 때문에 平和를 상징하는 「Bachzeit」²⁾ 라는 歴史上의 用語가 저 時期에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와같은 Bachzeit의 和平이 길지 않았던 것은 外政의 불리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對外政策의 強化를 위해 모색된 것이 二重帝國의 成立이었던바 同 帝國의 維持策은 바로 國民國家의 國勢擴張에서 民族의 承華를 찾으려는 19世紀 후반의 思潮에 逆行되는 것이었으므로 同 帝國內의 民族紛糾는 자꾸만 惡化해 갔었다. 即, 1859年の 「오·仏戰爭」과 1866年の 「오·普戰爭」에 敗北한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家の 外政을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內政의 強化를 爲한 二重帝國의 成立이 不可避 하였지만 헝가리 民族勢力과의 妥協으로 帝國內 슬라브諸族의 反발을 억압하려한 同 帝國의 成立은 결국 帝國內에 民族紛糾의 불씨를 던진 것이었고 필경 저 老 大帝國을 멸망시킨 가장 큰 要因이 된 것이다.

註2) Bachzeit란 1848年の 革命以後 빈政府의 內務相 Bach의 老練한 政策에 依해서 헝가리의 政治的 行政的 諸特色이 消滅되고 빈中央政府의 施策이 帝國全域에 잘 履行되었던 安定期를 뜻한다. Vgl. G. Stadtmüllerj Geschichte der habsburgischen Machts S. 123.

나. Zisleitaniien 과 Tnansleitaniien의 民族勢力狀況

1867年の「奧・洪帝國」成立後 격화되기 시작한 民族紛糾의 內的 要因은 다음과 같다. 奧・洪帝國은 1867年 以後 帝國을 치스라이타니엔 (Zisleithanien)과 트란스라이타니엔 (Transleithanien)으로 兩分하여 各各 그 統治領의 境界를 設定했었다.³⁾ 그러나 民族紛糾가 점차 격화되자 兩地域의 諸民族 中에서 Wien의 中央政府에 아주 심한 民族的 主張을 고집해 오는 族屬은 比較的 긴 文化的 傳統을 가진 民族들이었는데 (所謂 Historische Nation), 치스라이타니엔에 있어서는 체코와 폴란드인이었고 트란스라이타니엔에 있어서는 마차르인과 어느 意味에서의 크로아치아인들이었다. 여타 諸民族 (所謂 Nicht Historische Nation)의 산만한 叛亂은 대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同 二重諸國內에 十三個 民族으로 된 三千五百六十萬의 人口가 살던 1870年代의 民族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치스라이타니엔의 境遇를 보면 첫째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살고있던 체코인들은 1870年代까지는 事實上 拳族的인 民族運動의 氣勢는 보이지 않았다. 即 그당시 民族問題에 눈뜬 체코인이라면 知識人과 一部 富裕市民層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것이 拳族的인 政

註3) Leithar江을 中心으로 동부는 트란스라이타니엔으로써 헝가리의 統治領이 되고 치스라이타니엔으로써 오-스트리아의 統治領임을 設定하여 1918年の 帝國解體 時까지 各各 分해통치 하였음.

治行動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도 미온적인 狀態였다. 勿論 1867年의 「모스크」에서 열린 「슬라브人會議」에 자극되어 체코인들이 親露的인 傾向에 기울고 판·슬라비즘(Panslavism)을 標榜하게 됨으로써 체코內에 간혹 政治的인 不祥事가 발생하는 일은 있었지만 拳族的인 團合된 政治勢力이 아니므로 해서 심각한 段階는 아니었다.

둘째 人口 約245萬의 폴랜드를 보면 中世以來 가리치아(Galizien)의 都市에는 어느 정도의 市民層이 形成되어 있던 外에 貴族과 僧侶層은 Poland Nation으로써의 政治勢力을 構築하고 있었기에 체코인들 보다는 政治的으로, 文化的으로 훨씬 개인民族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動靜에는 Wien中央政府의 관심이 컸던 反面에 그와 같은 그들의 民族的인 優勢는 가리치아에 있는 우크라이나人(Ukrainier)과 繼統的인 對立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303萬의 人口를 갖는 우크라이나는 폴란드人과의 反目때문에 「판·슬라비즘」을 내건 러시아 宣傳에 同調하기 시작했지만 1870年代까지 Wien皇室과의 關係는 막연한 狀態였다. 원래 우크라이나人是 마리아·테레지아 女皇 以來 歷代皇帝의 親近한 文化政策에 依해서 합스부르크家와의 宗속관계가 두터운 족속이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對內的 與件으로는 그들의 大部分이 農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民度는 낮았으며 精神的인 領導層이라고는 오직 僧侶階級뿐이었기에 1870年 무렵까지 우크라이나에는 民族運動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마침내 汎슬라브的 傾向의 「인텔리」層이 점차 形成된

것은 1870年 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다.

넷째 키스라이타이겐의 南方에 살던 人口 125萬의 슬로벤(Slowenen)인은 1880年代에 이미 言語的 自治를 要求하는 民族 運動을 일으켰던 족속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反獨傾向은 1860年 이후 더욱 심해져서 합스부르크家の 君主體制는 인정하되 同 君主 聯合을 爲한 Austro-slav的 聯邦主義를 實現할 것을 주장해 오 는 판세였다.

다섯째 帝國內의 民族紛糾中 가장 複雜했던 것이 이탈리아인의 民族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1850年代에 롬바르드와 베네치아(Lombardei Venezia)에는 454萬의 이탈리아인이 살았으며 그 外에도 티롤에 32萬, 퀴스텐란트에 11萬7千, 달마치아(Dalmatien)에 1萬4千등이 각각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과 Wien 中央政府와의 不調和와 複雜한 諸 關係는 同 地域에 대한 오스트리아 支配의 景畧이 다른곳에 비해 훨씬 낫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겠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저들 領域이 文化的으로, 經濟的으로 오-스트리아 本來의 自家領(Erbländer)보다 우월 했다는 점에 이탈리아를 包含한 帝國全體의 外政이 늘 어려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란스라이타이겐」에 있어서의 諸民族의 양상을 보자, 먼저 마자르인의 境遇 約 570萬의 人口를 算하는 그들은 헝가리 地域에 있어서의 住民中 數的으로는 월등한 優세를 確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위 同族意識이 強한 Stattsnation이었다.

이러한 그들이 「트란스라이타니켄」의 「마자르化」를 위한 民族運動 展開過程에서 더욱 有利한 立場에 섰던 또 하나의 이유는 匈牙利社會의 諸 階層(Stände)이 모두 마자르的 要素로서 짜여져 있었으며 그위에 그들의 政治意識이 唯獨히 強했다는 點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1867年 以來 「트란스라이타니켄」에 있어 他種族들의 희생을 빌어 그를 마자르族의 盛勢를 꾸준히 試圖 했었는데, 바로 이 點에서 그들은 恒시 Wien中央政府의 帝國政策과 충돌을 不免했던 것이다.⁴⁾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 마자르族을 제외한 非마자르系 諸族과 民政府와의 關係도 반드시 順調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非마자르系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브르·크로아치아人 등이 1848-49年의 革命 當時도 역시 王朝에 對한 반역 없이 忠調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論政行賞도 없이 1867年 以後 마자르族의 非마자르系 탄압을 民政府가 積極的 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도 역시 民政府를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저들이 反王朝的 民族運動을 열거해 보면,

첫째는 二重帝國 成立以後에도 「트란스라이타니켄」의 全面的 마자르化를 爲해 수시로 民政府와 가장 많이 충돌한 것은 前術한바

註 4) 民政府의 마자르族과의 對立은 마자르人이 지나치게 「어그레시브」한데에 主因이 있었지만 그 반면에 民政府의 실책이라면 「트란스라이타니켄」에 있어서 餘他諸族에 比해 「마자르族」의 優越한 政治的 優位를 不顧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있는 마자르族이었으며,

둘째는 125萬의 人口를 가진 크로아치아의 境遇다. 크로아치아는 1868年 헝가리와 妥協成立으로 「트란스라이타니엔」領内の 餘他植民地 보다는 政治的 優待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자르族, 다른 한편으로는 빈政府와 各各 反目狀態에 있었다.

셋째는 167萬의 人口를 가졌던 세르비아의 反 中央政府 傾向을 들 수 있다. 1689年 그들이 中歐에서 南下 移住한 이래 1690年, 1691年, 1694年等 前後 3次에 걸쳐 합스부르크皇帝의 特혜를 얻어 希臘正敎로써 宗教的 統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政治的 自立까지도 維持할 수 있는 精神的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1815년까지 同 國家에 順從하였으나 1815年 이후 그들의 侯國이 세워진 後부터는 그들은 곧장 独自の 傾向으로 흘러 필경 1914年엔 「사라예보」의 銃聲을 울리고 말았었다.

넷째는 人口 268萬이던 「루마니아」를 들 수 있다. 元來 그들의 一部는 세르비아처럼 希臘正敎라는 신앙을 통해 그들의 精神世界가 統一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그들은 세르비아인의 境遇처럼 합스부르크家의 特혜를 받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比較的 王家側과 親近한 사이여서 합스부르크家의 欽獎에 의해 民族語를 갖게도 되었으며 또 이를 繼續 發展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敎育制度 등을 제법 많이 받아들여기도 했었다. 그러나 1859年 「몰다우」(Moldau)와 「바라치」(Walachie)가 統合해서 「루마니아 侯國」을 세운 후부터 帝國內에서 루마니아

勢力은 強하게 대두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人口增加와 더불어 액티브한 活動은 마자르人이나 獨逸人系 보다 훨씬 活潑한 것이어서 「부다페스트」의 言語政策이 루마니아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형세였다.

다섯째는 트란스라이타니엔의 東地方에 살던 「우크라이나」人들의 境遇이다. 우크라이나人들은 事實上 一次大戰에 이르기까지 줄곧 마자르人의 民族政策에 얽매어온 족속인데 그 이유는 一次大戰後까지도 저들에게 所謂 精神的인 領導層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公用化한 文章語가 없을 정도로 낮은 文化水準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希臘正敎라는 同一信仰으로 인한 種族團結의 長點이 있었지만 그 宗教自體도 아무런 作用을 하지 못한채 저 民族은 繼續 부다페스트政策에 억압되어 있었다.

여섯째는 人口 約 206萬의 슬로바키아人인데 이들도 역시 우크라이나人의 境遇와 유사했다. 즉 슬로바키아人은 당시 宗教的 分裂뿐만이 아니고 文化的으로도 學校敎育이라는 制度的 未備는 勿論이요 文章語가 없는 정도의 未開民族이었기에 마자르化가 아주 容易한 곳이었다. 그러기에 슬로바키아는 마자르人의 侵略이 있을 때마다 거의 매번 체코의 援助를 받았으며 그 반면에 때로는 체코人의 군대에 利用되기도 했고 나아가서 汎슬라브主義의 도구로서 허다히 利用되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에 살던 獨逸人系를 보면 1850年代에 149萬의 人口를 헤아리던 獨逸人系는 異民族들의 틈에서 오랫동안 文化的

으로, 經濟的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政治的인 組織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1867年 이후로는 점차 마자르族의 言語政策에 同化되어 가는 無力한 형세였다.

다. 마자르族과 Wien 政府의 民族政策

위에서 우리는 치스라이타니엔과 트란스라이타니엔 兩地域의 諸民族 勢力分布와 그 民族運動 展開狀況을 살펴 보았다.

이제 帝国内 兩地域의 民族紛糾의 불씨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부다페스트와 빈의 兩政府가 諸民族의 반발 및 그로 인한 政治的 混亂을 如何히 수습하려 시도 했던가를 此頃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트란스라이타니엔의 境遇를 보면 同地域의 民族紛糾는 온전히 마자르族의 지나친 同地域 마자르化 試圖에 기인 했었다. 即 마자르族이 同地域内에 있어서 강압적인 言語 및 教育政策을 통해서 餘他民族을 억압하려던 데서 国内에 混亂이 벌어졌고 나아가서는 二重帝國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면 마자르化 運動의 中核이었던 그들의 言語 및 教育政策은 어떠한가가 問題인데, 1880年代에 640萬을 헤아리던 마자르族은 1910年代에 約 995萬 정도로 그 人口가 激增 되었었다. 이와같은 人口激增에 결들여서 그들은 他民族의 마자르化를 위한 강경한 教育政策을 取했었다. 즉 1883年에 發포한 教育法令中 第30條는 中學校의 運營 및 同水準의 教師資格등을 規定해 놓은 柒項인데 그 細項에는 非마자르系의 教育機關에서도 教習上의

言語나 書冊 및 文献은 마자르語라야 함을 明示해 놓았었다.⁵⁾

또 1891年의 幼稚園法을 보더라도 모든 非마자르系 兒童들은 유치원에서 부터 所謂 國語인 「마자르語」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明示해두었으며⁶⁾ 1907年 國公立學校와 教師의 法的 地位를 規定해 놓은 法令 第32條에도 그 細項에 國家의 보조를 全然 받지 아니하는 私立學校에서도 마자르語를 어느정도까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것을 明文化 하였다. 同 法令은 即 4年의 國校課程을 履修한 모든 兒童은 마자르語를 表現할 수 있고 記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제성을 成文化한 것이다.⁷⁾ 그러나 부다페스트 政府의 이러한 강경책에 대해서 非마자르系인 루마니아 세르벤 슬로바켄 등은 완강히 반대했으니 結果적으로 부다페스트 政府가 國法으로써 國內 諸民族의 分裂과 混亂을 助長한 셈이었다.

1918年 헝가리의 政治家인 슈테판 치자(Stefan Tisza⁺ 1918)는 다음과 같이 自白한바 있다. 「헝가리에 사는 獨逸人에 對한 마자르의 教育政策」과 부다페스트 政府의 「크로아치아 政策」은 모두가 失策이었다.」라고⁸⁾

以上과 같이 트란스라이타니아에 있어 마자르族의 諸民族 마자르

註 5) Siehe F, Valjavec: ebenda, S, 42.

6) Siehe F, Valjavec: ebenda, S, 42.

7) Siehe F, Valjavec: ebenda, S, 43.

8) F, Valjavec: ebenda, S. 43.

化運動이 격심했던데 反해서 奇스라이타니엔에 있어서는 諸 民族의
 狀況이 그와는 좀 달랐다. 此頃에서 本政府의 民族政策을 마자르
 의 것과 比較해서 그 質的 差異를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奇스라이타니엔에 있어서는 1848年 이래 国内 諸 民族에게 우열
 의 差異없이 「同等」이라는 平均原則이 주어져 있었으며 同 原則
 은 1867年의 「12月憲法」에도 名文化되어서 그후에도 全く 발표
 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1867年 이후 奇스라이타니엔에 發生
 하는 諸 民族紛糾는 国内의 諸 民族이 한결같이 同等化 하려는
 데서 생긴 일이었다. 換言하면 이곳의 民族紛糾는 獨逸人系가 餘
 他諸族에 비해 좀 優세하다는 데서 야기되는 은연중의 對立現象
 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皇室과 帝國의 領導層은
 實上 同 地域을 包攝만화 하려는 意識的인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⁹⁾
 勿論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獨逸人系는 다른 民族보다 文化的으로,
 經濟的으로 오랜 期間을 통해 優세했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獨逸
 語가 廣範圍하게 보급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한 獨逸文化圈이 오-
 스트리아의 상류사회를 支配하고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獨逸人系의 이러한 文化優位的인 事實이 이미 1848年
 이전의 言語紛爭期에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을 심히 자극했을 것이

註 9) Siehe R.A. Kann, The multinational Empire, 2, Vol.,
 pp. 294, 270. Ferner Vgl. H. Hantsch, Die Nationalität-
 entrage in alten Österreich, S. 102ff.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民政府로서는 1848年의 革命後 言語問題가 將次 帝国内의 民族紛糾의 불씨가 될 것임을 예지하고 應分の 先後策을 樹立했더라면 19世紀 후반의 심각한 言語 紛糾를 모면 했을지 모른다. 即 1850年이나 1867年을 기해서 큰 「言語 클럽」個個를 地域的으로 限界를 設定해 놓고 잔여의 소수 言語클럽까지도 각기 그 地方에서 보호 育成시키는 規範을 세웠더라면 同 地域内 民族間의 反目이나 分裂은 분명히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民政府는 이에 對한 對備策이 없어 言語紛爭의 諸 要素를 除去치 못했으니 1867年 以後 치스라이타니엔에는 言語로 말미암아 諸 民族間의 紛糾가 48年 以前보다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다. 이제 그 言語紛糾의 代表的인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事實 들이다. 1897年 바데니 (Badeni)首相이 체코人에게 「言語令」¹⁰⁾을 公布 했을때에 그에 對한 獨逸人系의 反발이 심하여 僅경 2年後인 1899年에는 알드링거 (Aldringer) 內閣이 前記 바데니의 言語令을 폐기해 버린 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1904年 트로파우 (Troppau)나 체코의 사범 교육기관에서도 非獨逸人系 學校의 병설을 에워싸고 맹렬한

註 10) Böhmea 과 Mähren 兩地域은 앞으로 두 言語를 公用할것이니 同 地域의 官吏들은 오는 三年以內에 두 言語 (獨語와 체코語)를 習得해야 한다 라고 公表한 法令 (1897.4.5)
Vgl. auch L, Reiter : Handbuch der Geschichte Österr-eichs, S, 85.

紛糾가 있었는가 하면 1893年 치리(Cieli)에서 일어난 슬로베니아인들의 中·高等學校 設立을 에워싼 紛爭등은 저 時代의 獨逸人系와 非獨逸人系의 심한 軋轢을 잘 知悉케 하는 代表的인 例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와같은 言語紛爭 以外에도 各 民族間의 利害相反은 急進的인 政治紛爭을 惹起시키기도 했었다. 그 實例로는 슬로베니아인들이 들고 나온 「오-스트로·스랍主義」(Austro-Slavism)의 政治的 混亂인바 항차 체코인들도 外政의 便宜上 統一된 君主國(Gesamrtmonarchie)의 存立이 必要해서 分立主義를 들고 나오지 않았던 것을 슬로베니아인들이 저와같이 前記 「오·슬聯邦化」를 主張했으니 이는 事實上 君主國의 解體를 재촉하는 슬로베니아 市民層의 무모한 政治的 난동이었다. 그러는가 하면 帝國內의 民族紛糾가 이와같이 복잡다난해서 「도-나우제국」의 存立이 흔들렸을 때 民族問題 解決에의 參與 改革을 試圖한 人士들이 없지도 않았었다. 社會黨의 칼·라너(Karl Renner +1950)와 오토·바우어(Otto Bauer +1938), 基民黨의 이그나스·사이펠(Irnas Seipel +1932) 그리고 루마니아의 政治家 아우렐·포포비치(Aurel Poporici)등도 모두 그 代表的인 人物들인바 이들의 民族問題 解決案이 햇빛을 못 본것은 20世紀初의 오-스트리아 政情이 너무도 混亂했던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國民國家의 成쇠가 물고 온 精神史의 흐름속에서 빠져날 수 없었던 一種의 Phänomen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오스트리아 社民党的 民族政策과 그 批判

오스트리아의 社会主義運動은 帝国의 經濟的 發展過程에서 必然的으로 派生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本是 '오스트리아의 資本主義는 1848年の 革命後 所謂 産業革命의 段階에 들어갔으나 普墮戰爭에 敗北한 後 獨逸을 잘라내고 自立하면서 부터 새로운 産業發展을 꾀하는 過程에서 社会主義運動은 加一層 빠른 템포로 進展되었다. 獨逸社会民主党처럼 中央集權的인 組織으로써 充分한 오스트리아 社会民主勞動党은 188年 社会主義 諸勢力이 糾合한 때부터 本格的인 運動展開에 들어 갔었다. 이들이 統一的인 첫 行動綱領을 낸 것이 1889年の 「하인펠트綱領」인데 이것은 社会主義 社会의 建設을 爲해 國際主義에 立脚하여 民族問題의 解決, 內政의 民主化, 徹底한 社会政策과 勞動者 保護등을 骨子로 한 것이 었다.¹¹⁾ 그리하여 1890年代 近代産業의 發達과 勞動者의 激增이 뒷받침된 同 社会党은 漸次 늘라올만한 影響力을 갖는 政治團體로 써 君臨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運動展開에도 亦是 國內의 民族的 對立이라는 混亂을 모면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乃終에는 이들도 亦是 오스트리아의 政治的·社会的 進歩를 爲해서는 民族問題의 解決이 先行되어야함을 知悉하고 民族紛糾調整의 具體的 方案을 摸索하게 되었던 것이다.

註 11) L.Brügel: Geschichte der österreichischen Sozialdemokratie, 3. Bd., S. 399ff.

오스트리아社民党的 民族理論으로는 이미 위에 言及한바 있는 칼·라너와 오토·바우어의 諸說이 代表的인 代案인바 이를 좀더 仔細히 注解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너의 境遇 그는 數種의 著書¹²⁾를 通해 그의 民族理論을 展開했는데 그 主張의 骨子は 「民族의 自治」, 「民族의 同等」, 「個人原理의 施行」이라는 세가지 였다. 即 個人의 原理(Personalitätsprinzip)를 適用하여 帝国内에 民族共同體와 民族的地域이라는 두 組織體를 만들어서 이들 두 組織의 協力에 依해서 全國을 統一的으로 統治한다는 것이 그의 理論의 根幹이다. 라너에 依하면 오스트리아 國家改造計劃은 中央政府와 國民各者의 平等만을 問題視한 當時의 「中央集權的·個體的 憲法」(Zentralistischatomistische Verfassung)을 同等한 權利를 갖는 諸民族을 基礎로 한 「有機的 憲法」(Organische Verfassung)으로 改革하

註 12) 라너는 5種의 著書로써 그의 民族理論을 展開했는데 처음의 두가지는 Synopticus, 뒤의 세가지는 Rudolf Springer라는 假名으로 著書들을 냈다.

- ① 「오스트리아의 民族問題」 (Zur Österreichischen Nationalitätenfrage), 1899.
- ② 「國家와 國民」 (Staat Und Nation), 1899.
- ③ 「오스트리아 諸民族의 國家를 에워싼 鬪爭」 (Der Kampf der Österreichischen Nationen um dem Staat), 1902.
- ④ 「오-스트리아 헝가리王國의 基礎와 發展目標」 (Grundlagen Und Entwicklungsziele der Österreichisch-Ungarischen Monarchie), 1906.
- ⑤ 「오-스트리아의 革新」 (Österreichs Erneuerungen), 1916.

는데 부터 始作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國家形成의 基本的인 條件은 「보헤미아」 國法 (Staatsrecht)의 신봉자나 身分的 分立主義 (Standiger Partikularismus)의 擁護者가 바라는 것과 같은 「領土的 聯邦主義」 (Territorialer Föderalismus)가 아니고 人民의 自由로운 同意가 뒷받침 되어 한 民族의 모든 誠願을 똑같이 自由로운 發展의 可能性에 關与시키는 純理的인 「民族的 聯邦主義」 (Nationaler Föderalismus)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帝國 全域은 모두 民族的地域 (Nationale Territorien)으로 改稱되어야 하며, 이들 地域은 同一民族이 密集하게 居住하는 地帶를 包含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라너가 構想한 「6個의 民族的 地域」¹³⁾은 所謂 歷史的 行政區域인 州 (Provinz)의 境界와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大概의 州에서는 여러가지의 言語가 쓰여졌기 때문이며 그러므로써 이들 民族的 地域도 帝國 全域에 걸친 民族的 混住地帶라는 難點때문에 반드시 同一民族의 모든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라너는 地域的共同體 (Territoriale Gemeinschaft)에 다 個人的 共同體 (Personelle Gemeinschaft)를 並存시켜

註 13) 라너가 構想한 民族的 地域은 Alpenländer, Sudetenländer, Karstgebiet, Ungarn, Siebenbürgen, Karpatenvorland 등의 6個 地域이었다. Siehe dafür H. Hantsch: Gesch Österr-eichs, S. 468.

個人的 原理(Personalitätsprinzip)가 地域의 原理(Territorialitätsprinzip)를 補完하여 自民族의 文化的 自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各自의 民族的 權利를 賦與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全 住民이 自己 스스로가 特定民族에 屬함을 認定하고 그 民族登錄簿(Kataster)에 登錄함으로써 그 民族共同體(Nationale Gemeinschaft)의 權利를 享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에 라너는 同 民族共同體 提議에서 獨逸人, 체코人, 南슬라브國 등의 세 民族共同體를 들었는데¹⁴⁾ 한 民族의 一員이 되는 것은 個人的 選擇의 問題이지만 各 民族의 全成員이 構成하는 單一的 共同體는 公的인 法人體(Juridische Person)로써 모든 民族的인 事件을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라너는 「民族的 自治」라는 것을 한 民族의 文化的인 諸問題, 特히 學校와 言語問題에 關한 自治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民族 民族紛糾를 일으키기 쉬운 「文化와 教育」의 問題가 民族的 單位로 處理되면 民族間的 和平이 維持되리라고 내다 보았다. 換言하면 領土的 境界와는 關係없는 個人的 共同體로서의 民族組織 即 民族共同體가 그들 民族的 諸般事를 独立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어

註 14) Siehe K. Adamus : Die Theorie Ignas Seipels über Nation Und Staat and Verhältnis zu Karl Renners Theorie über "Staat Und Nation", Grazerphil, Diss, Summarium und Vgl, auch H. Hantsch: Geschichte Österreichs, S, 468.

어떤 權限을 가질때 비로소 帝國內 民族間의 平和 回復이 可能하다고 본것이다.

라너의 이와같은 民族問題 解決策과 유사한 바우어의 同問題 打決策은 다음과 같다. 바우어는 오스트리아의 社會主義的 發展을 꾀하는 同時에 民族文化를 固守 또는 育成시키려는 그 構想과 主張을 다음의 두 著書를 통해 밝혔다. 그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民族問題와 社會民主黨' (Die österreichisch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 1907)이라는 著書이고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革命' (Die österreichische Revolution, 1923)이라는 著書이다. 이 著書들은 모두 「마르크스즘」發展理論을 展開한 重要 文獻으로써 오늘날 까지도 通用되는데 그 속에 그려낸 20世紀 初葉의 그의 思想의 特徵을 간추려 보면 그도亦是 라너처럼 民族問題의 解決을 文化的 個人的 側面에서 立脚한 여러가지의 行動을 自由로히 取할 수 있기를 要求한다는 것이다. 卽 한 民族이 自由로히 行動하려고 할 때 言語의 共通이란 民族性을 形成하는 重要한 要素이기는 하지만 한 民族을 識別하는 完全한 基準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民族의 重要한 特色은 어디까지나 그 固有한 文化와 生活樣式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오스트리아의 民族問題도 結局 「文化的自治」에 그 打決의 關鍵이 있다고 본것이다. 卽 各 民族의 住居地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 特히 教育, 藝術, 宗教, 社會的 慣習 및 儀式 等등의 所謂 民族的 生活樣式과 關係되는 모든 問題를 그 民族 自身の 言語와

慣習을 따라 自治的으로 處理하는 權利를 認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 것이다.¹⁵⁾ 그러나 바우어는 라너처럼 文化와 政治經濟를 極端的으로 區別하지는 않았다. 卽 라너의 構想을 이르면서도 그것을 사주主義思想 全體속에 더욱 깊이 뿌리 박으려고 한 것이다. 換言하면 階級鬪爭과 民族의 自由 및 自治를 爲한 鬪爭을 一致시키려던 것이 그 主張의 中核이었던 것이다.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勞働者階級은 民族的인 文化共同體에서 疏外 當하고 있으며 支配層의 有産者階級만이 民族의 文化的 遺産을 橫領하고 있다. 社會民主黨은 人民의 勞働의 所産인 民族文化를 全 人民의 것으로 만드려야 하며 또한 全同胞를 民族的인 文化共同體에 묶어서 文化共同體로써의 民族을 育成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바우어의 民族理論이 端的으로 表現되어 있는 句節이다.¹⁶⁾ 卽 바우어의 이와같은 民族理論은 階級鬪爭만이 한 民族의 權利와 文化財를 勞働者 階級에 所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한 民族은 階級鬪爭을 통해서 비로소 自己를 完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階級鬪爭은 모든 民族의 共通的인 것이며 모든 民族의 「文化的自治」(Kulturautonomie)는 모든 勞働者 階級の 共通된 要求라는 것이다.

註 15) Siehe dafür, G. D. H. Cole, The Second International 1889-1914, II, 1956, pp. 552.

16) Zitiert O. Bauer: Die Nationalitätenfrage und die Sozialdemokratie, 1925, S. 405.

그러나 當時 오스트리아의 政治體制는 바우어의 如上한 民族理論을 容認할 수 없는 形態의 것이었다. 即 「市民的·中央集權的憲法」은 國內諸民族羣의 國民各人(Staatsbürger)을 一括的으로 同一視했을뿐, 法的統一體로써의 民族을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各民族은 民族的인 党派에 依해 組織된 그들의 議員들을 通해서 그들의 要求를 提議하는 道리밖에 없었고, 그 反面에 그 議員들은 民族的 利害의 代辦자로서 자꾸 勢力擴大에만 專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畢竟엔 派黨形成과 民族鬪爭이 모두 權力鬪爭의 性格을 띠게 되었으며 이것이 합스부르크帝國內의 複雜한 民族的 對立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民族의 勞動者 階級은 各民族에게 하나의 一定한 權力範圍(Machtsphäre) 주어지게 하고 그것에 依해서 諸民族의 權力鬪爭을 終熄시킬수 있는 하나의 憲法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同憲法은 各民族에게 自由로운 文化的 發展의 可能性을 주어서 모든 民族의 勞動者들로 하여금 自己 民族文化에 關与할 수 있다는 期待를 갖게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憲法 成案을 爲해서는 亦是 「個人的 原理」에 歸着되는 改革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기 爲해서는 오스트리아는 먼저 民族的으로 區劃된 많은 自治體(Selbstverwaltungskörper)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民主的인 多民族國家」(demokratische Nationalitätenstaa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民族自治體의 立法과 行政은 一般選舉權, 直接選舉權, 平等選舉權에 立脚해서 選出되는 民族議會

(Nationalkammer)를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同一民族의 全自治體는 民族的 諸問題를 完全히 自治的으로 處理하는 權限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調整된 民族居住地帶內的 少數民族은 「公的인 法的團體」(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로서의 性格을 띄고 自己의 轄界를 自治的으로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民族問題의 解決을 爲해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이와같은 組織을 形成한다면 바우어의 見解로는 이것은 行政共同體(Verwaltungsgemeinschaft)의 國際的 組織인 「國際法共同體」(Völkerrechtsgemeinschaft)의 中核이 되는 것이다. 即 「民族共同體」(Nationales Gemeinwesen)를 自治的인 構成員으로 하는 새로운 種類의 一大 國際共同體의 成立이 可能한 것이다. 諸民族이 共同으로 自然을 支配하기 爲해서 文化에 關聯되는 人間全體를 交合시켜 人類를 自治的인 文化共同體에 編成하여 제각기 自己의 民族的 文化財를 享有케 하고 나아가선 各己의 民族文化 發展을 促할 수 있게 하는것이 社会民主党的 「民族」에 對한 窮極目標이었다.¹⁷⁾ 그러나 위와같은 바우어와 라너의 民族問題 解決과 더불어 國家發展 思想은 制度와 機構를 通해 帝國統治의 秩序를 確立하려 한 卓越한 法律思想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꼭 當時의 形勢를 秩序

註17) Vgl. H. Hantsch: Die Nationalitätenfrage in alten Österreich, 1953, S. 74f.

지을 수 있는 完全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라너의 境遇를 보자. 합스부르크帝国内에 民族共同體와 民族的地域이라는 두개의 組織體를 만들어서 이 兩組織의 協力에 依해 各民族에게 文化的 自由를 賦與하면서도 政治的 中央權力에 依해서 帝國統治의 圓滑을 期하려한 라너의 構想에는 두개의 커다란 欠陥이 內包되어 있다. 그 첫째는 그의 構想의 現實性이 稀薄하다는 点이다. 왜냐하면 그가 提示한 複雜한 國家機構를 操縱하기 爲해서는 帝国内 各官庁이 「權限」을 에워싸고 끊임없이 對立할 것이며 必是 그로 因해서 큰 境界를 設定한다는 그 自體에 벌써 어려움이 介在되어 있는바 「오스트리아·헝가리帝國」의 不自然한 國境을 그대로 둔채 그 内部에 各民族의 「自治的地域」을 세운다는 것은 폴란드어나 루테니아인처럼 帝國國境의 건너편에 많은 同胞를 남겨둔 民族에게 到底히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民族的인 對立이라는 問題에 對해서도 帝國議會가 民族的인 「地方議會」(Landtag)의 문제를 받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는한 同問題를 調整 또는 收拾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点이다. 또한 當時의 帝國政治를 보더라도 라너가 생각한 것 처럼 政治·經濟와 文化가 分明히 區別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帝國政策이 帝國民 全體의 共通되는 利害關係라고는 하지만 其實은 民族的 生活에 關係되는 個個事項을 一括적으로 다룬 것에 不過했었다. 一例를 들어 「Brun黨大會의 決議」만 보더라도 民族的 文化問題의 範圍와 中央政府가 取扱해야 할 共通諸問題의 範圍에 關한 區別이 明確하지

못했음으로 해서 党内的 独逸人は 그後에도 經濟問題를 中央政府가 取扱할 것을 要求했었고 폴란드人이나 체코人은 그에 反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諸点으로 보아 라너의 提唱은 亦是 非現實的인 論理的 構成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둘째 欠点으로는 그의 構想에는 急激한 變革에 反對하는 諸勢力을 抑圧할 強硬策이 欠如되어 있는 点이다. 오스트리아에는 이미 오래 存続해온 많은 歴史的 制度가 있고 이것이 또한 그 人間들의 生活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特히 王朝的 傳統을 잇는 帝國官吏들이 在來의 官僚的 行政組織 全體를 危脅해오는 強制的 干涉에 對해서 完강히 反抗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었다. 그런가하면 反面에 라너의 새 秩序가 체코政治家들의 同意를 얻기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 왜냐면 라너의 計劃이 그들의 未來에 對한 國法的인 希望을 消滅시키는 것이었고 特히 青年체코黨의 急進主義가 高潮된 當時의 形勢로서는 그들을 다만 文化的 自治만으로 滿足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라너와는 다르지만 이미 20世紀 初頃에 라너의 構想과 흡사한 方法으로 帝國內의 民族紛糾를 暫時나마 緩和시킨 事實이 없지도 않았다. 그 實例를 들면 1905年 Mähren의 地方議會는 獨逸人系와 체코人系로 分割되어 있어서 各系는 民族別의 選舉組織을 通해 議員을 選出했었다. 그 리하여 各町村은 自己 職場內의 公用語와 外部와의 連絡語를 그들 스스로 決定할 뿐만 아니라 州의 中央官署와의 連絡語도 任意로 決定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教育面에서도 各地에 民族別로

학교와 教育委員이 定해지고 州教育委員會도 獨逸人과 체코인의 兩系에서 이루어져 있어 各民族의 自治權이 一但 確保되므로써 民族的 對立이 緩和된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방식이 1910년에는 Bukowina州에서 取해지고 또 1907年과 1914년에는 Galizia州에서도 施行되어 成果를 거두기도 했었다. 그러나 체코인과 獨逸人이 서로 조금도 不利해지지 않으려고 맞섰던 Bohemia州에서는 끝내 어떠한 協定이 成立되지 않아서 그 實現을 못보기도 했었다. 卽 라너의 計劃은 그러한 當時의 多樣的인 實情을 配慮하지 않았다는 點으로 보아 亦是 空想的인 「유티미즘」이라는 非難을 不免하기도 한다. 둘째로 바우어의 境遇를 보면 그의 想構은 分明히 將來의 國際聯盟이나 國際聯合의 構想에 通하는 中核을 內包하고 있는 點에서 注目되는 바 있다. 그 自身이 多民族國家 오스트리아의 生活體驗에서 얻은 知覺을 가지고 必是 오고야 말 時代에서 날카로운 先見을 立論한 데에는 思想家의 一家見이 認定되는 바도 있다. 그러나 當時의 現實政治가 그러한 Supernaturalistic한 國際的 휴머니즘이라는 다른 方向으로 發展되었기 때문에 그가 「民族問題와 社會民主主義」를 著述하고난 10餘年後에 합쓰부르크帝國에는 많은 民族的 主權國家들이 誕生했고 또 그 國家들이 市民的 내쇼날리즘에 依한 發展을 꾀했었기 때문에 民族紛糾의 終熄이란 遼遠한 問題가 되고 만것이다. 이러한 歷史過程을 概觀하는 立場에서 바우어의 理想을 評한다면 當時의 여러가지 多樣的 條件을 지녔던 합쓰부르크帝國의 形勢에서는 그의 構想도

亦是 文化的 樂天主義에서 비롯된 幻想이었다고 하는 判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마. Epilog

위에서 오스트리아의 社民党的 民族問題 解決案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同 問題 打決策은 위와같은 社民党的 懸案만이 아니고 基民党的 사이펠案, 포로비치의 「大奧合衆國案」(Die Vereinigten Staaten von Grossösterreich), 王家側의 帝國改造案 等 여러案이 提示되었지만 結局 同問題는 王朝沒落에 이르기 까지 決코 그 解決을 못보았었다.

이제 이 結論項에서 위와 같은 諸打決策의 骨子를 다시 한번 要約해서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너와 바우어의 代案은 個人의 原理와 領土的 原理를 適用한 새로운 法秩序 確立을 통해서 帝國內 諸民族에게 文化的 自由를 賦與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民族과 國家」라는 著書를 통해서 그의 民族理論을 展開한 사이펠의 境遇인데, 그는 民族紛糾緩和의 大前提로써 그리스도教的 사랑을 내세웠으며 帝國內 同胞들의 兄弟愛와 精神的 平和가 必是 大오스트리아의 統一的 國家秩序를 가져온다는 神政的 救世論을 立論한 것이다. 셋째는, 루마니아의 政論家인 포포비치의 理論인바, 이것은 帝國內의 15個 民族을 11個 民族으로 大別한 所謂 大奧合衆國案이었고 넷째, 王家側의 帝國統治 改革 試圖란 체코, 폴란드人들의 一部에겐 自治權을 많이 許用하는 反面에

一部分의 南슬라브側에게 中央集權的인 權力行使을 더 強硬하게 取하는 政策이던 바 이것은 卽 20世紀 初頭의 世界國家群이 帝國主義的인 外政을 斷行한데에 便乘하는 國勢擴張을 爲한 마지막 試圖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19世紀 후반의 王政을 이 끌어온 후란쯔·요셉皇帝(Franz Josef, -1916)와는 달리 그의 繼承者인 후란쯔·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1914)은 Alexander Vaida-Voevod, Milan Hodza, Aurel Popovici 등의 有力한 政論家를 諮問客으로 두고서 트란스라이타니엔에 일어나는 諸問題를 細密하게 觀望하고 調整하기도 했었다. 二次大戰이 迫頭했을 무렵 그가 앞으로의 自己活動에는 南슬라브族이 第3의 Partner라고 企劃하지 않았던들 페르디난트는 세르브 民族主義者들의 敵對를 사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그러나 結論的으로 이와같은 諸試圖가 왜 實現되지 못한채 畢竟저 老大國은 沒落되고 말았느냐에 있는바 當時의 帝國內 諸民族은 帝國解體를 眞正 願했던 것인가를 確定해 보는 것이 此項의 問題點인 것이다. 一次大戰을 前後한 帝國民의 動靜을 볼 때 當時의 그들은 其實 帝國의 崩壞를 願치 않았었다는 것이 事實이다.

왜냐하면 1909年 보헤미아에 普通選舉가 施行된 後 民族紛爭이

때 緩和되었었다는 實例가 있거니와 다른 더 큰理由의 하나는 産業社會의 發達이 帝國內 国力伸張을 가져온다는 思潮에 帝國內 諸民族이 覺醒되어 있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帝國이 全體的 權力을 驅使해서 列強의 面모를 維持하는 데에 自己民族의 利害關係가 얽혀있음을 了解한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1914年 大戰 발발까지만 하더라도 社民黨側에서도 亦是 國家保存을 絶叫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帝國統治가 聯邦的 形態로 改造되기를 渴求한 그들이지만 그들도 亦是 끝내 도나우地域의 政治·經濟的 統一만은 維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勿論 大戰勃發後 戰爭의 長期化로 因해 오스트리아의 内外政情에 큰變化가 오자 오토·바우어 같은 이는 大帝國의 沒落을 豫見하고서 黨을 中心으로한 勞動者階級의 權益守護에로 그의 民族理論을 變更하기도 했었다. 卽 오랜 戰爭으로 因한 人民의 病廢, 러시아 革命의 成功에 따른 프롤레타리아階級의 政權獲得慾, 戰爭과 러시아 革命에 刺戟받은 帝國內 슬라브諸族의 文化的 自治權에 滿足치 않는 完全한 民族獨立 渴求 等等의 新事態가 벌어지자 바우어는 大帝國의 民族問題 解決이 不能事임을 知 하고 階級的 利害를 國家利害보다 더 上位에 두는 革命思想을 提示했었다. 卽 民族自決의

原則에 따르는 諸民族은 앞날의 政治에 있어 各己 勤勞者階級の 擁護를 爲한 社會主義的 發展을 圖謀해야 한다는 民主的인 民族思想에 轉向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쟁쟁한 民族理論이 있었지만 저 老大帝國은 必然코 世界思潮의 一環에서 沒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는 前提해 볼 때 그것은 한말로 해서 帝國內 諸民族이 帝國의 沒落을 막을 수 없는 処地에 있었다라기 보다는 저 沒落을 막기 爲해 저들이 適期에 團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쓰부르크가는 畢竟 世界史的 運命에 稀牲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大戦勃發後 거듭되는 混亂속에서도 帝國內 諸民族이 합쓰부르크家の 旗幟下에 뭉쳐 3年餘를 끈기있게 싸워낸 것을 보면 오·홍帝國의 沒落은 꼭 외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世界史란 理論的 歸結에 依해서 풀리는 数学的 問題와는 다른 것이기에 오스트리아史의 大家인 한취 (Hantsch)教授가 말하듯이 저 老大國의 沒落은 지금도 유럽의 마지막 普遍的인 國家秩序를 爲해서 現今이나 未來의 政治家들이 各部門에 많은 配慮를 해야하는 諸要因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蘇聯의 民族政策

가. Prolog

帝政러시아의 꿈은 러시아의 文化的 同化(러시아化)를 통해서 유라시아(Eurasia)大陸을 支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17年の 革命後 레닌이 원한것도 帝政러시아의 外形的 崩壞를 막으며 同時에 프롤레타리아의 統一國家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領土的 統一을 유지함으로써 大帝國의 活力있는 經濟的 바탕을 마련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스탈린의 民族政策이란 事實上 레닌의 同政策을 더욱 구체화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蘇聯의 民族政策은 러시아인의 傳統的 國勢擴張을 目標로 한것이기 때문에 蘇聯邦 建立後 줄곧 내정상의 第1가장 어려운 問題중의 하나가 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蘇聯의 歷代政治指導者들은 階級的 利益이라는 統一된 革命思想을 내세워 聯邦內 諸民族의 獨立, 分離傾向을 억제했던 스탈린의 民族政策이 樹立된 後, 繼續 言語的 文化的 러시아化政策을 구사해 왔고 또 지금도 施行하고 있다.

蘇聯의 現指導層은 50년에 한 同政策이 성공적이었다고 前提하고 이제는 이 民族問題를 겉으로나마 크게 重要視하지 않고 있지만 (1976年の 第25次 黨大會에서 民族問題는 거의 論議되지 않고 있음)²¹⁾ 尙今 非러시아系 人口가 漸增하고 있고 또 都市化와

註 21) G. Simon, 'Nationalitätenpolitik', In: Osteuropa, Heft 8/9/1976, S.673.

工業化에 따른 非러시아系 인텔리層形成等이 새로이 내셔널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民族問題는 결코 完全히 타결된 問題가 아니고 언젠가는 필시 蘇聯 政治를 크게 뒤흔들 커다란 潛在要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帝政러시아 때를 동경하는 保守系의 反體制運動이든 또는 '新左派'의 사상성을 지닌 聯邦內 젊은 엘리트層이 벌이는 反體制運動이든간에 同運動이 擴大·展開되는 날엔 이 民族問題가 發火의 불씨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필자는 여기에서 1939-59年間の 20年間に 있었던 出生率 및 슬라브國 移住狀況에 의한 全聯邦의 人口分布를 中心으로 蘇聯民族政策의 諸問題를 먼저 檢討·確定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現指導層은 50년에 亘한 民族政策이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과연 中央政府의 言語政策과 移住를 통한 同化試圖는 非러시아系의 人種的 民族的 特色을 줄곧 算術級數로 감소시킨 것이며, 또 非러시아系의 人口증가는 지금 아무런 政治的 의의가 없는 것인가 등의 問題를 檢討해 보련다. 필자가 추구한 바로는 中央爲主의 經濟政策이나 또는 非러시아系에 대한 民族的 잔재의 말살시도는 新民族主義的 傾向을 낳았을 뿐더러 聯邦內 諸民族간의 言語的 差異도 階級的 差異가 消滅되는 과정보다 훨씬 더 時間을 要하는 問題였기 때문에 이를 立証해 보고자 한다.

나. 1939-1959년간의 聯邦內 民族分布 狀況

蘇聯을 이끌어 가는 실제적인 蘇聯人은 大러시아系이다.

民族勢力의 人口分布狀況으로 보면 이들은 全蘇聯人의 반수를 겨우 넘는 53.4%에 不過하다. 그러나 인종적으로 그들과 닮은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러시아(Belorussia)인을 포함하면 全人口의 3/4이 되며 그럼으로써 저들은 일반적으로 東슬라브의 特色을 갖는다.²²⁾ 그러나 다른 한편 聯邦內에 사는 러시아系를 제외한 余他 民族은 여러 계보로 갈라져 있음으로써 이들이 소위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저들은 대개 일정지역에 集住하기 때문에 蘇聯人의 精神生活이나 政治·經濟生活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相當한 역할을 하고 있다.

蘇聯內의 非슬라브系 諸族이 과연 어느만큼의 自立生活을 할 수 있는가는 물론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러시아인들의 政治에 달려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諸少數 民族의 活力과 그 民族的 傳統과도 직결되어 있다.

蘇聯共産党的 民族政策은 10月革命 直後를 제외하고는 諸時機에 있어서 다소 強弱度의 차이는 있었지만, 始終 非슬라브族 뿐만 아니고 非러시아系 슬라브族까지도 포함해서 이들을 점차 同化하는데 역점을 두었었다. 同러시아化政策이 일반적으로 大部分 公然하게

註22) 1959년의 54.6%가 1970년에 53.4%로 떨어졌다.

Siehe dafür G. Simmons 'Ausatz, Nationalitätenpolitik',
In: Osteuropa, Heft 8/9/1976, S.672.

행해진 強制的인 것이었지만 스탈린이 執權하면 서부터는 더욱 심했다는 것을 지금 西方側 文獻들은 的確하게 傍証하고 있다.²³⁾

그러나 이와 같이 強制的이고 攻撃的이었던 蘇聯의 民族政策이 50年代 이후에는 防禦的이 되었는데 그 理由는 非러시아系의 出生率이 높아진 反面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出生率은 低下된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系도 部分的으로는 50年代 後半부터 다시 높아지기도 했지만, 하여튼 蘇聯 人口 全体的 統計로 보면 非러시아系의 數値가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中央의 民族政策이 強压的 攻撃的 性向을 버리고 디펜시브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聯邦內 諸民族勢力分布狀況은 戰前의 상황에 비하면 逆轉現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戰前의 상황은 戰後와는 달랐다. 즉 1945年 이전엔 大러시아系가 人口증가율도 높았고 또 同 人口膨脹이 政治·經濟·文化等 諸分野를 이끌어 가는데 安정의 기반이 되었었으며, 또 그럼으로 해서 러시아系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余他民族을 同化, 吸收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余他民族壓制가 지나간 오늘, 한편으로는 러시아系의 人口증가가 低調인데 反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1930年과 1950年 사이엔 대체적으로 沈滯狀態에 있던 非러시아系가 種族繁殖과 더불어 점차 活力을 더하고

註23) Osteuropa, Heft 3/1961, S.212-226.

있고 또 民族意識도 堅持하고 있는것이 부각되었다.²⁴⁾

그렇다면 蘇聯民族政策의 장래 問題는 위와 같은 새로운 事實과 그 發展傾向의 向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5 個年計劃'들의 계속 추진을 통해서 蘇聯社會의 工業化가 이룩되자 그에 곁들여 都市化도 꽤 進拓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統計上의 都市民數를 보면 1926 年엔 全人口의 15%였던 것이 1939 年 32%로 늘었으며 63 年에는 52%가 되었다.²⁵⁾ 그런데 이 도시화는 蘇聯內에서 슬라브系가 사는 곳이 余他地域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다. 물론 他地域에서도 도시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소 進拓되었던 이 都市化도 事實上 러시아系의 同地域移住가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化는 都市化가 유도했고 또 러시아文化에로의 同化도 部分的으로나마 都市에서 容易했던 것을 알 수 있다. 非슬라브系의 地方民들은 다만 겉으로(皮相적으로) 러시아化한 것 뿐이었지만 近來에는 러시아系와 東슬라브族의 자연적인 人口增加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꽤 러시아化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一般的인 發展傾向을 보면 오는 10-20 年內에 蘇聯內에 蘇聯內의 非슬라브系가 占有하는 全人口의 比率이 달라질 것이 確實

註 24) Osteuropa, Heft 7/8/1964, S.539 ff.

25) K.E. Wädekin, "Nationalitätenpolitik und Lebenskraft der Völker in der Sowjetunion", In: Osteuropa, Heft 11/1964, S.838.

하다.

아래의 統計圖表를 根拠로 해서 蘇聯内の 諸民族勢力分布를 分析해 보자. 同統計는 蘇聯内の 蘇聯 Unionsrepublik, 個個의 県, 주요 도시등을 중심으로 1940-60年間을 集計한 것인데 每年 住民 1,000名을 대상으로 그 출생율을 算出한 것이다. 死亡率은 戰前에 비해서 全地域이 많이 平衡되었기 때문에 同統計는 死亡率을 除外했으며 出生率만을 取扱하고 있다.

이 統計로 보면 아래와 같은 一般的 特色을 確定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系 출생율은 1950년이래 全蘇聯의 出生率에 비해 많이 低下되어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에서도 低下되어 있지만 그 低調傾向은 아주 서서히 기울어져 있다.

셋째, 東슬라브연공인 벨로러시아 (Belorussland)에서도 계속 低下되어 있지만, 그 低調率은 一定치 않았으며, 1960年代 初의 出生率은 우크라이나나 余他の 러시아系 共和国보다 高조되어 있다.

넷째, 레틀란드 (Lettland)도 역시 低調現狀이며 러시아人の 數보다도 더 낮다.

다섯째, 리타우엔 (Litauen)의 경우는 발틱의 다른 隣接共和國과는 다르다. 즉 出生率이 높을 뿐만아니라 1953-58년간에는 아주 많이 상승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른 러시아系

Tabelle 1: Geburtenraten in der Sowjetunion, ihren Unionsrepubliken und einzelnen Provinzen und Städten 1940 und 1950-1961 (Zahl der Lebendgeburtten pro 1000 Einwohner und pro Jahr (26))

Jahre:	1939	1940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UdSSR	36.5	31.3	26.7	27.0	26.5	25.1	26.6	25.7	25.2	25.4	23.7	23.2	21.9	20.2
Russische SFSR	33.0	33.0	29.0	29.2	29.1	27.8	30.3	29.7	26.7	27.3	25.7	25.4	21.9	20.2
davon: Wologda (Prov.)	33.1	25.7	25.5	25.0	24.0	24.4	25.9	24.4	23.0	23.9	23.5	22.6	21.9	20.2
Gorkij (Prov.)	33.4	23.4	24.3	22.5	21.2	22.3	20.1	17.8	18.4	18.4	18.5	18.3	20.1	21.3
davon Stadt Gorkij	36.0	21.0	21.9	21.3	21.2	23.0	21.3	20.7	20.7	20.8	19.8	20.2	20.1	21.3
Saratow (Prov.)	38.4	31.7	27.1	27.1	27.1	27.1	27.1	27.1	24.7	24.0	24.1	23.4	22.8	21.3
Swerdlow (Prov.)	45	40	32	32	32	32	32	26	23	23	22	21	20	20
Tscheljabinsk (Prov.)	40	38	37	36	34	33	33	30	27	27	27	26	24	20
dav. Stadt Tscheljabinsk	59	57.8	52.4	49.3	47.8	46.4	45.0	43.6	42.2	40.8	39.4	38.0	36.6	35.2
Primorje	57.8	52.4	49.3	47.8	46.4	45.0	43.6	42.2	40.8	39.4	38.0	36.6	35.2	33.8
Sachalin	36.1	29.6	29.8	29.3	27.9	27.4	29.3	27.2	27.6	29.0	28.7	28.5	28.5	28.5
Tschuwaschen-ASSR	32.9	27.8	27.9	27.8	27.4	27.4	29.3	27.2	27.6	29.0	28.7	28.5	28.5	28.5
Mordwinen-ASSR	37.1	26.2	37	36	35	35	36	34	34	34	34	34	34	34
Tataren-ASSR	27.3	22.8	22.8	22.1	20.6	21.6	20.1	20.5	20.5	20.8	21.0	20.9	20.9	20.9
Burjat-Mongol. ASSR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Ukraine	26.8	25.5	25.5	24.7	22.9	25.0	24.9	25.3	25.3	25.3	26.0	25.3	24.5	23.5
davon: Transkarpaten-Prov.	38.9	37.8	32.7	31.5	32.5	30.4	30.3	31.0	30.3	31.0	30.8	31.5	29.2	28.2
Nikolajew (Prov.)	19.3	17.0	16.7	16.3	15.6	16.6	16.4	16.0	16.0	16.3	16.8	16.7	16.7	16.7
Belorußland	22.4	23.6	22.7	21.9	20.2	20.8	21.1	20.2	20.2	21.1	22.8	22.7	22.5	22.2
Moldau-SSR	27.4	23.5	23.9	24.6	22.6	24.7	24.1	23.7	23.7	23.0	23.4	24.2	24.7	24.7
Letland	41.2	31.5	35.5	37.4	34.5	37.9	37.4	37.9	37.9	39.4	40.5	41.8	41.8	41.8
Litauen	29.4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Georgien	42.1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Armenien	46.1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Aserbaidschan	52.8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37.6
Kasachstan	36.5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40.4
Prov. Nord-Kasachstan	33.9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Prov. Zelinograd	33.0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Prov. Ksyl-Orda	30.6	30.4	30.5	33.4	32.4	32.9	33.8	34.2	34.2	33.1	29.0	30.4	33.8	34.4
Usbekistan	33.0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Kirgisien	30.6	30.4	30.5	33.4	32.4	32.9	33.8	34.2	34.2	33.1	29.0	30.4	33.8	34.4
Tadschikistan	30.6	30.4	30.5	33.4	32.4	32.9	33.8	34.2	34.2	33.1	29.0	30.4	33.8	34.4

Kursiv gedruckte Zahlen wurden vor der Volkszählung von 1959 erhoben und sind revisionsbedürftig.
 ※ 고된세 숫자는 1959년의 人口調査 이전에 修正을 요하는 숫자임

註 26) 이 統計는 Ost europa, Heft 11/1964, S. 839 의 것이다.

共和國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여섯째, 아주 특기할 만한 事實은 '터어키諸族'이 많이 사는 카자크스탄 (Kasachstan), 우주베키스탄 (Usbekistan), 키르기지엔 (Kirgisien), 타지키스탄 (Tadschikistan), 투르크메니엔 (Turkmenien), 트란스코카서스地方의 아서바이잔 (Aserbaidshan)등 연공이며 또 타타르 (Tataren)族이 사는 아시아地域 蘇聯 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出生率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이다.

일곱째, 아르메니엔 (Armenien)도 게오르기엔 (Georgien)이나 트란스코카서스地域의 第3共和國과 거의 비슷한 높은 出生率을 보이는데, 특히 1950年이래 계속 상승해서 지금은 슬라브族의 出生率보다 높아져 있다.

여덟째, 러시아系 共和國內에서는 非슬라브系 自治共和國의 出生율이 슬라브족이 집주하는 地域의 出生率보다도 높을 뿐더러 러시아系 共和國 全體의 平均値보다도 높다.

아홉째, 위의 表에 나타난 고르키 (Gorkij)나 쉘자빈스크 (Tscheljabinsk)市の 경우를 보면 역시 다른 地域도 대체로 마찬가지이지만 諸都市의 出生率이 地方(시골)보다도 급속히 低下하기 리때문에 도시와 지방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隔差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아홉가지가 위의 統計表의 분석을 통해서 본 人口增減狀況의 諸局面이다.

결국 러시아系 공화국의 出生율의 全蘇聯邦보다도 더 심하게 低調인 原因은 주로 급속한 도시화에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大 러시아族의 불리한 年齡構造 및 性別構造에도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²⁷⁾

出生 및 死亡에 따른 人口增減의 자연적 현상 외에 中央政府의 移住政策은 如何히 수행되었나를 보자. 蘇聯內的 유럽쪽 슬라브系에서 여러 주요공화국에서의 人口消滅度는 1939-59년에 걸쳐 우랄 地帶, 시베리아 및 極東地帶에서 증가된 약 1千萬의 數와 거의 一致된다.²⁸⁾ 결국 同傾向에서 蘇聯邦 전체의 減少現狀을 감안할 수 있다면, 지난 20年동안 蘇聯의 슬라브系는 거의 늘지 않고 아시아地帶쪽에서만 人口增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59年의 人口調査時, 250萬의 러시아人, 우크라이나人, 벨로러시아人이 4個의 中央아시아共和國에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대개 1939年히래 그곳으로 移住해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²⁹⁾ 그리고 또 1959年 現在 500萬의 슬라브系가 카자크스탄에 살고 있지만 이들의 折半 以上은 2次大戰中 工業이 동방으로 移轉됨에 따라 그곳에 왔거나 또는 스탈린 死後에 同地帶이 새로이 獲得됨으로써 그곳에 온 사람들이다.³⁰⁾ 그리고 카자크스탄에 있는 95萬의 獨逸人은 대부분이 1939年 이전엔 그곳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³¹⁾

註 27) Osteuropa, Heft 11/1964, p.844 의 統計表 参照.

28) Osteuropa, Heft 11/1964, S.848.

29) 前掲書, p.848.

30) 前掲書, p.848.

31) 前掲書, p.848.

위위의 統計數字로 볼 때 250내지 350萬의 슬라브族은 1939-59年 사이에 투르케스탄 (Turkestan)과 트란스카우카지엔 (Transkaukasien)으로 移住해 온 사람들이다.³²⁾ 저 때의 總人口 增加는 트란스카우카지엔이 148萬이요, 余他の 4個 中央아시아 共和國이 314萬인데 이는 移住해 온 것으로 推測되는 數보다 훨씬 많은 數인 것이다.³³⁾ 그렇기 때문에 結論적으로는 그곳으로 移住해 왔다고 推測되는 數보다는 대체적으로 그곳 自体에서 出生한 數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카자크스탄에서는 322萬의 總增加數가 移住해 온 人口의 大部分인데 反해서 투르케스탄과 트란스카우카지엔에서는 1939年이래 그곳에 정착한 슬라브인이 대부분인 것이 이색적이다.³⁴⁾

바꾸어 말하면 1939-59年 사이에 유럽地域쪽의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러시아 등지의 住民增加가 沈滯되어 있는 동안 다른 많은 處에서도 오히려 더 低調現狀을 보였고, 그 반면에 시베리아의 슬라브人口만이 늘었다는 結果가 된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時期에 트란스카우카지엔과 中央아시아 非슬라브系 住民은 全地域에서 여실히 增加했던 것이다. 이것은 1950年이래 높은 出生率을 가졌던 結果인데 특히 스탈린時代 末期부터 全蘇聯 人口에 있어 이

註 32) 前掲書, P.844.의 統計表 參照.

33) 上掲書, S.848.

34) 前掲書, S.848.

種族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갑자기上昇한 것이다. 蘇聯共産黨綱領이 提示한 바와 같이 諸民族의 混合이 성취되었다고 내다 보이는 1980年 무렵에는 아마 트란스코카서스인과 諸터어키族이 蘇聯內에 4,000萬이 넘을 것이다. 이 數字는 1909年의 全人口의 12%에 비해서 15%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슬라브族의 數値는 76.5%에서 74%로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蘇聯邦 全體의 狀況으로 볼때 이와 같은 民族分布의 比重의 變化는 初期에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카자크스탄을 除外한 中央아시아의 경우를 例든다면 다른 슬라브系가 1959年의 18.5%에 비해서 14-15%로 低下되었으니 이는 約 1/4이 줄어든 셈이다. 결국 數千의 슬라브系가 中央아시아로 移住해 오는 것이 이러한 發展傾向을 저지할 것이겠지만, 1939-48年間의 出生率이 낮았던 것으로 보면 불원한 장래에 시베리아와 極東地域의 植民計劃과는 아무런 關係없이 中央아시아 人口減少現狀이 현저해질 것이다. 결국 蘇聯指導層이 종래의 方法으로 러시아化政策 (同化政策)을 強行하여 成果를 거두려 한다면 그들은 그 目的 達成을 위해서 좀더 강경한 方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이와같은 民族政策은 中·蘇紛糾로 말미암아서 이미 오래前부터 새로운 難關에 봉착해 있다. 왜냐하면 同紛糾가 中·蘇의 境界線을 넘어서서 蘇聯邦內 터어키諸族의 民族意識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의 中央政府가 긴안목에서 民族撫摩策을 강구

한다면 그것은 中央아시아를 쉬이 工業化시키는 도리밖에는 없다. 즉 工業化로 인해 저들의 生活이 向上되면 점차 터어키諸族의 出生率이 저하되어 마침내 러시아系 水準과 平衡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民族 同화책은 中國 邊疆의 東투르케스탄에게도 物質生活의 豊饒를 가져다 주어 마침내 저들이 中國側 宣傳에 動搖하지 않고 中立을 지키게도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蘇聯은 당연히 同地域에서 대대적인 投資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同地域의 매년 人口增加率は 약 3%인데 住民數와 社會生産力間의 競爭은 여전히 後進國的 狀況에 놓여 있다.³⁵⁾

다른 한편 트란스카우카지엔은 地理的 好條件으로 인해 中·蘇 紛糾의 큰 影響을 받지 않지만 人口增加는 蘇聯의 極東地域에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바이칼湖 (Baikal See)와 블라디보스톡간의 蘇聯諸省은 지금 中國人이 많은 民族的 要求를 해 오는 地方이지만 事實上 이곳은 住民의 80-90%가 슬라브族인 실정이다. 즉 러시아系 移住이전의 시베리아종족은 極小數에 불과했던 것이다.³⁶⁾ 이곳의 非슬라브系 大種족으로서는 자쿠텐 (Jakuten)을 除外하고는 蒙古系의 부르야텐 (Burjaten) 뿐이다. 1959年 1月 15日字의

註 35) 前掲書, S. 849.

36) 住民의 80-90%는 Slav系의 塞方族인 Narai族임을 蘇聯學者들은 考證하고 있다. L. Beskrownj, "Histoy of the Formation of the Russo-Chinese Border", In: International Affairs, 7/1972, pp.11-22.

調査에 의하면 그들은 다만 251,504名에 불과했다.³⁷⁾ 이들은
터어키종족처럼 지난 수년 동안 急速한 增加率을 보였는데 그들
중의 43.4%는 1959年 現在 20세 미만이고, 23.9%가 44세
이상인 年齡構造를 가지고 있다.³⁸⁾ 그리고 또 1959年 1月 現在
236,125名을 算하는 자쿠텐의 年齡構造는 44.5%가 20세 미만
이고, 21.2%는 44세 이상이 되어 있다.³⁹⁾ 極東地域 人口 都合
457萬 중에서 다소나마 影響力있는 役割을 하는 族屬은 위의 두
종족뿐이다.

1939年에서 1963年에 걸쳐 약 200萬의 極東地域住民이 늘어
난 것은 주로 유럽地域으로부터의 移住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同地域에 '住民化'된 것은 소위 中·蘇間의 政治
的 對立에서 결실된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 極東의 지 방대
한 地域을 獨自적으로 活力있게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
태다. 저곳은 아직도 대대적인 物資投入과 人間의 集住가 行해져
야 하는 곳이다. 蘇聯人이 지금 中央아시아와 트란스카우카지엔에
슬라브系의 移住부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理由 때문
이다. 그러나 시베리아 建設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同計劃은 어디
까지나 彌縫策에 불과하다. 蘇聯의 民族政策이 위와 같은 諸聯関

註 37) 前掲書, S.850.

38) 前掲書, p.844 의 統計

39) 前掲書, p.844 의 統計

에서 일사불란한 推進을 못 본것이라고 할 때에 世界大戰만이 아니고 工業化, 集團化, 收容體制, 中央執權의 經濟의 失敗 등등 一聯의 불세비키政策으로 말미암아 活力面에서 약화된 러시아 슬라브族이 시베리아와 東部領域(極東地域)에서 그들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선 最大限의 努力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諸惡條件이 除去되지 않는 한 蘇聯의 民族政策은 '防禦的'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中·蘇경우지역에선 더 '防禦的' 立場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蘇聯共産党的 党綱領이 明示한 '民族의 混合'(Verschmelzung der Völker)이라는 問題는 저들이 위와 같은 달레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方途이기 때문에 내건 슬로우전이다. 그래서 러시아人들은 1959年 이래의 러시아化 試圖에 있어 民族의 混合策을 아주 開放的으로 合理化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지금 世界共産主義의 三分五裂 경향으로 보아 위와 같은 러시아人의 試圖가 성공될 것인가는 아주 疑問이다. 왜냐하면 蘇聯邦內 非슬라브系의 유기적 發展이 수행되고 있고 또 汎世界的 내셔널리즘의 일깨움이 蘇聯의 위와 같은 發展(民族同化策)에 反하는 趨勢이기 때문이다.

註40) Osteuropa, Heft 1/1971, S.440.

다. 스탈린의 民族理論

1917 年의 사명을 전후한 러시아는 民族紛糾로 인한 '奧匈帝國' (Austo-Hungarian monarchy)의 沒落過程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도 역시 그 자신의 民族問題에 적지 않은 心血을 기울였다.

1920 年에 이미 스탈린의 民族理論이 定立된 것도 사명후 大帝國의 外形的 統一을 유지하고 蘇聯내 諸民族을 '하나의 Sowjetvolk'로 묶기 위한 것이었다. 蘇聯의 러시아化 運動은 지금도 의연히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들 民族政策의 전모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먼저 스탈린의 民族論을 簡略하게 풀이해 보는 것은 결코 無意味하지 않다.

1920 年 스탈린이 立論한 民族政策을 보면 聯邦內 諸民族의 '民族自決權'을 認定했지만 이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들어 辺疆 諸民族의 中央政府로부터의 離脫을 막은 하나의 欺瞞政策이었다. 스탈린은 民族의 自決權에 言及하기를 中央과 辺疆地域關係에 있어 辺疆이 러시아로부터의 分離를 要求하는 傾向은 止揚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中央과 辺疆과의 '聯邦' 形成의 원리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根本적으로 대중의 利益에 矛盾되기 때문에 ' 41) 라고 했다.

스탈린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民族自決을 認定한다는 점에서

註 41) G. Cleinow, 'Die Nationalitätenpolitik in der Sowjetunion', In: Osteuropa, Heft 8/9/1975, S. 728.

1900年代 初期 오스트리아 社民党的 '帝国内 諸民族의 文化的 自治'⁴²⁾를 許容한 民族組織위에 서는 民主的인 聯國家論을 批判한 것인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오스트리아 國家의 存統을 前提하는 者들의 '文化的 自治' 理論은 옳지 않다. 각 民族의 文化的 自治에 立脚한 聯邦的 國家組織이란 프롤레타리아의 統一을 유지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統一된 階級運動이 民族的으로 散在分裂되고, 民族間的 對立을 惡化시키는 地盤을 壤으므로써 마침내 混亂을

註42) 民族이란 하나의 歷史的 概念이다. 한 民族의 特色은 그 固有한 文化와 生活樣式에 있다. 따라서 多民族國家 안에서 個個民族의 文化的 自治가 行해질 수 있으면 그 나라의 民族紛糾는 解消되는 것이다. 결국 이 文化的 自治를 施行하기 위해선 帝国内에 地域共同体 (Territoriale Gemeinschaft)와 個人共同体 (Personalle Gemeinschaft)를 並存시켜 個人의 原理 (Personalitätsprinzip)가 地域의 原理 (Territorialitätsprinzip)를 補完하여 自民族의 文化的 自治에 參與할 수 있도록 各自에게 民族的 權利를 賦与한다는 것이다. 즉 帝国内의 全住民이 自己 스스로가 特定民族에 屬함을 認定하고 그 民族登錄簿 (Kataster)에 登錄함으로써 그 民族共同体 (Nationale Gemeinschaft)의 權利를 享有할 수 있다고 본 民族紛糾 妥決案이다. 拙稿, <오匈제국의 민족문제>, <동국대 논문집>, 5輯, 1968.

야기시킬 뿐이다.' 43)

스탈린의 이같은 論駁은 被抑圧 少数民族에게 本国으로부터 分離
해 나갈 수 있는 權利가 부여됨으로써 참된 平等을 얻는 각 民
族의 프롤레타리아를 1個革命政党에 集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세비즘에 의한 諸民族의 結合을 통해서만이 民族問
題의 解決은 可能하다고 본 것이다. '세계의 被抑圧 民族은 帝
國主義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國際的 鬪爭에 參與함으로써만이 解
放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같은 프롤레타리아의 社會主義를
위한 階級鬪爭에 利益을 가져온다고 判斷될 경우엔 民族의 文化的
自治가 아닌 民族의 自決權, 즉 分단의 自由가 戰術적으로 承認될
뿐이다. 民族의 自治를 民族自決과 대치하려는 것은 커다란 誤謬
다. 民族의 自治는 多民族으로 形成된 오스트리아의 國家的 보전
을 當初부터 가정하는 것이지만, 民族自決은 國家的 보전을 더 넘
어서는 것이다. …… 自決은 한 民族에게 主權을 부여하지만 民
族自治는 겨우 文化的 權利를 賦与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44)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이 오스트리아 社會主義者들의
民族論을 위와 같이 批判한 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었다.

註 43) J. Stalin,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 「大月版전집」,
pp.366-7.

44) J. Stalin, 前掲書, p.362.

多民族國家의 社會主義者들에 의해 定立된 民族論이 帝政러시아의 革命的 클럽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 當然했기 때문이다. 20世紀 初 帝政러시아에서도 民族主義가 高潮되어 辺疆地方의 少數민족간에는 모스크 바로부터의 離脫運動이 일어났다. 볼셰비키들은 유다인의 社會主義 組織體인 'Bund'와 코카서스社民黨의 一派로부터 도전을 받았으나 이 클럽은 民族의 文化的 自治原則을 좇아 民族 Nationality 爲主로 러시아社會主義運動을 展開하려 했었다. 즉 저때만 해도 저 革命클럽은 오스트리아社民黨의 主張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러시아社民黨은 第2次 全党大會에서 Bund派의 國家組織 問題에 대해서는 少數민족을 위한 文化的 發展의 自由保障을 要求했고 또 黨組織問題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어느 地域에 살든, 어떠한 言語를 쓰던간에 유다인 프롤레타리아의 유일한 代表'가 될 것을 要求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社民黨의 경우와 같은 點이다. 결국 레닌이나 스탈린이 오스트리아社民黨을 공격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黨과 綱領을 위한 鬪爭이었다. 즉 民族別 構成의 原則에 준할 경우 黨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어디까지나 그 統一을 維持하려는 決意가 뚜렷히 들어 있다. 이 論爭 이후 스탈린은 多民族으로 形成된 蘇聯이 볼셰비즘의 原則에 立脚해서 그 民族問題를 解決한 것과 옹호제국의 社民黨에 의한 民族自治計劃이 失敗했던 것과는 자주 대비했었다고 한다.⁴⁵⁾ 20世紀

註 45) E. Oberländer, 'Georg Cleinow, Über die Sowjetische Nationalitätenpolitik', In: Osteuropa, Heft 8/9/ 1975, S.729f.

初에서 1次大戰에 이르는 歷史過程을 되돌아 볼때 레닌이나 스탈린의 批判이 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다.

1次大戰 前에 無政府的 社會主義를 내걸기도 했던 레닌의 統治理念에 비하면 스탈린의 위와 같은 民族統治論은 國家觀을 뚜렷이 제시한 多民族 統治策으로서 未來指向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것은 將次 蘇聯의 大國的 發展을 위해서 黨理念을 國家的 政策目標에 組織化하겠다는 指針公表로서 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後 스탈린은 그의 權座가 점차 굳어지자 民族自決의 原則같은 것은 걸으로 내건 슬로우건이었을 뿐, 暴力까지 사용한 完璧한 行政的 方法으로 移住政策과 言語政策 등을 구사했으며 辺疆諸族의 러시아화를 강행했었다.

그를 繼承한 후르시초프는 어떠했는가? 러시아化試圖에 있어서도 역시 충실하게 스탈린을 이은 셈이다. 共產主義 發展에 있어서 하나의 母國語를 가진 하나의 '蘇聯國民' (Sowjetvolk)이 必須不可缺하다는 前提下에 民族混合을 위한 言語 및 移住政策을 착실히 移行했었다.

지금의 브레즈네프도 民族政策面에서는 역시 저들의 충실한 後繼者가 되어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主軸으로 해서 超民族的인 '蘇聯國民'이 形成되어야 한다는 指針下에 그는 지금 예전보다 더 強硬한 言語政策 및 移住政策을 강행하고 있다. 1964年만 해도 自由化 傾向의 一環에서 文化生活面에는 약간의 特惠도 許容

했던 그가 24次 党大会 때에는 蘇聯國民의 单一的 統一을 主唱
했고, 그리고 25次 党大会에서는 聯邦內 諸民族의 混合으로
말미암아 蘇聯人의 聯邦的 構造가 드디어 解体되었다고 豪言하는
정도이다. 現 브레즈네프 領導下에 民族同化策의 根幹인 言語政策
이 近來에 어떻게 行해졌는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라. 言語政策 및 經濟行政의 實際

스탈린 以後의 露語 擴大運動이 계속 強化됨에 따라 1959年
엔 1,000萬의 非러시아系가 露語를 그들의 母國語化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露語使用者數는 계속 날로 增加했다. 最近의 統計에
의하면 1970年 現在 1億 1,270萬의 非러시아系중 그 반수가
露語驅使能力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⁴⁶⁾ 1974年 蘇聯政府는 모든
靑少年이 장차 露語를 自由로驅使할 줄 알아야 한다는 一聯의
法令을 발함으로써 露語普及 自体는 지금 많은 成果를 거둔 實情
이다. 교과서도 새로이 全面 改編하고 非러시아系 學校가 新교과
과정을 시행했다는 것 등은 모두 新法令制定에 따른 施策이라고
할 수 있다. 80%의 學校가 모두 地方(시골)에 散在해 있기
때문에 저들 民族學校의 敎員養成期間을 5年으로 延長하여 語學과

註 46) G. Simon, 'Aktuelle Probleme der sowjetischen
Nationalitätenpolitik',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1/1975, S.3.

露文學 등으로 교과과정을 補完한 것 등도 모두 이 新法令 施行에 따른 措置들이다. 물론 地方學校 아동들이 人種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日常用語는 民族語이지만 敎習語 (Unterrichtssprache)는 國民學校 1學年부터 露語로 公用化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의 母國語인 民族語는 1個 敎科目으로 轉落·縮小시켜 놓았다고 한다.⁴⁷⁾

위와 같이 모스크바의 中央政府가 露語勸獎策을 尙경하게 取해 온 所致인지 우크라이나같은 곳은 10年前엔 露語學校에로의 就學이 아동들의 30%였던 것이 지금엔 40%로 늘어났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다른 한편 中央政府가 그토록 露語公用化를 서둘렀는데도 聯邦 全體의 狀況으로 보면 成果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1970年의 統計에 의하면 그들의 93.9%가 의연히 그들의 母國語인 民族語를 쓰고 있고, 또 全人口의 1/4이 아직도 露語 驅使能力이 없다고 한다.⁴⁹⁾

다른 한편 蘇聯의 民族政策에는 言語的 同化試圖 및 移住政策 이외에 中央政府의 經濟機構를 통한 地方行政間 보다는 分野도 마련되어 있으며 同政策도 역시 辺疆諸族의 抑圧에 적지않이 奏効한 것 같다. 이미 1920年代에 樹立된 蘇聯의 民族政策에는 經濟機構를 통한 中央의 地方行政干涉指針이 確固히 서 있었다. 즉

註 47) G. Simon, 前掲書, S. 4.

48) G. Simon, 前掲書, S. 5.

49) G. Simon, 前掲書, S. 4.

中央政府는 全國을 20個의 經濟權으로 분해했던 바 유럽쪽이 12個요, 아시아쪽이 8個였었다. 同經濟機構의 勞動分科委에는 勞動者 監督部署와 農民監督部署가 마련되어 있어서 同監督部署의 報告에 따라 中央은 各 地方에 대한 經濟支援을 計劃했었다. 즉 中央政府는 이 經濟機構를 통해서 非러시아系 民族의 오랜 文化的 元동력의 死滅을 試圖했는데 同政策이 非러시아系 民族의 彈圧에 間接적으로 크게 主효한 것 같다.

非러시아系 諸族은 中央政府의 文化政策에도 만을 품었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生活에 直結되는 地方經濟行政에 대해 더 完강한 權利主張을 했다고 한다.⁵⁰⁾ 즉 그들은 지금도 中央政府에 대해 그들의 各 地方에 더 많은 投資를 要請하며 나아가서는 政治的 自立的 幅을 더 넓히려고 온갖 애를 쓴다고 한다.

마. Epilog

1960年代 이래 蘇聯의 民族政策은 하나의 새로운 歷史的인 人間共同体인 '蘇聯國民'(Sowjetvolk)을 形成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러시아社會에는 1917年에 革命이 있었지만 帝政러시아 때부터의 러시아化運動은 추호도 이 革命의 影響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 革命으로 因해 새로이 出現된 프롤레타리아의 統一理念 및 그

註 50) G. Cleinow, 前掲書, S. 725.

運動이 러시아領內 諸民族勢力의 대두를 抑制 또는 撫摩하는데 커다란 防波堤가 되었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旗幟下에 蘇聯國民의 団합이 증용된 스탈린의 民族政策은 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에 의해 충실히 계승되어 러시아系 위주의 蘇聯의 大國主義가 지금 유러시아 (Eurasia)大陸에서 確固한 地盤을 굳힌 판국이다. 1976年 1月の 第25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가 '이제 우리는 建國 50年이 지난 오늘, 聯邦內 諸民族의 混合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蘇聯의 聯邦的 構造를 해체시켰다.'⁵¹⁾라고 豪言壯談한걸 보면 中央政府側의 民族政策이 꽤 잘 進歩된 것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브레즈네프가 말하는 成功的이었다는 民族政策을 客觀적으로 觀察해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中央政府가 理念的 統一과 言語規制를 통해서 總국적으로 單一化된 蘇聯國民을 만들겠다는 政治目的의 誇張宣傳이었던 것 뿐이지, 現時點에서 저들의 民族問題가 完全히 解決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露語公用化, 統一的인 大經濟圈의 建設, 끈질긴 理念的 統一의 強調 等等으로 中央政府가 試圖한 러시아화가 表面的으로나마 꽤 진척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聯邦內 諸非러시아系의 人口膨脹에 따라 저들의

註 51) G. Simon, "Sowjetische Nationalitätenpolitik und der 25. Parteitag der KPdSU",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12/1976, S.5.

내셔널리즘이 새로이 胎動하는 傾向을 보면 러시아系와 非러시아系
간에는 지금도 의연히 緊張狀態가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東歐의 民族紛糾

가. 民族紛糾의 背景

東으로는 흑해, 西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접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국경선, 北은 발틱海岸, 南은 아드리아의 南端을 一環으로 하는 그 이내의 地域이 所謂 東歐地域이다. 이 東歐地域에 사는 種族 분포를 보면 北부의 東쪽에는 러시아族 즉 東슬라브族이 살고, 西쪽에는 폴란드인과 체코·슬로바키아族등 所謂 西슬라브族이 산다. 그리고 다뉴브江이 흐르는 中部에는 헝가리인(마자르族)과 루마니아인(라틴族)등 所謂 非슬라브系 種속들이 산다.

그리고 南部에는 불가리아인과 유고인 등 소위 南슬라브族이 살고 있다. 물론 南部에도 일리뤼아族의 후예인 알바니아인과 예전에 헬라스族에 속했던 마케도니아인들도 살고 있지만 발칸지방에는 南슬라브族이 산다고 해도 대체로 틀린 말은 아니다.

東歐슬라브族의 주거지역을 위와같이 北部, 中部, 南部로 三分할 수는 있지만 東歐슬라브族들은 일찌기 B.C. 6~7 세기의 국가형성기부터 種족이 혼주했었고 近代이후의 種族투쟁에 國경선 설정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種족의 혼주상태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예컨대 헝가리인과 루마니아인이 조금씩 두 나라에 뒤섞여 살고 있어 兩國의 少數保護問題는 심심치않게 拳論되고 있고 또 유고의 1 個共和國인 마케도니아를 에워싼 불가리아와 유고의 歷史的인 領有權 主張도 深刻한 편이다. 그리고 또 폴란드와 체코도 역시 軋軋을 에워싸고 對立되어 있으며 유고 같은 나라에서는

다같이 유고인인데도 北部의 슬로메니아 크로아치아가 中·南部의 세르비아 등과 深刻하게 對立되어 있다.

近代以後 民族의 自覺이 내쇼날리즘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諸民族 間엔 戰爭과 大爭鬪가 數多했었다. 그런데 東歐의 경우는 特別히 2次大戰以後 民族的 主張이 더욱 高潮되어 지금 많은 알력과 對立을 빚고 있다. 즉 一定 統治圈內에서의 異民族 反撥을 무마하기 위해 東歐諸國은 지금 蘇聯의 民族政策을 示範삼아 異民族 회유策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東歐의 民族問題를 理解하기 위해선 먼저 지난 50年間의 蘇聯의 民族政策이 과연 성공적인 것이 있는가를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東歐圈內의 民族的 諸主張이 社會主義圈의 行動統一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고 또 소위 「社會主義的 國民國家」建設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도 밝혀 봐야 한다.

帝政러시아의 꿈은 러시아의 文化的 同化(러시아化)를 통해서 유라시아大陸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7年의 革命후 레닌이 원했던 것도 帝政러시아의 外形的 崩壞를 막으며 同時에 프롤레타리아의 統一國家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領土的 統一을 維持하므로서 大帝國의 活力있는 經濟的 地盤을 마련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다시 말하면 蘇聯 體制의 理念에 위배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聯邦內 諸異民族(非슬라브系)의 郷土文化를 적절히 勸獎하겠다는 것이 레닌의 民族政策의 原理이다. 스탈린의 民族政策도 사실상 레닌의 同政策을 더욱 구체화한 것 의

領有權紛爭 등을 지금도 낳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마케도니아를 에워싼 유고와 불가리아의 對立이다.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間에도 特權地方을 에워싸고 對立되어 있으며, 헝가리와 루마니아間에는 各己 他國 統治圈內에 있는 同族保護를 위해 少數民族保護論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유고같은 나라는 다 같이 유고人인데도 南北의 對立 즉 세르비아人과 크로아치아人的 對立이 아주 深刻하다. 이 같은 東歐의 民族對立實態를 좀 더 仔細히 檢討해 보자.

첫째, 마케도니아의 領有權을 에워싼 유고와 불가리아의 對立이 가장 深刻한 편인데 그 緣由는 다음과 같다. 마케도니아는 本是 알렉산더大王때에 헬라스의 大帝國을 建國한 中心部였으나 그후엔 쇠망하여 늘 分裂되어 있었고 外人統治를 받아 왔다. 地理的으로 불가리아의 西部, 유고의 南部, 希臘의 北部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13年에 同 地域이 3分 當한 후 지금도 마케도니아는 계속 3分되어 있다. 그 人口分布를 보면 유고領 마케도니아가 40%이고 불가리아領 마케도니아는 10%이며 希臘領 마케도니아가 50%이다. 유고領 마케도니아는 유고 6個 共和國중의 하나가 되어 있으나 유고 自體內에서 獨立의 길을 거닐려는 傾向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獨立을 위해 유고 中央政府에 反抗하는 움직임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大불가리아帝國 (1878~1913) 때의 緣故(그 때는 마케도니아가 불가리아에 속해 있었음)와 2次大戰중 韓冬安 (1941~44) 마케도니아를

불가리아 行政圈內에 包含했던 것을 理由로 유고에 對해 同地域의 歴史的 領有權을 主張하는 것이 兩者間的 争점이 되어 있다. 불가리아는 同地域의 再獲得을 위해 2次大戦後 지금까지 絶對 領有權 論争을 펴고 있다. 마케도니아의 作家同盟 代表들을 소피아에 招致하고 反유고 감정을 間接적으로 煽動한다든지 (66年11月), 불가리아의 論說를 正當化하는 마케도니아史를 실는다든지 (79年1月 印度 日刊紙「National Herald」에 불가리아建立 1千3百周年 祝賀하면서 실었음. Südosteuropa 誌 3/'79, 48p. 參照), 또는 유엔人權委員會에 유고領內의 마케도니아少數保護問題를 上呈한다든지 가 모두 그 代表的인 例이다.

그러나 유고는 이에 對해 마케도니아의 유고歸屬 30餘年은 嚴然한 政治的 現實임을 내세우면서 마케도니아인이 지금 政治民族化해 가면서 固有의 文化的 傳統을 수립해가는 오늘, 그들 問題를 政治問題化하는 것은 불가리아가 발칸에서 拮據를 피하는 底意를 드러낸 것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79年3月10日 벨그라드市黨委員長 Dusan Gligorijevic의 演說文 參照, Monitor-Dienst, 79年3月12日字).

둘째, 「南 도부루자」(Süddobrudscha, 루마니아語로는 同地域을 Cadrilater 라고 부름)를 에워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對立도 심상치 않다. 同地域은 루마니아가 1913年 第2次 발칸戰爭때에 獲得하여 1940年9月 蘇聯의 干與에 依해 불가리아에게 割讓했던 곳이다. 그런데 同地域의 루마니아 歸屬問題를 루마니아는 大戦後

命에서 可及的 크로아치아 出身은 排除했고 늘 「유고슬라비즘」을 強調해 온 것이다.

다. 맺는말

19世紀는 国民国家時代였다. 帝國主義가 만끽했던 1,2次 大戦을 겪었고, 世界政治의 一角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바탕으로한 國際共產主義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오늘 国民国家의 盛勢는 衰微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政治思想家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政治의 實際를 보면 「国民国家의 理想」은 아직도 尙존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Daco-Romanism에 바탕을 둔 国民国家的 社會主義建設을 公言하고 있고, 유고가 계속 獨自路線을 標榜하고 있으며, 失敗로 끝난 체코의 人道的 社會主義등등은 모두 霸權主義에 反하는 自主的 社會主義建設을 뜻하는 것이다. 宗主權에로의 回溯에 反하는 自主自立이라는 것은 理念보다 民族 즉 血緣共同體를 더 重要視한다는 本能的인 欲求인 것이다.

결국 全世界의 모든 民族이 19世紀의 遺産인 「国民国家의 理想」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 아니 正統派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좇으면서도 国民国家的 社會主義建設이 公認되고 있는 지금, 高度의 産業社會化 過程에서 蘇聯 및 東歐社會가 더 開放되지 않을 수 없다고 前提할 때, 東歐의 民族問題는 그들 歷史의 源流를 거슬러 분명히 大混亂을 유발시킬 불씨인 것이다.

불가리아 行政圈內에 包含했던 것을 理由로 유고에 對해 同地域의 歷史的 領有權을 主張하는 것이 兩者間的 争점이 되어 있다. 불가리아는 同地域의 再獲得을 위해 2次大戰 후 지금까지 줄곧 領有權 論争을 펴고 있다. 마케도니아의 作家同盟 代表들을 소피아에 招致하고 反유고 감정을 間接적으로 선동한다든지(66年11月), 불가리아의 論說를 正當化하는 마케도니아史를 실는다든지(79年1月 印度 日刊紙「National Herald」에 불가리아建立 1千3百周年을 祝賀하면서 실었음. Südosteuropa誌 3/'79, 48p. 參照), 또는 유엔人權委員會에 유고領內의 마케도니아少數保護問題를 上呈한다든지가 모두 그 代表的인 例이다.

그러나 유고는 이에 對해 마케도니아의 유고歸屬 30餘年은 嚴然한 政治的 現實임을 내세우면서 마케도니아인이 지금 政治民族化해 가면서 固有의 文化的 傳統을 수립해가는 오늘, 그들 問題를 政治問題化하는 것은 불가리아가 발칸에서 拔勢를 꾀하는 底意를 드러낸 것이라고 非難하고 있다(79年3月10日 벨그라드市黨委員長 Dusan Gligorijevic의 演說文 參照, Monitor-Dienst, 79年3月12日字).

둘째, 「南 도부루자」(Süddobrudscha, 루마니아語로는 同地域을 Cadrilater라고 부름)를 에워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對立도 심상치 않다. 同地域은 루마니아가 1913年 第2次 발칸戰爭 때에 獲得하여 1940年9月 蘇聯의 干与에 依해 불가리아에게 割讓했던 곳이다. 그런데 同地域의 루마니아 歸屬問題를 루마니아는 大戰後

最近까지는 一切 拳論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77年末 루마니아의 한 歷史家가 처음으로 主張하길, Cadrilate라는 이름을 가진 地域은 루마니아가 1918년에 合法的으로 獲得한 곳이라고 했다. 그에 이어 79年 여름에 改正增補된 루마니아의 百科辭典은 「도브루자地域」이 紀元前에는 다커아人(루마니아族의 祖上)이 살았던 곳이고 그 후에 한동안 希臘人들이 混住해왔다가 B.C 1~3世紀間은 로마에 歸屬돼 있었다고 論述함으로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間에 同地域의 歸屬論争이 表面化되어 있다.

하여간 마케도니아問題나 도브루자問題등은 領土를 에워싼 民族紛争이지만, 이에 앞서 重要的 것은 大争鬪끝에 領土区劃이 円滿치 않아 一定統治圈內에 異民族이 混住하게된 데에서 惹起되는 소위 少数保護問題와 한 國家안에서의 種族的對立問題가 民族紛糾의 中核인 것이다. 그러한 觀点에서 보면 少数保護問題를 놓고 은근히 對立되어 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사이가 심상치않고, 또 南北間의 種族對立이 심각한 유고의 民族問題가 큰 論難点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少数保護問題를 에워싸고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은근히 對立되어 있는 바 이도 언젠가는 必是 紛争의 불씨가 될 것 같다. 人口 2千萬의 루마니아에는 17個種族이 混住하고 있다. 그중에서 1百60萬의 헝가리인들이 第一 큰 種族集團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헝가리에는 2萬의 루마니아인들이 살고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77年6月 헝가리의 카다르는 두民族의 混住가

兩國文化交流의 促進要因이라고 보고 1百70萬의 루마니아居住 匈牙利人을 爲해 루마니아政府가 匈牙利의 教育制度를 勘案해 줄 것을 要請했었다. 그러나 초세스쿠는 이를 一蹴해버리고 루마니아는 他國에 있는 루마니아人들을 爲해 當該國의 內政에 干與하지 않겠다고 闡明했고, 이어서 1百70萬의 匈牙利人 教育問題는 부카레스트가 配慮할 問題이지 부다페스트가 拳論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었다. 이러한 兩國 指導者의 決意表明을 보면 將次 이 民族問題가 兩國의 不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豫感케 한다.

네째, 유고의 南北問題는 그 歷史의 뿌리가 아주 깊다. 言語가 다르고 宗教가 다르고 文化圈이 달랐으니 아무리 같은 南슬라브族이라 해도 一朝에 「유고슬라비즘」을 如一하게 具現할 수는 없는 것이 當然하다. 北部의 크로아치아와 슬로베니아가 로마·카톨릭이고 「塙·洪帝國」에 屬했는데 反해 中·南部의 세르비아는 希臘正敎와 回敎인데다가 오랜동안 터키 統治下에 있었던 것이다.

19年의 유고 建立후 특히 2次大戰중에 티토揮下의 對獨 叛亂 戰爭을 통해 「유고슬라비즘」이 많이 高調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유고聯邦內 6個 共和國의 유고人들이 種族的인 軋擧과 對立感情을 完全히 버리지는 않고 있는 實情이다.

大戰後 30餘年동안 티토의 權威主義政治는 老練한 民族政策을 통해 지금까지 南北의 對立을 잘 緩和케 했다. 그러나 티토가 없는 지금 이것이 계속 可能할 것인지는 대단히 疑問인 것이다. 티토自身은 크로아치아出身이었다. 그러나 그는 中央官署의 要職任

命에서 可及的 크로아치아 出身은 排除했고 늘 「유고슬라비즘」을 強調해 온 것이다.

다. 맺는말

19世紀는 国民国家時代였다. 帝國主義가 만각했던 1,2次 大戰을 겪었고, 世界政治의 一角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바탕으로한 國際共產主義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오늘 国民国家의 盛勢는 衰微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政治思想家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政治의 實際를 보면 「国民国家의 理想」은 아직도 尙존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Daco-Romanism에 바탕을 둔 国民国家的 社会主義建設을 公言하고 있고, 유고가 계속 獨自路線을 標榜하고 있으며, 失敗로 끝난 체코의 人道的 社会主義등등은 모두 霸權主義에 反하는 自主的 社会主義建設을 뜻하는 것이다. 宗主權에로의 依속에 反하는 自主自立이라는 것은 理念보다 民族 즉 血緣共同体를 더 重要視한다는 本能的인 欲求인 것이다.

결국 全世界의 모든 民族이 19世紀의 遺産인 「国民国家의 理想」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 아니 正統派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쫓으면서도 国民国家的 社会主義建設이 公認되고 있는 지금, 高度의 産業社会化 過程에서 蘇聯 및 東歐社会가 더 開放되지 않을 수 없다고 前提할 때, 東歐의 民族問題는 그들 歷史의 源流를 거슬러 分明히 大混亂을 유발시킬 불씨인 것이다.

運動이 러시아領内 諸民族勢力의 대두를 抑制 또는 撫摩하는데 커다란 防波堤가 되었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旗幟下에 蘇聯國民의 団합이 總動員된 스탈린의 民族政策은 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에 의해 충실히 계승되어 러시아系 위주의 蘇聯의 大國主義가 지금 유러시아 (Eurasia)大陸에서 確固한 地盤을 굳힌 大國이다. 1976年 1月の 第25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가 '이제 우리는 建國 50年이 지난 오늘, 聯邦内 諸民族의 混合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蘇聯의 聯邦的 構造를 해체시켰다.'⁵¹⁾라고 豪言壯談한걸 보면 中央政府側의 民族政策이 꽤 잘 進歩된 것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브레즈네프가 말하는 成功的이었다는 民族政策을 客觀적으로 觀察해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中央政府가 理念的 統一과 言語規制를 통해서 總國적으로 單一化된 蘇聯國民을 만들겠다는 政治目的의 誇張宣傳이었던 것 뿐이지, 現時點에서 저들의 民族問題가 完全히 解決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露語公用化, 統一的인 大經濟圈의 建設, 끈질긴 理念的 統一의 強調 等等으로 中央政府가 試圖한 러시아화가 表面的으로나마 꽤 進척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聯邦内 諸非러시아系의 人口膨脹에 따라 저들의

註 51) G. Simon, "Sowjetische Nationalitätenpolitik und der 25. Parteitag der KPdSU",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in Köln, 12/1976, S. 5.

내셔널리즘이 새로이 胎動하는 傾向을 보면 러시아系와 非러시아系
간에는 지금도 의연히 緊張狀態가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非러시아系의 人口膨脹만이 아니고 저들에게도 教育水
準의 向上, 社会的 動員力の 增大, 工業化 및 都市化 등이 뒤따름
으로써 이것이 比較的 잘 推進된 中央아시아와 카자크스탄 等地에
서는 新엘리트層이 形成되어 있다. 저들 엘리트들이 저들의 党機
構 諸分野에서 活躍하고 있으나 民族的 잔재를 消滅하려는 中央政
府의 試圖에는 主体意識에 立脚한 民族的 反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52)

저들 非러시아系의 主体意識, 즉 저들의 民族的 特色을 러시아圈
에 吸收당하지 않으려는 精神姿勢가 바로 中央政府가 主導하는 蘇
聯內政을 混亂케 할 수 있는 要因인 것이다. 産業社會化 過程에
서 共產圈의 自由化가 이를 때 (蘇聯의 自由化는 두 系列의 反體
制運動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 하나는 抑壓的인 現指導體制를
憎惡한 나머지 오히려 帝政러시아時代를 欽慕하는 소위 保守的 反
動體制요,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追從하되 이를 産業社
會의 體質에 알맞게 계사·추진해 나가는 党엘리트들 中の 新左派的

註 52) Herausgegeben vom Bundesinstituts in Köln, Sowjet-
union, 1974/75, S. 62 ff.

反体制이다) 저들 諸民族의 내셔널리즘의인 發展傾向이 中央政府의 지나친 러시아化 政策에 如何히 反動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歷史가 제시해 줄 것이다.

世界共產主義가 삼분오열된 것은 (소위 蘇聯型·中共型·東歐型·西歐型 등등) 인터내셔널리즘이 내셔널리즘 앞에 敗北한 증거이다. 모스크바는 共產圈의 종주국으로서 統一된 世界共產主義를 領導하려 했지만 暴力으로 이끌 수 있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蘇聯은 소위 民族共產主義나 個私共產主義를 許容한 것이다.

19世紀는 國民國家時代였다. 1,2次大戰을 겪은 오늘 國民國家의 盛勢는 衰微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思想家와, 政治家 그리고 歷史家들까지도 보고 있지만 國際政治의 實際를 보면 '國民國家의 理想'은 아직도 嚴存되어 있다. 東歐의 中小國들이 國民國家的 社會主義 建設을 公認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國際社會의 國家生活에 있어 國民國家的 福祉向上을 바탕으로 한 國際協力을 理想視하기 때문이다.

全世界의 모든 民族이 19世紀의 遺産인 國民國家의 이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 아니 正統派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쫓으면서도 國民國家的 社會主義 建設이 公認되고 있는 지금, 불원한 장래에 自由化運動의 一環에서 蘇聯社會에 反体制運動이 激化된다고 前提할 때 蘇聯의 民族問題는 分明히 大混亂을 유발시킬 烽火의 불씨인 것이다.

3. 東歐의 民族紛糾

가. 民族紛糾의 背景

東으로는 흑해, 西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접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국경선, 北은 발틱海岸, 南은 아드리아의 南端을 一環으로 하는 그 이내의 地域이 所謂 東歐地域이다. 이 東歐地域에 사는 種族 분포를 보면 北部의 東쪽에는 러시아族 즉 東슬라브族이 살고, 西쪽에는 폴란드人과 체코·슬로바키아族 등 所謂 西슬라브族이 산다. 그리고 다뉴브江이 흐르는 中部에는 헝가리인(마자르族)과 루마니아人(라틴族) 등 所謂 非슬라브系 種속들이 산다.

그리고 南部에는 불가리아인과 유고인 등 소위 南슬라브族이 살고 있다. 물론 南部에도 일리리아族의 후예인 알바니아인과 예전에 헬라스族에 속했던 마케도니아인들도 살고 있지만 발칸지방에는 南슬라브族이 산다고 해도 대체로 틀린 말은 아니다.

東歐슬라브族의 주거지역을 위와같이 北部, 中部, 南部로 三分할 수는 있지만 東歐슬라브族들은 일찌기 B.C. 6~7 세기의 국가형성기부터 種족이 혼주했었고 近代이후의 種族투쟁에 國境線 설정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種족의 혼주상태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예컨대 헝가리人과 루마니아人이 조금씩 두 나라에 뒤섞여 살고 있어 兩國의 少數保護問題는 심심치않게 學論되고 있고 또 유고의 1個共和國인 마케도니아를 에워싼 불가리아와 유고의 歷史的인 領有權 主張도 深刻한 편이다. 그리고 또 폴란드와 체코도 역시 텃센을 에워싸고 對立되어 있으며 유고 같은 나라에서는

다같이 유고인인데도 北部의 슬로메니아 크로아치아가 中·南部의 세르비아 등과 深刻하게 對立되어 있다.

近代以後 民族의 自覺이 내쇼날리즘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諸民族 間엔 戰爭과 大爭鬪가 數多했었다. 그런데 東歐의 경우는 特히 2次大戰以後 民族的 主張이 더욱 高潮되어 지금 많은 알력과 對立을 빚고 있다. 즉 一定 統治圈內에서의 異民族 反撥을 무마하기 위해 東歐諸國은 지금 蘇聯의 民族政策을 示範삼아 異民族 회유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東歐의 民族問題를 理解하기 위해선 먼저 지난 50年間의 蘇聯의 民族政策이 과연 성공적인 것이 있는가를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東歐圈內의 民族的 諸主張이 社會主義圈의 行動統一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고 또 소위 「社會主義的 國民國家」建設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가도 밝혀 봐야 한다.

帝政러시아의 꿈은 러시아의 文化的 同化(러시아化)를 통해서 유라시아大陸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7年의 革命후 레닌이 원했던 것도 帝政러시아의 外形的 崩壞를 막으며 同時에 프롤레타리아의 統一國家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즉 領土的 統一을 維持하므로서 大帝國의 活力있는 經濟的 地盤을 마련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다시 말하면 蘇聯 體制의 理念에 위배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聯邦內 諸異民族(非슬라브系)의 鄉土文化를 적절히 勸獎하겠다는 것이 레닌의 民族政策의 原理이다. 스탈린의 民族政策도 사실상 레닌의 同政策을 더욱 구체화한 것 의

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레닌의 民族政策 原理를 근간으로 해서 中央政府가 言語的으로 文化的으로 어떻게 연방內 非슬라브系를 조정하느냐를 理論化한 것이 스탈린의 民族政策이다.

결국 蘇聯의 民族政策은 러시아인의 傳統的인 國세확장을 目標로 한 것이기 때문에 蘇聯邦 建立後 출판 內政上의 가장 어려운 問題中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래서 蘇聯의 歷代政治指導者들은 階級利益이라는 統一된 革命思想을 내세워 聯邦內 諸民族의 獨立 分離傾向을 抑制했던 스탈린의 民族政策이 樹立된 후 계속 言語的, 文化的 러시아化 政策을 구사해 왔고 또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蘇聯의 現指導層은 지금 50년에 亘한 그들의 民族政策이 成功的이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이 民族問題를 겉으로나마 크게 重要視하지 않지만 ('76年의 第25次 党大會에서 民族問題는 거의 論議되지 않았음) 尙今 非러시아系 人口가 屢증하고 있고 또 都市化와 工業化에 따른 非러시아系 인테리層 형성 등이 새로이 내쇼날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民族問題는 결코 완전히 타결된 問題가 아니고 언젠가는 필시 蘇聯政治를 뒤흔들 潛在要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帝政러시아 때를 동경하는 保守系의 反體制運動이던 또는 「新左派」의 思想性を 지닌 연방內 젊은 엘리트層이 벌이는 反體制運動이던 間에 同運動이 擴大 展開되는날엔 이 民族問題가 蘇聯社會를 폭발시킬 불씨인 것만은 틀림없다.

브레즈네프는 지금 「建國 50年이 지난 오늘 연방內諸民族의 混

함으로 말미암아 蘇聯의 聯邦的 구조는 드디어 解体되었다」

(76年 第25次 党大会에의 말)

고 壯談하지만 「單一化된 蘇聯國民」이 完全히 형성되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다. 물론 露語公用化, 統一的인 大經濟圈의 建設, 끈질긴 理念的 統一試圖 등등으로 中央政府의 러시아化政策이 表面的으로는 꽤 進歩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연방內 非러시아系의 人口膨脹에 따라 저들의 내쇼날리즘이 새로이 胎動한다는 걸 보면 러시아系와 非러시아系의 緊張狀態는 아직도 穩固히 存続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非러시아系의 人口膨脹만이 아니고 教育水準의 向上 社会的 動員力의 增大, 工業化 및 都市化 등에 의해 中央아시아와 카자크스탄 等地에서는 党内에서 新엘리트층이 형성되어 있다. 저들 엘리트들이 모두 그들 故場의 党 機構 諸分野에서 活躍하고 있긴 하나 民族的 殘滓를 소멸하려는 中央政府의 試圖에는 主体意識에 입각한 民族的 反撥을 일으키고있는 實情이다.

非러시아系가 그들의 民族的 特色을 러시아圈에 吸收 當하지 않으려는 「내쇼날리즘的인 發展傾向」이 있는 限 蘇聯의 民族問題는 결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나. 民族對立 樣相

위에서 言及한 바 있지만 東歐의 民族問題는 이미 中世初의 國家形成期에 諸民族이 混住狀態에 있었고 또 近代以後의 大전투끝에, 隣接國家間의 國境設定問題가 円滿히 解決되지 못했기 때문에

領有權紛爭 등을 지금도 낳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마케도니아를 에워싼 유고와 불가리아의 對立이다.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間에도 텃센地方을 에워싸고 對立되어 있으며, 헝가리와 루마니아間에는 各己 他國 統治圈內에 있는 同族保護를 위해 少數民族保護論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유고같은 나라는 다 같이 유고人인데도 南北의 對立 즉 세르비아人과 크로아치아人的 對立이 아주 深刻하다. 이 같은 東歐의 民族對立實態를 좀 더 仔細히 檢討해 보자.

첫째, 마케도니아의 領有權을 에워싼 유고와 불가리아의 對立이 가장 深刻한 편인데 그 緣由는 다음과 같다. 마케도니아는 本是 알렉산더大王때에 헬라스의 大帝國을 建립한 中心部였으나 그후엔 쇠망하여 늘 分裂되어 있었고 外人統治를 받아 왔다. 地理적으로 불가리아의 西部, 유고의 南部, 회람의 北部에 位置해 있기 때문에 13년에 同 地域이 3分 當한 후 지금도 마케도니아는 계속 3分되어 있다. 그 人口分布를 보면 유고領 마케도니아가 40%이고 불가리아領 마케도니아는 10%이며 회람領 마케도니아가 50%이다. 유고領 마케도니아는 유고 6個 共和國중의 하나가 되어 있으나 유고 自體內에서 獨立의 길을 거닐려는 傾向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獨立을 위해 유고 中央政府에 反抗하는 움직임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大불가리아帝國(1878~1913)때의 緣故(그 때는 마케도니아가 불가리아에 속해 있었음)와 2次大戰중 한동안(1941~44) 마케도니아를

参 考 文 献

- 1) L. Beskrownyj, 'Histoy of the Formation of the Russo-Chinese Border', in: International Affairs, 7/1972.
- 2) G. Cleinow, 'Die Nationalitätenpolitik in der Sowjetunion', in: Osteuropa, Heft 8/9/1975.
- 3) E. Oberländer, 'Georg Cleinow über die sowjetische Nationalitätenpolitik', in: Osteuropa, Heft 8/9/1975.
- 4) G. Simon, 'Nationalitätenpolitik', in: Osteuropa, Heft 8/9/1976.
- 5) G. Simon, Ders., 'Aktuelle Probleme der sowjetischen Nationalitätenpolitik',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1/1975.
- 6) G. Simon, Ders., 'Sowjetische Nationalitätenpolitik und der 25. Parteitag der KPdSU',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12/1976.
- 7) Osteuropa, 3/1961 (資料集)
- 8) Osteuropa, 7/8/1964 (資料集)
- 9) Bundesinstitut: Sowjetunion, 1974/75.

- 10) K.E. Wädekin, 'Nationalitätenpolitik und Lebenskraft der Völker in der Sowjetunion', in: Osteuropa, Heft 11/1964.
- 11) J. Stalin, 「マルクス主義と民族問題」, 1952, 全集 第2巻.
- 12) 이태영 : <오호계국의 民族問題>, 「東国大論文集」, 第5輯, 1968.